땅 끝까지

임동선 목사 설교집

쿰란출판사

송정명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2대 총장, 미주 성시화운동 공동대표회장)

개인적으로 임동선 목사님을 40여 년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동양선교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긴 13년간은 담임목사로 직접 모신 관계였고,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같은 지역에서 교계의 어른으로 모셔 왔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창립하셨던 월드미션대학교 2대 총장으로 불러 주셔서 6년간은 한 캠퍼스 안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지내 왔습니다.

그 어른은 저에게 목회의 틀을 잡아 주셨던 영적인 스승이었고 멘토였습니다. 일선 목회 현장에서 은퇴한 지 8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도 저는 그런 어른 밑에서 목회를 배웠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5년이 되는 때에 생전에 남겨 두었던 설교 원고들을 모아 선교와 전도에 맞춘 설교집을 발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의 체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설교는 활자를 통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육성으로 듣는 것이 훨씬 감동적이며 생동감이 넘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한 열정이 넘쳐 나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말이 설고 낯이 설고 문화가 다른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겨 내고 살아 나가야 할 이민자들에게는 큰 도전과 위로가 되어 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설교자들의 고민거리는 말씀을 선포한 이후 목회 현장에서 가시적인 부흥과 성장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찾아오는 괴리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섬기던 목회 현장은 달랐습니다. 50여 년 전 자택에서 개척 교회로 시작했던 교회가 한때는 등록 교인 7000-8000명이 될 정도로 큰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고, 세계선교를 주도해 나가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도의 열매도 나타났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손길이 있었겠지만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과 삶의 현장에서 보여 주었던 삶의 일치된 모습도 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목사님의 목회 현장은 선교와 전도였습니다. 1세기의 가장 위대했던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아 보려는 몸부림도 많이 쳤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적 신앙 고백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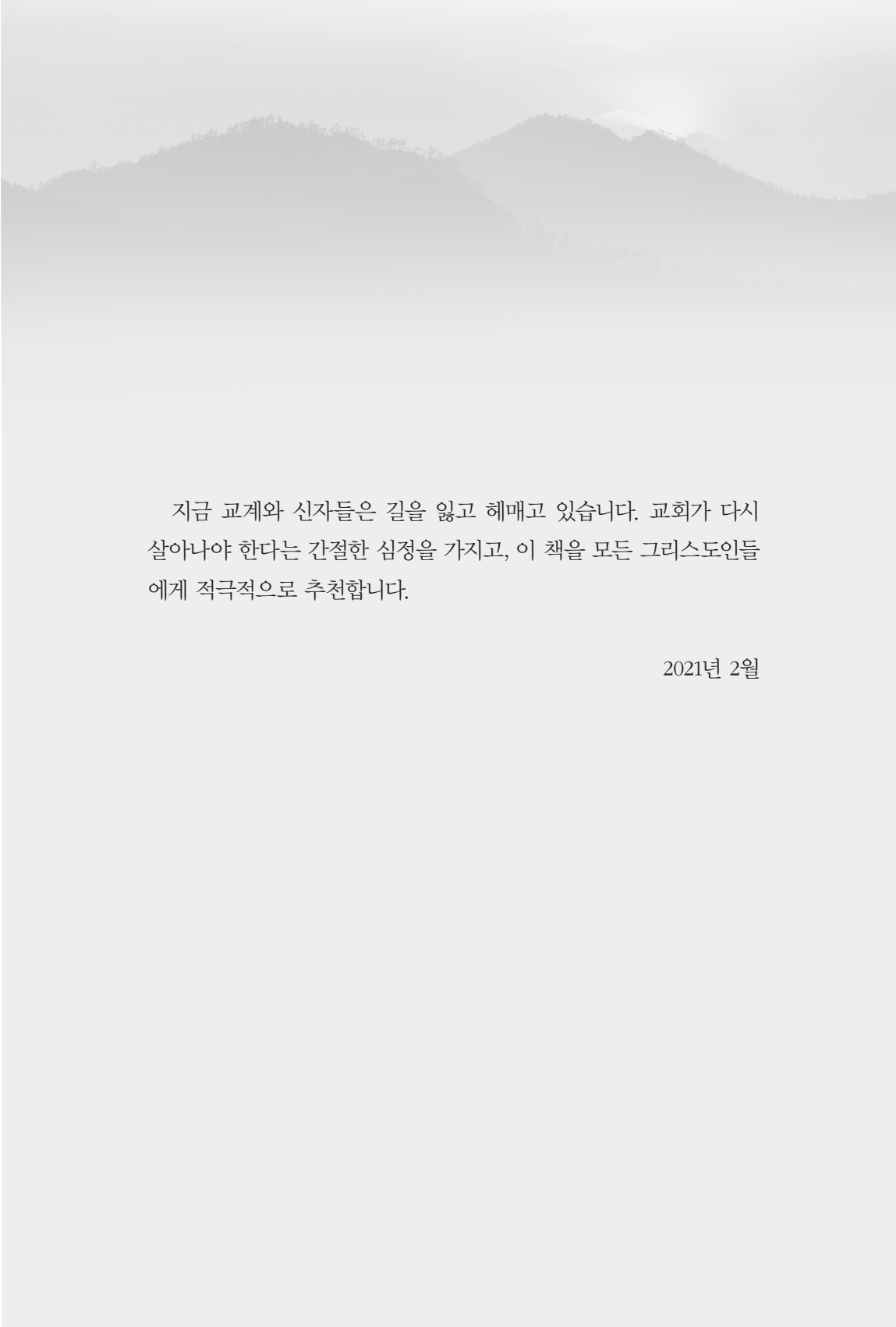
가족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흔세 살의 노구를 이끌고 남미 땅으로 가서 네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후유증으로 5년 전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의 선교적인 목회 철학과 삶을 담은 설교집이기에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신학생,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꼭 읽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2021년 2월

윤성환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이사장)

임동선 목사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삶과 정신과 모범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분의 교훈 하나하나가 다시 또렷하게 우리의 뇌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열정, 섬김,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임동선 목사님은 정직한 삶, 깨끗한 삶, 이웃 사랑, 사회 봉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인 이민자들에게 이민 생활의 목적과 꿈을 심어 주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민 생활의 많은 장애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명확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섬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 됨과 협동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임동선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다시 설교집

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선교의 정신과 자세, 그리고 선교 현장의 생생한 간증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라는 목사님의 놀라운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제는 감동과 존경을 넘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에 우리도 합류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삶,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꿈꾸셨던 지구촌이 복음화되도록 우리 후학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설교집이 문자화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가슴이 뜁니다. 그분의 생생한 육성을 다시 듣는 것 같아서 흥분이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과 신자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교계와 신자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021년 2월

임성진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령충만함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임동선 목사님은 분명한 회심과 동시에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복음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임동선 목사님은 현역 목회 중에도 선교에 힘쓰셨지만 65세 은퇴 후에는 전적으로 세계선교에 집중하였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 어떠한 오지에도 찾아가셨으며, 한 나라에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100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생전의 소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지상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

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임동선 목사님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헌신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의 생전에 여러 권의 설교집이 출간되었지만 사후에도 그분이 남겨놓으신 설교의 음성을 문자화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생각, 주님을 향한 헌신, 성도를 향한 사랑, 섬김의 발자취를 문자로 남겨 보존하고 후세에게 유산으로 남겨놓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의 많은 가르침 중 '땅 끝까지 이르는' 그분의 선교 발자취를 이번 설교집에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 《땅 끝까지》라는 설교집을 출판하면서 임동선 목사님의 세계선교를 향한 열정을 더욱 또렷하게 느끼며 마음에 새기는 축복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천의 글을 써주신 월드미션대학교 2대 총장이신 송정명 목사님과 이사장 윤성환 목사님 그리고 이 귀한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쿰란출판사의 이형규 장로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차례

선교의 정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선교의 정신…

은혜 받은 자의 바른 신앙생활

(히 13:5-9)

지난주 본교회 창립 29주년 부흥성회에 참석한 분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증거가 생활에 나타나야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은혜 받은 자의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1.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바라보고 사는 목표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돈을 바라보고 삽니다. '어떡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부자가 되어야겠다, 잘살아

야겠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바라보고 삽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나도 이름을 남겨야겠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바라보고 삽니다. 권력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호령도 하고, 지배하고, 대접도 받겠다고 권력을 최고의 수단으로,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나깨나 이성에 대한 생각만 하다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분토와 같고 헛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부족을 변화시키고, 국가와 민족을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요, 희랍의 철학을 다 아는 사람이요, 로마의 법률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그 사람의 출생을 이야기했다면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권세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분토와 같이, 똥과 같이 여기고 자신은 십자가밖에 아는 것이 없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크게 몇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구속의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쓰신 것입니다. 양손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양 발에 못이 박힌 이유는 우리가 안 가야 할 곳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린 것은 우리가 흉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큰 죄인은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로마도 그 당시에 흉악한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삶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대가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이 공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태

양빛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살아갑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무조건의 큰 은혜, 큰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찬송가 141장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이 찬양이 우리 입에서 그저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

둘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비판을 참지 못하고, 가난함을 참지 못하고, 정욕을 참지 못하고, 모략중상을 참지 못하고, 누가 욕하고 때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날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노동자 30년, 광야 40일 금식기도, 다급하고 목 마르고, 마지막으로 배신당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독, 빌라도 뜰에서의 수치, 마지막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바느질하다가 손 끝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가시 하나가 박히면 밤새 지끈지끈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가시 면류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셨는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습니다. 정오 12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그 십자가에서 시신을 끌어내려 무덤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

을 생각할 때, 빌라도 뜰에서의 주님을 생각할 때, 갈보리 산에 올라가는 주님을 생각할 때, 무덤 속에 들어가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고통을 받고 참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녀에게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오는 고통이 있습니까? 부모에게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까? 친척에게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까? 형제들에게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까? 생활고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거역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원문에 '저울로 달아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네가 당하는 억울함, 아픔과 고통이 무거운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더 무거운가 저울로 한번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더 무겁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 수치, 멸시, 아픔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946년 중생의 은혜를 받은 후로 오늘까지 이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어떤 어려움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같은 동역자가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그리고 군대 가서 기합을 받아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1947년에 부자 장로님이 돈을 내고 이비인후과 과장에게 사례금을 주어 서울대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시켜 주었는데 그때는 해방 직후 마취주사가 없으니까 살을 그냥 째는 겁니다. 그때는 귀도 좀 밝아서 짹짹 하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고름을 긁어내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야, 너는 축농증을 고

치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주님을 생각해 봐라' 하며 끝까지 참았어요. 일주일 후에 또 치료를 받는데 침대에 눕히고 못 움직이게 묶습니다. 의사가 "얘, 매지 마라. 전에 보니까 이 사람 잘 참더라. 그냥 하자" 그래서 그냥 하는데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하니까 얼마나 더 아파요? 끝까지 속으로 '주여,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들에게, 어떤 때는 아내에게, 어떤 때는 친척에게, 어떤 때는 교회에게, 어떤 때는 동역자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안 나올 것입니다. 다른 교회로 갑니다.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왜 그럽니까?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목사 바라보고 부흥사 바라보는 사람은 백번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의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를 짓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십자가가 그 죄를 막아준다. 내가 세상에 나가려고 할 때 십자가가 막아 주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말은 '아양세사 세양아사'라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십자가가 가로막아 못 나가게 하고, 죄가 나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십자가가 가로막아 죄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로 보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죄 짓지 아니합니다.

사탄은 어떤 때는 뱀으로 나타납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팔아버린 뱀, 옛 뱀, 오늘도 이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유혹을 줍니다. 이성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사람은 그 뱀에게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 사람은 뱀이 입을 벌리고 달려들다가 십자가가 가로막혀서 삼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65년에 미국에 와서 시내에 있는 큰 인쇄소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한 시간에 1불 65전 받고 일했습니다. 인쇄소 바로 뒤에 큰 원단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나니까 2층에서 원단을 골목으로 내던졌습니다. 타지 않은 원단들을. 그래서 저녁때 가서 봤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녁때 퇴근 시간에 우리 인쇄소에 있는 흑인들, 멕시칸들, 그다음에 백인들 몇몇이 그냥 자기 자동차에다 그것들을 싣고 갑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제 마음속에도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너도 하나 가져가라.” 그런데 십자가가 가로막습니다. “너는 목사다.”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도 좋은 원단을 차에 싣고 가서 우리 딸들, 우리 아내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도 지옥 가고, 우리 아내, 딸들도 지옥 갈 텐데….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아양세사 세양아사’ 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넷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마지막 죽을 때는 착한 말을 합니다. 죽을 때는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죽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봤어?" 이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뒤통수 봤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있었소, 없었소?" "있었지." "봤소?" 꼭 봐야만 믿습니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만도 수십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의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공의로운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악한 자가 잘살고, 의인들이 죽는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만으로는 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다 못 살고, 전쟁 때문에 더 살아야 할 사람들이 못 살아요. 생명의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으면 대상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나라였으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하다가 그 영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온 사람들, 에스겔도 봤죠, 다니엘도 봤죠, 사도 바울도 봤죠, 사도 요한도 봤죠,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감격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지막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차도 급하다고 아무거나 타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제대로 갈 기차를 타야 합니다. 종교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로켓도 쏘아 올려야지만 달나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 가려면 뛰어도 못 갑니다. 수영해서도 못 갑니다. 날아서도 못 갑니다.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를 붙들어야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9-10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잡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다가 베드로에게 오시니까 “주님, 나는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온몸이 깨끗하다” 하십니다.

목욕을 매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이 귀한 나라에서는 매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옛날 시골에 살아봤지만 목욕탕이 있어요? 바다와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강에 가서 목욕했지요. 요즘 나라들은 물이 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갔더니 호텔에서 “물 아껴 쓰시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회개했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은 것, 그것도 씻어야 한다, 그것도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웨슬리는 밤마다 발을 씻고 잤다고 합니다. 날마다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아주 없는 사람, 죄를 아주 안 짓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작은 죄라도 속히 깨닫고, 속히 회개하는 사람이 성

자입니다. 과거 없는 성자가 없고, 미래가 없는 죄인이 없다는 것처럼, 성자는 죄를 잘 깨닫고 그때마다 깨끗이 씻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참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슬퍼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슬퍼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교인들은 성전 깊이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안식일을 지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성전 뒤뜰에서 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밤마다 눈물을 너무 흘려서 침상이 뜨고, 요를 적셨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둘째,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남에게 나쁜 짓을 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마음을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말로만 회개해서 됩니까?

중국 어떤 시골에 양조장 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부흥회 와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일

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참석해서 보니,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모두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업을 바꾸십시오. 그 양조장을 팔아버리고 다른 직업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면 또 그 사람이 죄짓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문을 닫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후회이며, 깨끗한 삶을 수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방향 전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고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죄를 많이 짓다가 돈이 떨어지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노름하던 사람이 돌아섭니다. 술집에 다녔던 사람이 돌아섭니다. 나쁜 짓을 하던 것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5세기 위대한 교부이며, 유명한 성자인 어거스틴은 16살 때부터 여자하고 놀았습니다. 도둑질도 했습니다. 아주 특별히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많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교회에 가다가 자기와 같이 놀았던 여자가 앞에서 걸어옵니다. 얼른 돌아서 도망가는데 그 여자가 "어거스틴! 나야 나!"라고 하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바보 어거스틴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못된 짓 하면서 "주여, 눈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천하의 힘을 가졌던 삼손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고, 마음을 고치는 것이며,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3.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 삶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벌과 같은 사람.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나비, 파리처럼 약한 것을 잡아먹는 생물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착취해 먹는 놈들이 거미와 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관들, 공직자들은 10명의 1명은 도둑놈이라고 신문에 난 것을 보셨습니까? 털면 이거보다 더 나올 거예요. 외람되지 않습니까?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둘째는 개미입니다. 개미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만 먹습니다. 벌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벌어서 주인도 주는 이타적 정신, 희생적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젊은 사람입니다. 저 남쪽에서 중형 마켓 하나를 운영합니다. 흑인들, 멕시칸들 11명을 데리고 운영하니까 꽤 큰 거예요. 그런데 1992년 4월 29일 폭동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근처에 사는데 새벽에 알람이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저 아래서부터 불을 지르고 아우성치면서 폭동이 올

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너 빨리 돌아가라. 너, 네 차 타고 가면 위험하다. 우리 차 타라, 우리가 지켜주마”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폭동 때문에 집이고 가게이고 다 탔어요. 가구점이니, 세탁소니, 마켓, 맥도날드 모두 다 탔어요. 그런데 자기 가게 하나만 안 상하고 그대로 있었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지켜준 것입니다.

이때 할머니 한 분이 우유를 사러 왔습니다. “내가 여기저기 가봐도 우유를 살 데가 없더라. 우유 한 통만 달라.” 자기 아내가 옆에 있다가 말합니다. “여보, 여기 있는 가게 물건 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줍시다. 우리가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게 신자 아니오?” 남편도 ‘이건 이 동네 사람들이 안 가져간 것일 뿐이지, 이 동네 사람 꺼다’ 해서 “내일 10시에 동네 사람 다 와라” 하고 광고했습니다. 10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문 열어 놓고, “당신들이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가는 사람, 수레를 가져와서 가져가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경찰서에 전화를 한 것 같아요. NBC 기자가 왔어요. 그것을 다 사진 찍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진 찍고 그게 두 번 채널 4(NBC)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워싱턴 DC에 부시가 LA 참상을 시찰하러 왔다가 라디오 코리아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청년 좀 오라고 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준 것이라고 하니까 부시가 참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다 가져간 다음에 새 물건을 더 꽉 차게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팔리기 시작하는데 그 근처에 큰 마켓 아무것도 없고 그 집 하나니까 이전보다 8배를 더 팔았다고 합니다. 여섯 달 동안에 65만 5천 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5만

불 집을 샀어요. 우리 교회 헬렌이라는 집사인데, 남자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 임승표 집사입니다. 어려울 때 같이 나누며 살아가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하였지요? 주었기 때문에 8배를 더 많이 팔고, 여섯 달 만에 65만 불을 번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성경에 당대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는다는데 왜 그렇게 망합니까? 조상들이 과거에 밀주 장사하고 무기 장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해서 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이 말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편 29편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중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흉년을 대비하여 그 나라를 살리고, 이웃 나라도 살리고, 자기 부모형제를 살렸습니다. 요셉은 깨끗하게 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르드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으로 결국은 총리대신이 되어서 그 민족을 멸망에서 구하고 그 나라에도 큰 유익을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왕이 온 백성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 은혜 받은 신앙은 먹든지 자든지 마시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한다고 해도 내 육체를 위해서 가 아니라, 내 일을 위해서 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1920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은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앙의 자유, 예배의 순결, 세계 선교, 조국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지난번 집회에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달라져야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은혜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의 중요성

(창 13:1-13)

오늘은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올 때도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선택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식당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학교에 가는 것도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취직을 하는 것도 어느 방면에 취직을 할 것이냐,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결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이냐, 집을 사는 데도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자녀를 낳을 때도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이민을 가는 데도 남미로 갈까, 캐나다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미국으로 간다고 해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갈까, 서부로 온다고 해도 시애틀로 갈까, 포틀랜드로 갈까, 샌프란시스코로 갈까, 샌디에이고로 갈까 모두가 선택입니다.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자유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

므로 선택에는 하나의 깊은 사유와 고민이 따라갑니다. 선택의 결과로 남는 책임은 내가 일생 동안 져야만 합니다. 내가 선택하였기에 혹은 원치 않는 경우가 닥칠지라도 그 결과는 내가 감수해야 합니다.

고 김계용 목사님은 이북에서 사범학교를 나오고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6·25가 난 다음에 강제로 끌려가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나와서 훌륭한 목사로서 지금까지도 그의 후손이 이민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그 인민국에서 탈출하는 결단의 선택이 없었다면 이 땅위에 김계용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브라질 상파울루의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로 계신 문명철 목사님도 이북에서 인민군으로 끌려 나오다가 포로가 되어 거제도에 수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가 보병을 석방해서 "너희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해서 어떤 사람은 이북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남아 있고, 문명철 목사님은 인도를 택했다고 합니다. 제3국에 있다가 브라질로 갔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미국에 와서 박사 공부하고 브라질 가서 신학교 교수를 하고, 지금은 우리 동양선교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에 머물지도 않고 제3국을 택해 일찍이 해외에 나와서 남미와 미국에서 공부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이라는 사람은 선택을 잘못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나와 이제 소돔 땅 가까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은 싸우지 않는데 그 종들이 서로 싸웁니다. 좋은 풀을 발견하면 서로

우리 양을 먹여야겠다, 좋은 우물을 발견하면 우리 양을 먹여야겠다고 싸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러다가 너하고 나하고도 의가 나빠질지 모르니 우리가 갈라서 따로 살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는 너그러운 자입니다.

조카 롯이 보니 저 넓은 평야가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가 소돔 고모라 근처입니다. 풀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내가 저쪽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나는 오른쪽을 택해야지" 하고 헤브론 골짜기, 상수리 나무, 바위가 많고 풀이 적은 곳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롯은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소돔 성이 간음과 음란으로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셔서 그 성이 다 탈 뿐만 아니라, 집도 타고 재물도 타고 사람도 타고 해서 오늘날 소금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 상수리 나무 바위만 있는, 풀도 적은 곳이지만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축복, 부부해로의 축복, 재물의 축복, 명예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손 가운데 야곱이 나고, 솔로몬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돈을 보고 간 롯은 망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신령한 것, 믿음을 보고 간 아브라함은 크게 성공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롯은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모름지기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자자손손을 위해서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의 중요성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친구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더불어 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소꿉동무를 사귀고, 학교에서는 학교 친구를 사귀고,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 친구를 사귑니다. 그런데 친구를 사귈 때 골라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다는 것은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친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과 같이 날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약국과 같이 가끔 가다 필요한 친구가 있고, 질병과 같이 피해야 할 친구입니다. "먹고 마시기에는 많은 친구가 있으나 그러나 위급할 시에는 친구가 몹시 드물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는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환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성공하면, 부자가 되고 영향력이 있으면 그림자 친구가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불이 딱 꺼지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실패하고 병들고 고독하고 신음하고 좌절 속에서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재상 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들끓어도 재상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찰에 있을 때 박 대위라는 조종사가 비행기 사고로 죽고 나니까 부인이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빠가 있을 때는 매일 전화하고, 매일 우리 집에 자주 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와요" 하였습니다.

옛날 재상 한 분이 서울에서 휴가를 내어 자기 고향 시골에 갔더니 아들 하나가 있는데 매일 밤 술에 취해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이 재상이 아들에게 "너 어찌하여 네 나이에 일을 하든가, 공부를 하든가 그래야 마땅한데 매일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오니?" 하면서 무슨 연고냐고 물어보았더니 "오늘은 친구 어머니 환갑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은 친구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친구 아들 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은 친구 딸이 백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맨날 친구, 친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새벽녘에 취해서 들어온 아들을 데리고 아들 방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야, 저기 동네에 박 서방이 와서 내게 불쾌한 말을 하기에 내가 목침으로 때렸더니 그만 빗나가서 저 사람이 즉사해서 내가 묶어 놨다. 날 밝기 전에 너하고 나하고 가서 파묻자. 지게 가져와라. 우리 둘이 파묻다간 날 밝으면 들키기 쉬우니 네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아들이 친한 친구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친구가 나오기에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같이 가서 파묻자 하니까 친구가 "나 지금 설사 나와서 못 가겠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말해도 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에게 가보자"라고 하며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들기니까 친구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그 말을 하니깐 얼른 그를 잡아 끌고 문을 닫더니, "날이 다 밝아가서 우리 셋이 가서 파묻어도 들키기 쉬우니 우선 장독간에 파묻은 다음에 밤이 되면 우리가 파묻읍시다" 합니다. 장독간에 가서 파묻으려고 할 때 재상이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면서 "여보게, 이거 사람 아니야. 내 아들놈 교육하려고 돼지 잡았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야, 너 친구 많다더니 네

친구가 다 어디 갔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친구, 술 친구, 골프 친구, 낚시 친구, 노름 친구, 댄스 친구, 라스베이거스 친구 등 많고 많지만 미안하지만 다 불안한 친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친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 비밀 없이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내 중심을 주고, 그가 받아주고 이해하고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아니 대신 죽어주는 그것이 참 친구입니다.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참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을 이해하고, 내 비밀을 보장해 주고, 내 고통을 같이 당해 주고,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친구요 영원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하천풍언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동양의 성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그가 한 번은 인도에 가서 간디를 만났습니다. 간디가 하는 말이 "당신 일본에 친구가 몇이 있소?" 그랬더니 참의원에 친구 하나, 실업가 친구 하나, 대학교수 친구 하나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안하지만, 당신 내 방에서 나가 주시오" 합니다. "내가 알기로 한 사람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친구라는 말은 없고 세 친구가 있다고 하니 나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시오"라고 했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과 말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이 변치 않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데 변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친구인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친구 하나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만 예수를 친구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친구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것을 주는 것보다도 예수를 소개해서 그들도 예수를 친구로 삼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도 성공한 사람이요, 그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 직업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와서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따 먹지 말라는 금단의 과실을 따 먹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축복을 거두시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일을 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셨고, 공생애 전 서른 살까지는 목수로 집 지으러 다니면서, 노동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천막을 치고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목수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바울 사도는 천막 짓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운동선수 아스마흐 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분명 빵을 속여 뺐거나, 훔치거나, 구걸하는 방법으로 얻겠다는 것이오. 이 밖의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길이 없기 때문이오.”

미국의 저명한 목사 에드워드 카펠 목사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직업이 꼭 필요하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엇인가 집중하여 바쁘게 되는 것을 좋아한다. 만약 어떤 보람 있는 직업에 이바지하지 않는 자는 무엇인가 악한 것을 잡게 되어, 게으름이 재앙의 어머니라는 말이 참말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노동의 신성, 가치, 의미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고 먹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노동을 싫어하고 부를 상속하도록 자식을 가르친다면 조만간에 모든 악에 쓰여 그 독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그 형벌로 정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에드워드 카펠 목사는 말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악마는 만족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유혹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김경선 씨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만족하는 자는 성공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업을 갖되 정당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에

생산적인, 건설적인, 창조적인, 보탬이 되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말라기 1장 13절을 보면,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안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당한 직업으로 일해서 번 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정당치 않으면 안 받으십니다. 구약에서 보면 몸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돈 번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 신자가 복권을 해서 백만 불을 탔습니다. 그 백만 불을 교회에 바쳤더니 당회에서 장시간 의논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돈 안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전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20년 전에 크렌셔 교회에 있을 때 서울에서 일류 대학 사범대학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와서 대학을 또 다녔습니다. 아주 똑똑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한국에 가서 예쁘지만 믿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례해 달라고 해서 제가 주례해 줬습니다. 옛날 한국 같았으면 주례 안 해줍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주례 안 해줍니다. 그러나 저는 군목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이민교회니까 주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결혼한 후부터 주일을 자꾸 거릅니다. 그러더니 한 달도 안 나옵니다. 전화하면 그전과 같이 달게 받지 않습니다. 그리 지나가다가 제가 일부러 저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다른 건 몰라도 눈치는 빠릅니다. 눈칫밥 먹고 사는 게 목사예요. '병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사람 형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동생이 죽었어요"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 봐요." "제 동생이 죽었어요." "어떡

하다가?" "주일날 가게 문 열러 가다가 사거리에서 차가 충돌해서 즉사했어요." "무슨 가게를 했는데?" "liquor 스토어를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의 장례식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사람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안 했더라면, liquor 스토어 안 했더라면 지금도 살아 있지 않겠는가.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여러분, LA에서 세탁소 하던 사람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말 많이 못 들었어요. 그저 제일 많이 맞아 죽는 게 liquor 스토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붙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가 대단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liquor 스토어 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당장 제가 없애라고는 안 합니다. 기도하셔서 이거 전환하시는 게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자손들에게 정말 이 직업이 떳떳한 직업이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직업이냐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업을 자식들이 대대로 물려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에 정일용 박사님이 국회의원 하더니만 그 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그다음에 조병욱 씨가 국회의원 하더니 그 아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김대중 씨가 국회의원을 하더니 그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곧 나올 겁니다. 100프로는 아니지만 90프로는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렇게 됩니다. 또 의사들도 보면 아버지가 치과의사를 하니까 그 아들도 치과의사이고, 김형석 교수님이 교수 하시니까 그 아들이 또 연세대에서 교수 하고 있어요. 직업이 대대로 물려가기 쉬운데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교포들 앞에서, 나의 조국에 정말 손상되지 않을 만한 떳떳한 직업을 택해야 합니다. 적게 받아도, 힘들게 받아도 건전한 직업, 직업을 잘 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길선 목사님이 한국에서 식당 보이를 했다면 미국에 아마 못 왔을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 미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도 시카고에 와서 유학하고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직업 선택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총각 처녀, 또 여러분들의 아들딸들, 손자들이 배우자 선택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선택 중에 배우자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자 잘못 선택해서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울고 불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지금도 배우자 잘못 택해서 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 "결혼은 만민에게 꽃이라. 그러나 해충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몽테뉴는 "아내는 남편의 배우자요, 정신적 벗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영국의 베이컨은 "젊었을 때는 남자의 친구요, 중년에는 남편의 의논의 대상자요, 노년에는 노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남자에게 기쁨이 두 번이 있다면, 결혼하는 첫날밤이 기쁨이고, 아내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가 두 번째 기쁨이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몹시도 아내가 속을 썩였던 모양이지요?

어제입니다. 〈한국일보〉를 보니까 미국에서 1년이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5만 쌍이라고 합니다. 참 놀랄 일입니다. 그중에 우리 한국 사람도 백인과 같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헤어지는 것은 괜찮다 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그들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서 정말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또 이혼하여 마음 아픈 식구들에게 더 마음이 아파 제가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들이 이혼하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이것이 참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택할 때는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랑 해야 합니다. 학벌보다도, 문벌보다도 신앙이 좋은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인물이 미남이 아니고 미녀가 아니어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건강한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꼭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치 않은 사람들과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가 비극을 가져옵니다. 도중에 하차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셋째는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어떨 때는 고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릇이 동그랗다면 물이 동그란 원형대로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격이 아주 과격한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도, 심지어 교회의 상당한 중직인데도 급할 때, 속상할 때는 옷을 벗고 "썅!" 하는 걸 보니 말입니다. 예수님도 "썅" 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 성격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매결혼보다 서로 몇 달, 몇 번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본의 아니게 신경을 건드려도 보고, 그럴 때 잘 참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성격 모난 사람, 그거 힘듭니다.

넷째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장래성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과거에 노동을 하면서 UCLA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UCLA에서 공부한 좋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부모들이 여기서 자리 잡고 잘살지만 그 청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모들은 그 사람이 지금은 혼자 자랐지만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졸업하고 사업을 하는데 잘합니다.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장래성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꼭 봐야 합니다. 특별하게 여자의 아버지, 어머니를 꼭 봐야 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는 그런 대로 살아가지만, 이 어머니라는 분이 못되면 대부분 헤어지더라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때문에 싸워 가지고 여자가 밤에 친정으로 가면 훌륭한 부모 같으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도 뭐 맞아서, 행복해서 사는 줄 아느냐? 그저 의무 때문에 살고, 자녀 때문에 살고, 체면 때문에 살고, 사회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살고…, 그렇게 맞춰 사는 거지, 노력하는 거지. 나가도 남자가 나가는 거지, 여자가 나가는 건 아니야. 들어가” 이래야 되는데, 못된 어머니는 “잘 왔다. 그 새끼 보니 싹이 노랗더라. 야 일찍이 그만둬라” 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들을 여럿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될 사람의 부모를 잘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를 보면 크게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혼하신 분은 이 다섯 가지에 비춰서 절대로 실망하지도 마시고, 후회하지도 마시고,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까 지금의 배우자가 피차에 나에게는 우주에서 둘도 없는 배필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선택할 때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놓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4. 종교 선택입니다.

리처드 돌킨스는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여행가가 여행을 다녀보니까 군함과 대포가 없는 나라는 봤지만 종교 없는 나라는 못 봤다고 했습니다. 15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은 신을 갖는다. 참 신 아니면 거짓 신 둘 중에 하나는 다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는 "참 신은 하나이지만 거짓 신은 수도 없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다음에 보니까 공허하고 빈 마음, 허전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넣어야 할 텐데 하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넣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넣고, 그러다 자살하고, 지금 소련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군인들이 마약 하고, 죽고, 그래서 소련 장군들 몇몇이 한국에 가서 한국 군목제를 보고 이를 소련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일하는 것은 강제로 집어 넣을 수 있지만 인간 본성의 종교심은 강제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미국의 교육가는 "오늘 종교는 인간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다. 종교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지역사회는 하나도 없다. 종교를 공격하는 원천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까닭이다. 민주주의가 전복된 곳에서는 자유로운 예배 정신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종교와 민주주의가 사라진 곳에서는 이성적인 거스르는 야만적 통념만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구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크게 일곱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신도, 유교,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중동

아랍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불교는 태국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신도는 일본 사람들이 믿습니다. 유교는 대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서유럽 사람들과 북미 사람들이 주로 믿습니다. 나무가 좋다는 건 열매를 봐야 압니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동 사람들, 인도 사람들, 태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보다 미국이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살고 있습니까? 월등히 잘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미국의 유명한 애국자 패트릭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재산을 내 가족들에게 처분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다. 만일 그들에게 신앙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일전 일 푼 주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부할 것이며, 그들에게 신앙이 없다면 내가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그들은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하느냐? 하루 양식을 주려거든 고기 한 마리를 주어라. 그러나 일생을 먹여 살리려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물질의 유산은 당대밖에 못 가고, 정신의 유산은 삼 대가 가고, 신앙의 유산은 천 대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했고,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으며, 시편 128편 1-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 평화의 축복, 재물의 축복, 자녀 성공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선택한 바도 있지만 아직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진로 선택, 배우자 선택, 직업 선택, 종교 선택 이 선택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족이 당대에 복을 받고, 여러분이 떠난다고 해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복된 후손들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

(행 1:1-18)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제가 가끔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무죄시대, 양심시대, 권세시대, 허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시대의 일곱 시대로 나누어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어 성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

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라고 합니다. 간구하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진정으로 구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2.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령은 하나이지만 그 속성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에 한 명의 신사가 있다면 이 신사는 한 명이지만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가장도 되고, 한국사람도 되고, 미국시민도 되고, 천국시민도 되고, 회사원도 될 수 있습니다. 속성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이지만 성령의 속성은 일곱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 요한복음 7장 38-39절에는 '물과 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 2절에는 '바람과 같은 성

령',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기름과 같은 성령',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인과 같은 성령', 욥기 33장 4절을 보면 '기운과 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불 같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아마 마리아 같은 분이겠죠.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물과 같은 성령은 죄를 맑게 씻어줍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몽골에서는 바람이 아주 세면 집도 날아가고 소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기름과 같은 성령은 부드럽게 합니다. 인과 같은 성령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기운과 같은 성령은 소생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불을 받으니 유럽이 광명해졌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웨슬리가 불을 받으니 영국이 암흑세계에서 광명을 찾았습니다. 19세기 무디가 불을 받으니 미국과 영국에 불을 다시 붙이고 빛을 발하게 한 것처럼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죄도 도말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얻고, 어두운 사회를 비출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한국엔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말하기는 두렵습니다만, 오늘 우리 신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가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과 한국이 교회는 많지만 점점 죄악에 빠지는 것은 불이 꺼진 까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개인 개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3.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외 없

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선 이 세 가지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열흘 동안 밤낮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 속에 들어가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시대적 배경, 상황을 잘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죽인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예루살렘에 원수의 폭탄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적 각오를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제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 한 학기를 앞두고 1949년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강원도 진부에 걸어서 가 엿새 동안 성경을 보고 찬송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끝에 한밤중에 방에서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석유를 들이붓고 불을 붙인 것마냥 불이 보였습니다. 불이 돌아가는 것처럼 눈을 떠도 불이고, 눈을 감아도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옷도, 살도 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뜨거웠고, 얼마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을 주셨고, 그 힘을 가지고 오늘까지 전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의 전쟁입니다. 야곱이 얍복강에서 기도할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기도할 때, 육과 더불어 마귀와의 처절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죄악의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생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국의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를 할 때,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모여 말씀을 듣다가 길선주 장로가 마지막에 자기 죄를 모든 이들 앞에서 눈물로 회개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모두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성령 충만을 받아 학교에서 오다가 거리에서 전도하고, 문에서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불이 한국 영토에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장대현교회에 불이 떨어진 날이 한국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패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에, 성령에 비추어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나 개인과 우리 교회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다시 한 번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데려다가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베드로가 말씀으로 가정집회를 인도할 때, 말씀을 듣다가 온 식구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영국의 웨슬리는 목사 아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실패했습니다. 좋아하던 여자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배에서 모라비안 교파들의 신학을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1785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파의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당시 암흑 사회였습니다. 도탄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영국을 건질 사람이 없다고 절망해 있을 때, 웨슬리가 성경을 가지고 홀리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을 건지고, 세계에 감리교를 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며,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19세기에 무디는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구둣방에서 심부름하는 어린 소년 무디는 교회의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그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부흥사를 하다가 장년 부흥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 19세기의 미국을 다시 새롭게 하고, 영국까지도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마지막 때 주신 성령의 약속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첫째,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34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물질주의, 자기중심적, 현세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 물질 중심이 변하여 신앙 중심, 자기중심이 변하여 모든 사람들 중심이 되었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몽골에 가는데, 일행 가운데 자기 집에서 옷들을 가지고 와 몽골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안 입는 것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나누어주는 자만의 기쁨이 있겠죠. 우리 한국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디모데전서 6장 7-10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을 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압니다. 이것이 산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열매를 맺었는가, 그 열매가 육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를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9가지를 다 못 맺어도 몇 가지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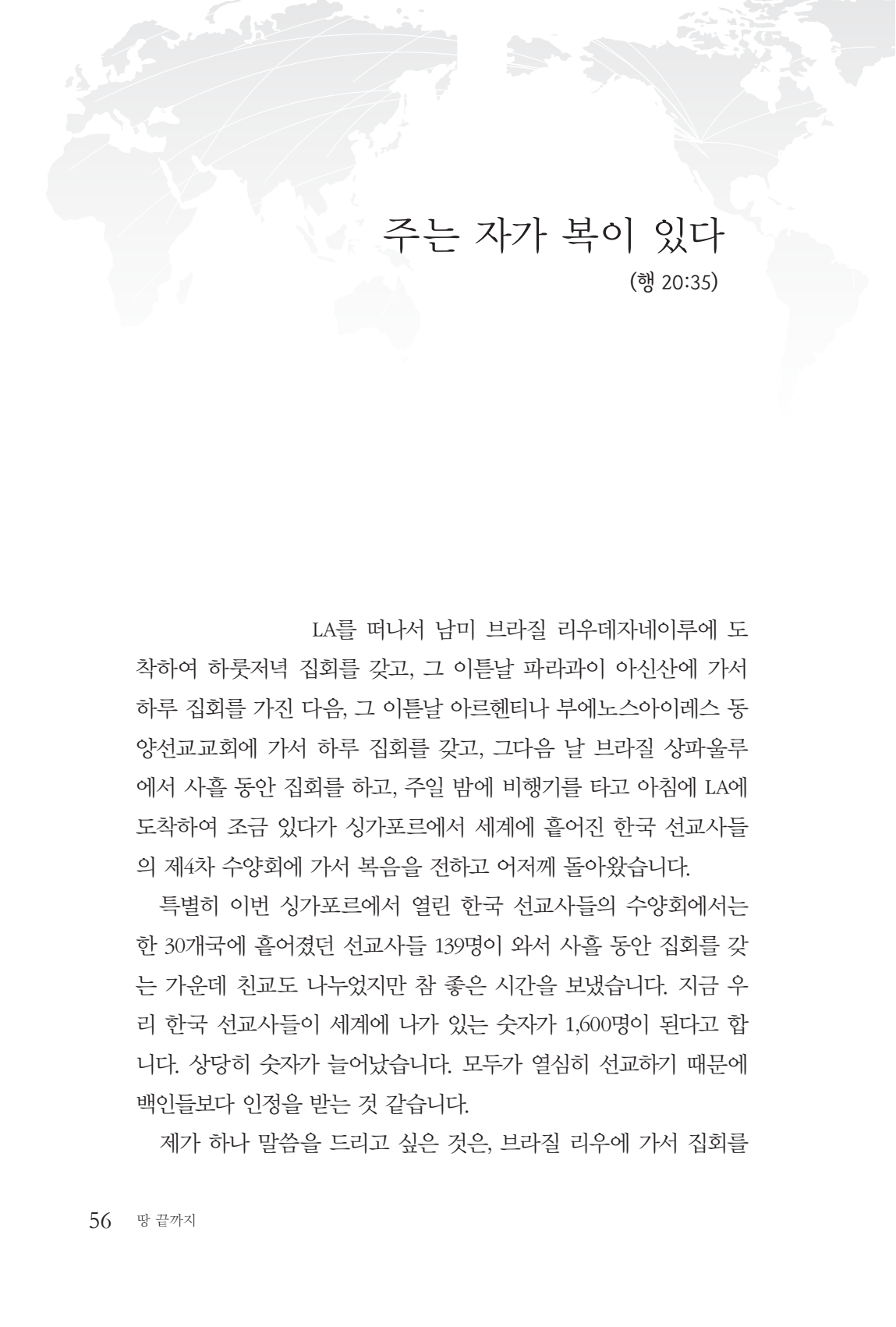
어떤 사람은 그런 열매가 아닌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을 보면 육체의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15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시기 바

랍니다. 내 생활, 인격을 비춰보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인격 속에, 생활 속에 비춰봐야 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제자가 된 것을 간증하고 다니라'고 한 것입니다. 육의 열매가 아직도 있다면 이번 기회에 성령을 받아 육의 열매를 다 불태워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병자 한 사람도 못 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한 번 외치니 3천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도 6·25때 김해 공병단에 가서 낮에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에 대해 한 시간 동안 설교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들라고 하니까 2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금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동참한 사람도 많지만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때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오는 강사님은 아주 훌륭한 강사입니다. 복음적이고 능력 있고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성공적인 집회를 인도하는 박재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회에 여기까지만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전도자가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이 천국까지 데려가는 합동작전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6-8절을 보면, 빌립 집사도 성령 받고 나니 사마리아 가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

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하루에 3만 명씩 교회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놀라운 부흥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 연합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은 토요일이니 철야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마음 준비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토요일에 설교 끝마치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거든 오늘 밤 철야합시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예배당 지하실에 가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자 기도하고 한밤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우는데 모두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일날 낮에 철야기도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얼굴들이 모두 기쁨으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전날 참석한 이들이 성령 체험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에게 찾아와 "목사님, 오늘밤도 철야기도 인도해 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쏟은 물은 다시 담기 어렵고,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고, 기회는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니 안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얼굴빛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 새것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이 붙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밤부터 22일 우리 교회 23주년 기념성회입니다. 이 성회는 각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

해서 집회를 열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 나와서 공부하고, 저녁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사흘 동안 하면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허락하신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행 20:35)

LA를 떠나서 남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하여 하룻저녁 집회를 갖고, 그 이튿날 파라과이 아신산에 가서 하루 집회를 가진 다음, 그 이튿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동양선교교회에 가서 하루 집회를 갖고, 그다음 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사흘 동안 집회를 하고, 주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LA에 도착하여 조금 있다가 싱가포르에서 세계에 흩어진 한국 선교사들의 제4차 수양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 선교사들의 수양회에서는 한 30개국에 흩어졌던 선교사들 139명이 와서 사흘 동안 집회를 갖는 가운데 친교도 나누었지만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 있는 숫자가 1,6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선교하기 때문에 백인들보다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브라질 리우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아침에 파라과이에 가는데 리우 공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27년 살면서 처음 이렇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 속에는 미국 시민증 축소판과 자동차 면허증, 신용카드들, 소셜 시크리티 넘버, 메디케어 증명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섭섭한 건 제가 결혼해서 첫아들을 낳아가지고 집사람과 함께 셋이 찍은 사진, 20대에 찍은 그 사진을 제가 여행 다니면서 날짜가 많이 남은 객지에서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겨우 위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섭섭합니다.

하지만 마침 여권을 다른 데다 놓고, 돈도 제가 떠날 때에 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준 것과 또 장로님과 몇 집사님들이 선교 여행 가서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것을 다른 데다 깊숙이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잃어버린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무엇보다도 그 여권을 잃어버렸으면 파라과이에도 못 가고 아르헨티나도 못 가고, 그날 못 가면 그날 스케줄이 다 와해가 되는데, 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 여행을 가시려면 꼭 여권 번호는 꼭 다른 데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권을 잃어버려도 대사관에 가서 말하면 임시로 여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적어놓고 다니시고, 영주권도 그렇고, 한국 여권도 꼭 적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귀중품은 웬만한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니면 꺼낼 수 없도록 아주 깊이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매치기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하여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리우는 알다시피 모두들 그곳에서 꼭 쉬어 갑니다. 휘발유 보고도 받고, 또 엔진 점검도 하고, 아주 관문이에요.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리우는 세계 미항 가운데 하나라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지금 끊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와서 그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참 몇 사람들 때문에 그 도시, 그 나라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한 구절을 가지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이사야 40장 "새 힘을 얻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남미를 순회해 보고 나서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남미에 투자한 것이 아주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제가 본문과 제목을 바꿔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받는 자가 복이 있지, 주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왜 복이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 가운데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진다, 울면 기쁨이 온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산다', '주면 받는다.'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세 가지 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왜 주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24-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남의 것을 받고, 빼앗는 사람이 윤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는 사람이 윤택해집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주면 아내가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 아내가 남편 사랑이 없다 없다 그러지만 남편을 사랑해 주면 그 사랑에 녹습니다. 동물도 자주 쓰다듬으면 좋아합니다. 참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 구제하라,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윤택하게 되고 풍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가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들도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걸 깊이 생각해 보셨죠? 일월성신, 태양빛, 공기, 물, 바다 물고기, 바람, 산나물, 동물, 심기만 하면 오곡백과가 나오는 땅, 그것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공로로 이것을 얻은 것입니까? 조건으로 얻은 겁니까, 대가로 얻은 겁니까? 그저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바울의 권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

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이 세상에 와서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결혼도 안 하고, 집 한 채 없이 살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어야 마땅합니다.

2. 무엇을 주는가?

첫째,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바깥에 한 앉은뱅이가 매일 들것에 들려 와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합니다. 돈 몇 푼, 빵 몇 조각, 입을 거 몇 개, 그저 1년 열두 달 앉은뱅이가 그 성전 미문 바깥에 앉아서 구걸하고 삽니다. 베드로가 한번은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전히 "적선하시오. 적선하시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앉은뱅이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와 같이 손을 내밀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달리 좀 더 깊은 관점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 요구하는구나. 한 푼 줘봤자 밑 빠진 독이지, 빵 한 조각 줘봤자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저 사람이 일어나야 하지 않는가. 일어나면 자기가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자신이 생활을 해결할 텐데. 저 사람이 근본 문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한 푼, 빵 한 조각만 요구하니 참으로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앉은뱅이에게 '나를 주목해 보라' 하더니 "나에게는 은이나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앉은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더니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근본 문제를 떠나서 시험문제를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서 자기의 영혼이 살면 육신도 윤택하고, 자립 생활도 하고, 더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것만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늦은 가을 잠자던 돼지가 옆에 새빨간 게 있어서 먹어보니 얼마나 달던지, 이게 주둥이가 터지도록 땅을 그저 후벼 팝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게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떨어진 건데 그걸 모릅니다. 오늘의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산다고 그랬는데, 굼벵이처럼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앉은뱅이가 이 지구촌에 40억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 마음에 들어가야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까? 마약 중독자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고, 부도덕한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끊어집니다.

삼천포에 사는 강 장로라는 분은 연세대학을 나온 의사인데 예수 안 믿을 적에 아편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의사인데도 이것을 못 끊고 있다가 예수 믿고서는 아편을 끊고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거저 치료해 주는 봉사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희랍

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예수 선생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희랍 아덴으로 말하자면 문학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이지만 이것 가지고는 인생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니 그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들의 철학이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이 관원이면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세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영적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지 물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우리 인간은 육신, 정신, 영혼 세 가지 합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육신은 육신의 양식인 정치, 경제, 과학, 밥, 떡, 술, 담배 이게 필요합니다. 정신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문학, 철학, 예술, 음악 이런 것이 정신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인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자살하고, 문인이 자살하고,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겐 이 영혼이 주체인데, 이것이 가장 값 있는 것인데,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것 아닙니까. 영혼이 들어오면 소생하는 거고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해도 하고, 모략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 아플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성경을 봅니다. 시편을 주욱 읽어봅니다. 잠언을 읽습니다. 전도서를 읽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어 가는 동안에 착잡하고 그런 모든 마음이 다 안개 사라지듯, 눈이 녹듯이 다 없어지고 그저 기쁨이, 그저 힘이 용솟음쳐 올라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습니다.

오늘 미국이 이렇게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청교도의 신앙이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모든 인류가 원하는 것은 경제문제가 아닙니다. 빵이 아닙니다. 근본문제는 복음입니다. 경제문제는 국제문제요, 국제문제는 인간문제, 인간문제는 윤리문제, 윤리문제는 교육문제, 교육문제는 종교문제, 종교문제는 복음문제입니다. 복음을 줘야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인류의 평화와 공존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물질을 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평안히 사시오, 가서 배부르게 사시오, 그러고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고픈 사람에겐 떡을 주어라, 입을 것 없는 사람에겐 입을 것을 주어라, 물질을 주어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크게 두 번 나타납니다. 벳새다 광야에서 한 번은

사천 명이, 한 번은 오천 명이 왔으되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하나님 앞에 축복해서 먹이시니 배부르게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예배당에 온 사람도 한 열흘 굶고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목사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 말씀이나 들으시오' 한다면 어떨까요? 열흘 굶고 온 사람은 성경을 말하기 전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도 먹이든가, 뷔페 식당에 데리고 가든가 해서 실컷 먹여 놓고, 배가 불러 말씀이 안 들어가는 한이 있다고 그래도 그다음에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결과에는 뒤를 조사해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저들이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저들이 생활이 변화됐습니다. 자기 집에 쓸 것만 남겨놓고 다른 건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는 전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와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신자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벌 떼같이 몰려들어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요새 한국교회 부흥은 가만히 보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좋아합니다. "나만 복 주십시오. 우리 집만 복 주십시오. 곱빼기로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니, 집이 몇 채가 된 권사라는 사람이 "이다음에 어디 분양 아파트를 짓는데 그거 저한테 꼭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천만 기독교인이 있다지만 한국이 이렇게 어둡게 되었어요. 부정부패가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 소금의 눈으로, 누군가 빛의 눈으로, 누군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누군가 십자가의 눈으

로 봐야 할 텐데, 신자들이 얼마나 돈들을 많이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투기 사업하면 자기도 투기해요. 신자, 불신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저렇게 된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인이 천만이라고 하지만 권위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한 것에 대해 용서하십시오. 젊은 목사들은 가끔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부자 자꾸 징계하지 마세요. 부자들이 안 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어떡합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부하지 않으니 인할 수가 없고, 인하지 않으니 부할 수가 없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진리입니다. 오직 어질게 살려 하니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로 살려니 어질게 살 수 없다, 이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 부자마냥 자가용 비행기가 몇 대, 요트가 몇 대, 별장이 세 개 있는 이런 사람이 부자이지, 요트 하나도 없는 우리가 무슨 부자이겠어요. 자가용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으세요. 이사야 58장 5-7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저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며칠 안 먹고, 얼굴도 씻지 않고, 머리도 안 감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금식을 기뻐하십니까?

>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사 58:6-7).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즉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금식만 하고 이런 걸 안 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나그네를 재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물질을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가보니까 우리가 도와준 지 4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벌써 2만 5천 불에 교회도 사고 사택도 하나 샀습니다. 거기 물가가 싸니까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지교회를 또 하나 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교회 신자들이 한 8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신자들이 구제품 갖다 나눠주고, 그리고 쌀농사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집사가 전라남북도보다 더 큰 농장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쌀을 갖다가 교회에 쌓아 놓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신자들 밥 해먹고, 그다음에 구역 식구들이 반찬을 해가지고 와서 교회 식당에서 먹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원주민들이 코리안 최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미국교회도 보면 큰 교회에는 조그마한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뭐 하는가 보면, 신자들이 1년 열두 달 그저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기 집에 남아도는 것, 새것 산 다음에 쓰던 것을 가져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회에서 준 양복을 입고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언제나 여러분이 집에서 '이런 건 누구 줘도 되겠다' 생각하여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몸을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35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돈 좀 벌어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내내 그저 산골짜기 내리막길입니다. 그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을 다 뺏겼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살려달라고 해도 그냥 가버리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 살려달라고 해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줍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속이라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여관방에 재우지도 않고 물 한 그릇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뛰어내려서는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닦아주고 싸매주고 나귀에 실어서 여관방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떠날 때 두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을 좀 돌아봐달라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자기가 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몸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왜 그냥 갔습니까?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제사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쓰러진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 직업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니까 바리새 교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양이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의사, 간호사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못 오더라도 제가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병원에서 당직이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와서 삐삐 받고 가면 더 좋지만요. 이 제사장은 결국은 자기 직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다음에 레위 사람은 종교가인데, 이 사람은 왜 그냥 갔습니까? 이것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무사주의, 도피주의입니다. 보니까 금방 강도를 당한 것 같고, 강도가 멀리 안 갔으면 자기도 저렇게 당할까봐 도망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초월적 사람입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이해를 초월하여 그 사람을 태워다가 밤새도록 간호해 주고 돈까지 맡깁니다. 이게 몸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름철 정자나무 밑에서 어떤 한센병 환자가 엎드려서 온몸을 긁는데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장로님이 지나가기에 여기 좀 긁어달라니까 문둥병자라서 부스럼이 있고 진물이 나오니까 장로님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영수님한테도 좀 긁어달라고 하니까 영수님도 그냥 도망갔어요. 젊은 집사가 가다 보니까 문둥이이고 부스럼과 진물과 피고름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더 큰 사랑이 없다는데…' 하면서 믿음으로 눈을 감고 "주여, 주여" 하고 긁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하는데 깜짝 놀라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툭 때리시면서 "착하고 귀한 종이다"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줘야 합니다. 사랑의 극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홍성호 선교사 내외는 몸을 준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한 달에서 근 만 불을 받을 사람인데, 둘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인데 천 불 받고 지금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몸을 준 사

람입니다.

한국에서 해방 직후 가을철에 시골에서 어떤 어머니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 옷을 해가지고, 떡이랑 엿과 반찬을 좀 해서 갖다 주려고 서울에 왔습니다. 전차를 타고 청파동 채 못 와서 내리는데 그만 보따리를 놓고 내린 것입니다. "보따리!" 하고 외쳐도 전차는 떠납니다. 전차가 보따리 때문에 섭니까? 그때 청년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그걸 봅니다. "왜 그러세요?" 그 얘길 다 했더니 "그 보따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색깔은 어떻고, 그 안에는 뭐가 들었고… 다 얘기해 줍니다. "여기 꼭 계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말고…" 계속 전차를 따라가다 보니 저 동대문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이 그 보따리를 가지고 내립니다. 보따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아래위를 훑어보더니 말합니다. "이거 당신 보따리요?" "그럼 이거 당신 보따리요?" "그럼 여기에 뭐 들었소?" "옷하고, 엿하고, 떡하고." 그러니까 그냥 줬습니다.

청년이 그 보따리를 받아 가져와서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면서 "그럼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주소하고 이름 하나만 적어주세요. 우리 아들놈이랑 한번 인사하고 가세요." "아니, 그런 건 필요없습니다." 그래도 좀 써달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적어 줬습니다. 아들을 만나 엿을 먹이다가 그 어머니가 "얘, 하마터면 너 그 엿 못 먹을 뻔했다" 하면서 누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해서 "야, 그 선생님 주소하고 이름을 내가 받았으니 한번 가서 인사해라" 하고 줬는데, 아들이 이렇게 펴보니까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뿐이에요. That's all! 이게 몸을 준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네팔이라는 무슬림 국가에 가서 선교하는 처녀인데, 인물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처녀 선교사를 보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또 나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젊은 내외인데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디서 선교하십니까?" "태국에서 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태국에서 오면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합니까?" 그랬더니 "태국 거리에 흩어져 있는 문둥이를 전부 모아다가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선교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잠깐 오시라고 해서 조용히 백 불 한 장 드리면서 적지만 내외분이 식사를 한번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몸으로 주는 사람들입니다.

3. 주면 어떤 복을 받는가?

첫째, 기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좋은 양복 드리는 것, 그것이 물론 사랑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미국에 강연하러 왔더니 그 강연을 듣고 감명받은 치과의사가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평소에 존경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미국 오신 기념으로 선생

님 이가 많이 빠졌는데 제가 무료로 의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인도에 가서 이 빠진 사람들 다 고쳐주신 다음에 남으면 나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안 했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나의 이름으로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마 21:40)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남미에 갈 때 우리 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천 불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남미 선교회가 혹 필요할지 모르니까 가져가서 써달라고 천 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리우에 가니까 그 젊은 목사 내외가 고생을 해요. 그래서 돈을 조금 줬습니다. 또 파라과이에 가니까 목사가 딸 하나를 유학 보내고 두 내외가 열심히 결사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세계선교대회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여비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셔야죠" 하고 천 불을 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여비를 주시네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비행기 값만 내면 용돈이 없을 것 같아서 또 하나를 꺼내서 주려고 하니까 "오, 그만하세요. 이거면 됩니다. 빈대도 낯이 있지요." 그래도 이분들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원주민촌에 큰 학교를 세운 것이 있는데 거기 기술학교, 신학교,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신학교 학감이 칠레 원주민인데 제가 백 불을 드렸더니 신학교 학생들이 이번 겨울학교 학기를 마치면 파티를 해서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는데 이 백 불을 받으니 너무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쓰고도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또 십 불짜리 두 장을 주면서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라고 했더니 저를 끌어안고서는 “그라시아스, 무쵸스 그라시아스!” 하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호텔이 아니라 목사님 댁에 데리고 가기에 ‘그래,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기쁨으로 가서 자면서 사모님 불러서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앉았다 일어났는데 와드득 하고 화장실이 부서지지 않아요? 그래서 눌렀더니 물이 막 나오는데,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기에 이렇게 화장실 무너진단 말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오늘 부서진 게 아닙니다. ‘아, 돈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구나.’ 제가 화장실 고치라고 돈을 줬어요.

그리고 빌립보 원주민 교회 가서 또 하나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내가 요거는 아껴야겠다. 그리고 브라질 교회 가면 부자니까 주지 말아야지, 그래야 홍콩까지 갈 테니까’ 그래서 브라질 가서는 헌금만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봉투를 하나 주는데, 제 생각엔 ‘이삼백 불 주겠지’ 했는데, 비행기 타서 궁금해서 세어보니 열 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아마 거의 마른 줄 알고, 하나님이 보충해 주는 것으로 알고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콩 가서 또 태국서 온 사람 주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버스 타려고 비행장 나가는데 거기서 또 사례금을 줘요.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꽤 됐어요.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고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에게 제가 어디 갈 때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렇게 말했는데 가져오는 사람은 받습니다. 내 재산 만드는 게 아니

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제 생활은 이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교대회 갔는데 선교사 내외가 "목사님, 제가 필리핀 선교사인데, 동양선교교회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동양선교교회에서 매달 후원을 받는다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I'm so happy! 여러분이 헌금한 것으로 제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면 기쁨이 있습니다.

둘째,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모셔다가 대접을 했더니 그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백 살이고, 네 아내가 아흔아홉 살인데 아들이 없구나. 내년 이맘때면 아들 하나가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부엌에 있던 사라가 비웃기를 '내 남편이 백 살이고, 내가 아흔아홉 살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 하고 웃었더니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하시고 진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열세 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잡아서 나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하시니, 즉석으로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칼을 멈춰라.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양이 하나 걸린 거, 그거 갖다가 바쳐라."

제가 이것을 가지고 며칠을 기도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백 살에 아들을 얻은 체험 신앙이 없었더라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 살에 주신 하나님이 내가 바치면 또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곧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해야 합니다. 제가 로간에 가면 대학생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요 몇 달 전에 제가 갔는데 그 대학생들 가운데 총각도 있지만 결혼한 가정에서 점심 초대하고, 저녁 초대하고 그래요. 가보니까 조그마한 곳에 젊은 내외가 살면서 방에 들어가도 별로 가구도 없는데, 그래도 그 학생들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제가 식사를 하는 집마다 나올 때 그 부인을 저리 오라고 해서 주머니에서 백 불 하나 주면서 식구들끼리 식사 한번 하든가 책 한 권 사라고 했습니다. "아휴…목사님…이러지 마세요" 하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받으라고 하면서 줍니다. 아마 이다음에 제가 가면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들이 차려 놓은 건 20불이나 30불어치밖에 못 돼요. 그런데 백 불씩 받았으니 세 배 장사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을 대접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였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체험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셋째,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가꾸지 아니하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미에 선교 시작한 지가 10년 되었습니다. 뉴욕 교회는 8년 됐는데 교회도 샀지요, 주택도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 살 때 그거 도와준 겁니다. 또 파라과이에도 우리가 많이는 안 도왔지만 계속 매달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건물 살 때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파울로 교회만 안 도와주고 있어요. 상파울로 교회는 10년 되었는데 얼마나 교회당을 아름답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육관도 4층으로 지었습니다.

남미의 이민교회는 최고입니다. 원주민 교회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거기서 한글을 500명이 가르칩니다. 아마존에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도 짓습니다. 또 우리가 남미 도와준 교회를 여러 나라에 많

이 세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고, '10년 동안 헌금한 것으로 보냈더니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혔는가!' 감격했습니다. 특별히 남미에서 온 임상룡 전도사 내외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7월달에 안수 받습니다. 또 황은철 전도사 내외가 브라질 동양선교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면서 풀러 신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사가 된다면 원주민 성경학교 신학교에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고,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고,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곡식을 띄우면 얼마 후에 그것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남미만 돕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도 하는데, 이제 남은 곳은 시베리아 중국 공산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것이 10년 동안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아무쪼록 계속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몸을 주어서 여러분 살아생전에도 열매를 따고, 후손들이 따고, 주 앞에 서는 날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며 충성, 희생,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서야만 했습니다

(창 3:15)

오늘은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류에게 최고의 기쁨을 안겨 준 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된 일도, 실수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서 오신 남자 선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서로 이름을 교환할 때 나는 아무개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영어로 자신의 이름을 '미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처녀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몇만 낳고 아이를 그만 낳으려고 했는데 나를 'miss' 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스'라고 불렀습니다. 내 이름은 '미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오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의 계획과 예정대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장차 여인의 몸에서 한 아이가 나서 인류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린양의 비유로 예수님을 예표하였고, 레위기에서는 아사셀 양의 비유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불뱀을 장대 꼭대기에 매달아서 그처럼 예수님이 달리실 것을 예언했고, 신명기에는 위대한 선지자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 39권을 통해 예언되어 있으며,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쁘고 뜻깊은 성탄절에 "예수님은 나셔야만 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나셔야만 했습니다. 날아다니다가 잡혀 두 마리당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너무 중요하게 강조한 나머지, 참된 안식일의 정신을 망각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참 주인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나셔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일신 종교가 자기들만의 독점적인 종교로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나셔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수많은 율법과 계명 준수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에 매여 있는 피곤한 인생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휴식을 주시기 위해 나셔야만 했습니다. 항상 이웃들 속에 파

묻혀 살아가면서도 참 이웃에 대해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참 이웃이 누구인가를 바로 가르쳐주시기 위해 나셔야만 했습니다. 참 종교는 경전과 신조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들은 진선미의 이상적 국가를 막연하게 동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막연한 바람이나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서 복종시켜야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피조물이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개나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나셔야만 했습니다.

진리는 총과 칼과 말굽으로 지킬 수가 없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나셨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받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는 것이 참된 얻음이라는 기독교의 황금률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 역사의 완성은 폭력이나 강제나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이고도 설득적인 방법으로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나셔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폭력이나 고문이나 형벌을 가지고는 인간 마음속에 있는 강한 진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나셔야만 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일시적 죽음일 뿐이요, 결국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란 화려하고 평탄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험난하며 고독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나셔야만 했습니다. 진리는 박해를 받고 죽임 당하는 것

으로 말살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살아나고 발전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궁극적 목적은 대립과 경쟁과 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와 평화 실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나셨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위해 이해타산적으로 사는 것이 영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운명에만 기댄 인생,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셔야만 했습니다.

현대인은 세 가지 절망을 느낍니다. 죽음에서 오는 절망, 질병으로 인한 절망, 고독에서 비롯된 절망입니다. 죽음에서 오는 절망은 영혼의 존재와 부활, 내세의 실존을 믿을 때 믿음으로 극복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절망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질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독이란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 지식과 출세와 돈과 권력과 향락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바로 살 때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칠십, 팔십으로 끝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그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셔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은 왕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의 뼈로 성을 쌓지 않은 나라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왕의 면류관을 씌우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주님은 나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예수님의 성탄일이 만약 없었다면 나 개인과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동물적인 생활을 면할 수 없었겠지. 내 배를 하나님으로 알았겠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알았겠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급급하며 사는 세속적인 생활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겠지'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기독교가 이 땅에 없었다면 오늘날 인간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세상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을지라도 시대마다 야수 같은 마음을 지닌 지도자들이 서로를 죽이다가 인류가 몇이나 남게 되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오늘날의 문화가 이만큼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라는 3대 증명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곳을 보면 '메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 용어가 똑같이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특히 유대 역사에서는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언자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하여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잠시 후 성가대가 "메시아"를 찬양할 때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론으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첫째, 그분은 영원하신 자존자요, 창조자요, 권능자요, 예배를 받으시는 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자요,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분은 일반 자연계의 제한된 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만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정복하신 것을 보면 그분이야말로 정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상의 그 어떤 왕보다 더 신령한 왕, 고차원적인 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6-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은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사실만 봐도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어떤 세상의 왕이 아닌 진리의 세계의 왕입니다. 섬김의 세계의 왕입니다. 사랑의 세계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인간과 세상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저도 예수 믿지 않던 젊었을 때는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명예를 누리고 돈을 벌어 편안한 삶을 살려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내 삶의 목적이요, 나의 철학이요, 나의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다리를 놓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구교에서는 신부들의 제사장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전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만인제사장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지성소 휘장이 다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구약 율법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잡한 통과의례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누구든지 지성소 법궤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탄절은 해방의 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정치적인, 경제적인 해방입니까? 그런 것보다 좀 더 뜻 깊은 해방입니다. 죄와 공포로부터의 해방, 미신으로부터의 해방, 인권유린으로부터의 해방, 그릇된 제도와 의식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평신도 활동을 크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다리를 놔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예언의 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신학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교사로서 활동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모

세의 율법을 해석했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했고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날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셨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장차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선지자보다 지혜가 뛰어나십니다. 그분은 모든 선지자보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선지자보다 거룩하고 완전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시며 죄와 회개를, 그리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신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을 다시 바꿔주시고, 또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대를 바로 보고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살다가 죽으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세계적인 명절이 된 것은 소리 없는 기독교 문명의 승리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이 현대화되기 이전에 기독교 문명이 먼저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 이전에 애굽 문화, 잉카 문화, 헬라 문화, 페르시아 문화, 로마 문화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화는 기독교 문화로 말미암아 흡수되고 융화되고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주후 4세기에는 대로마제국이 복음과 기독교 문화에 정복당했습니다. 저 중남미의 잉카 문화는 스페인으로 들어갔던 복음으로 인해 정복당했습니다. 칼과 도끼를 휘두르던 북구의 바이킹은 기독교의 복음에 용해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18세기에 복음의 기초 위

에 건설된 나라입니다. 극동지역에는 17세기에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 문화가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는 영국을 통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 병원, 학교가 있고,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아프리카에서도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류 문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관과 척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온갖 규범과 법정신의 근저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자연법과 사상의 근본이요, 민주주의 원리의 근간에는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각종 무기는 비상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먹, 돌, 화살, 창이었던 전쟁 무기들이 지금은 비행기, 탱크, 잠수함, 원자탄, 수소탄, 미사일, 중성자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기는 가공할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합니다. 이 모든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문명을 잿더미로 만들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2천 년 동안 문맹 퇴치, 여권 존중, 아동 보호, 민주주의 사상 발전, 죄수에 대한 인권 개선, 해양 생태계 보호, 의료사업, 교육사업, 구제사업, 영혼 구원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찬란한 문화의 탑을 쌓아올린 기독교의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무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무기는 사랑의 무기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 피를 흘리기까지 하는 사랑의 정신이 기독교의 무기입니다. 이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오늘의 찬란한 문화를 세웠고, 인류에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어서 이 지상에 나타난 날, 곧

성탄절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사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그 끝에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는데 곧 갈보리 언덕에서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원수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소크라테스는 사람과 같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과학, 더 많은 무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사랑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날에 주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눈물의 골짜기요, 땀의 용암이요, 피가 끓는 땅이요, 죽음의 바다요, 사막과 같은 황량한 이 땅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요 12:24-26)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저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또 볼품도 없습니다. 무게도 나가지 않습니다. 값어치도 없는 하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알 속에는 훌륭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종종 역설적인 교훈을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아지면 높아진다', '말석에 앉으면 상석으로 올라간다',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 '죽으면 산다' 등과 같은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은 살기 위해 삽니다. 살려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려면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죽으면 산다'는 이 교훈은 죽은 후에야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36절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나서야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44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밀알 하나를 통해 죽음에서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이 결실한다는 뚜렷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 죽어야 다시 살게 되며, 생명의 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굼벵이가 죽어야 매미가 됩니다. 매미가 되면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장벽도, 제한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구더기도 더러운 곳에서는 그냥 구더기이지만 껍데기를 벗으면 파리가 됩니다. 장구벌레는 모기가 됩니다. 누에가 죽으면 나비가 됩니다. 이와 같이 밀알 하

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밀알 하나가 어떤 그릇 위에 그냥 놓여 있거나 어떤 선반 위에 올려져 있다면, 창고에 그냥 있다면 백 년이 지나도, 천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 문드러질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결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백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 보좌에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육체는 땅 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 몸은 썩었습니다. 그 후에, 싹이 난 것처럼 무덤에서 나와 열하나의 열매를 맺었고, 계속해서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하였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고, 또 자기를 비우셨고,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 속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만물에게 경배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미천한 이 땅에 내려와 짓밟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자들의 삶은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생활, 신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속에 들어가 자신을 보이지 않으려 하기보단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썩어지려고 하기보단 썩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교회,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말석에 앉는 것이 상석에 앉는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는지 잘 아시죠? 이사야 14장 9-15절, 에스겔 28장 14-17절,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마귀는 원래 천사 중에서 으뜸인 천사장 루시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이 되려고 올라가다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여인의 복중에서 아홉 달 반 동안 기다리셨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으며, 짓밟히셨고 무덤 속에 들어가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못해서 안수집사직을 안 주는 것인가?' '나에게는 왜 장로직을 주지 않지?'

엊그제 영락교회 김계용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들이 저한테 유학 좀 다녀오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조그만 교회에 가면 장로를 금방 주기 때문에 장로직을 받고 오겠다는 말이에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입니다. 사람들은 목사, 회장만 되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협회 회장을 했지만 돈을 쓴 일이 없습니다. 봉사직이니 그냥 맡아서 했을 뿐, 어떤 대접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은 한국 워커힐 호텔에서 "미국 LA에서 오신 아무개 회장님, 방송실로 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방송을 한 사람이 아무개 회장이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모두 높아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낮아지라고 말하는데, 땅에 떨어지라고 하는데, 짓밟히고, 땅속에 들어가 썩어 문드러지라고 하는데 모두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남을 밟으려 하고 모든 생색과 체면은 다 차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날마나 쳐서 교만, 명예욕, 권력욕 등을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육신이 살면 영혼이 죽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십자가가 빛나지 않으니, 나는 날마다 육신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날마다 품습니다.

"나는 날마다, 매시간마다, 매초마다 죽노라."

그런데 잘 죽어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집니다.

이번에 오렌지카운티에서 어떤 친구가 여자관계 때문에 총을 쏴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자신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너무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나 죽으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죽지 못한 까닭에 살인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시간마다 죽어야 합니다. 분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싫은 소리 할 때 '내가 죽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편안해요. 예전에 제가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상남 목사님이 제직훈련을 시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여자를 무엇으로 지은 줄 아십니까? 남자가 잘 때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여자가 쿡쿡 찌르걸랑 창조의 원리라 생각하시고 그냥 죽으세요."

'내가 질쏘냐! 내가 남잔데! 아무리 그래도 너보다 힘이 더 센데!' 하면 그 집에서 축복이 떠나는 겁니다. 그저 '죽자! 죽자! 죽자!' 시간마다 '죽자!' '오, 주여!' 그러면 삽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이 그냥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생명의 부활이 온다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2. 죽은 후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교훈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깜깜하고 좁은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썩지 아니하셨더라면, 부활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우리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배드리러 올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썩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이 세상에 와서 옷 두 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시장하게 지내셨습니까? 단칸방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여윳돈 하나 없었습니다.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마지막 피 흘려 죽고 나서 누울 자리도 없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희생하신 분입니다. 희생!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희생해야 승리가 있고, 희생해서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승리도, 결실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열하나의 열매가 맺히고 120, 3천, 5천, 만, 100만, 15억이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희생을 각오하라는 말씀입니다. 면류관을 받으려면 먼저 가시관을 써야 합니다. 부활하려면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보좌에 오르려면 무덤에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승리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개신교가 심한 핍박을 받던 시절, 조셉 버틀러 감독이 화형터로 끌려가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여, 두려워 말라. 우리는 오늘과 내일 영국에서 영원히 끌 수 없는 촛불에 불을 붙이러 가노라.”

순교자의 피는 교회 발전의 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불의와 악마와 맞서 싸워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 왔고, 교회가 발전한 것입니다.

4천 년 동안 흑암에 처해 있던 한국 땅에 186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군함 제너럴셔먼 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와서 평양 성문 밖에서 전도했습니다. 무지한 한국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 그는 죽어가면서까지 성경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죽은 최초의 선교사가 전한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천만이라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음악가, 저술가, 교수, 의사, 목사였던 슈바이처는 24세 나이에 일찍이 칸트의 종교철학으로 박사가 되었고,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또 성 니콜라스 교회의 목사로 시무하면서 〈역사적 예수〉라는 논문으로 신학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세라는 약관의 나이에 신학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음악계와 신학계에 혜성과 같이 등장하였습니다. 그가 하루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읽다가 회개하였습니다. 부자는 흑인들의 피를 빨아서 잘 사는 백인들과 같고, 나사로는 백인에게 당하는 흑인과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백인의 죄를 자신이 속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30세에 그는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봉사하기 위해 좋은 직업, 명예, 편한 삶을 청산한 후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40세에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집을 짓고 병원도 지었습니다. 흑인들, 나병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낼 수 없는 그들에게 자립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나무와 같은 대가를 지

불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할 때 슈바이처를 공부했습니다. 〈슈바이처의 생의 외경〉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5년 전 가서 보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는 자신이 손수 지은 오두막에서, 손수 만든 나무 침대에서, 그 딱딱한 곳에서 5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슈바이처가 죽은 후 그의 삶을 존경하고, 그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돈 많은 실업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내서 슈바이처 기념사업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많은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교대로 그곳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 비록 그분들이 지은 병원과 병동은 하찮아 보였지만 많은 나병환자들과 원주민들을 치료하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슈바이처는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형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형님도 그때 신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형수님은 전도사였고요. 40년 전에 형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릉에서 순교하셨던 우리 형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일본에 한 외교관이 있었는데 상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크리스천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참 좋았지만 문제는 전처 아들의 성격이 아주 못돼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재혼한 것을 놓고 따지고 대들었다고 합니다. 쉽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새어머니의 나이가 아들보다 한두 살 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반항하고 구박하였습

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상을 차려주었는데 아들이 밥상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서 화를 내며 엎었습니다. 새어머니의 얼굴에 그릇을 던져서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였고, 아들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새어머니는 얼굴에 반창고를 붙였고 돌아온 남편이 아내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마침 전처의 아들도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오늘 나가다가 미끄러져서 얼굴이 찢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못된 아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는 새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고, 또한 그 사도 바울의 순교는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3. 섬김 후에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도우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섭섭하게 하면 무의식중에라도 과거의 열 번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로부

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섭섭한 것은 바위에다 새기는구나."

미국에 와서 고생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시민권을 따서 보니 한국에 있는 친인척이 맘에 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초청합시다" 해서 비행기 표를 보내주고, 영주권도 신청해 주었습니다. 집도, 차도 다 해줬는데 더 안 해준다고 불평합니다. 괜히 미국에 데려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는 좋은 경우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고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값진 300냥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가치가 있습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섬김만이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6km, 십 리 반을 가면 여리고 가는 길가, 감람산 남동쪽에 한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너무나도 유명한 동네입니다. 관광객이라면 거기는 꼭 한 번쯤은 가게 됩니다. 그

집은 바로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의 집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집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핍박을 피해 고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사 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요즘과 같은 대접은 아니었겠지만 음식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네 군데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렇게 네 군데에서 그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섬김을 통해 귀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우리 성가대원들이 훗날 하늘나라 가게 되면 정말 많은 상급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힘겨운 이민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이들은 더 많은 시간을 바칩니다. 금요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두세 시간 연습합니다. 주일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일찍 와서 연습합니다. 성가를 잘 부르시니 저도 설교하는 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몸과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희생하니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닐까요?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250명입니다. 한글학교 교사들은 50명입

니다. 계수위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밥을 싸가지고 와서 일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각 분야에서 다들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우리 교회에 5,000명이 모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을 핑계로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찔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 간호사와 같이 특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도 예외입니다. 그러나 여유도 있고, 자리도 잡은 사람들 가운데 취미생활에만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봉사도 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함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었기 때문입니다. 미합중국도 이렇게 편안한 나라가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땅에서 썩은 밀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들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예수님을 본받아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땅속에 묻히고 썩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썩고, 교회에서 썩고, 사회에서 썩어서 승리하고 많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후 40일

(행 1:1-8)

지난 9일 우리 교회가 파송한 독일과 이탈리아 네 명의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있는 목회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25일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설교 후 광고 시간에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 후 40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왜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괴로움 많은 세상, 원수들이 들끓는 세상에 왜 40일 동안이나 머물러 계셨는가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요 자신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한시라도 빨리 가시지 아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그곳에 40일 동안 왜 계속 머무셔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확증시키기 위해 40일간 머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불신앙의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주의 주재자가 있다는 표시이며,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맡은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시험하신 것이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타락은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타락이요, 전 인류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 된 우리 역시 그들의 불신앙의 마음과 타락할 때의 그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종종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도 열 가지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의 차이점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육지를 걷듯이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위에 나타나 그들을 비춰 주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의 앞을 인도해 주었으며, 배고플 적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렸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고, 언제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봤던고' 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가나

안 땅을 바라보기보다 애굽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고생을 참지 못하고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신앙적이었고, 지도자의 말에도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까마귀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 있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3장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떡을 떼어주실 때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며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좀 더 차원 높은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에는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세계를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고자 하느냐?" 하실 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며 자신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6)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죽기까지 함께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도 믿지 못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정성껏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

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이까?”라고 물으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로마제국에서 해방시켜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자기들은 장관 자리 하나 얻겠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가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것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온 구세주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의 주가 된다’는 것을 똑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손바닥의 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직접 만져보라. 내가 정말 죽음을 이겼고, 마귀의 세력을 이겼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그 믿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땅에 더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열한 번을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 날 새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주일 날 아침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무덤에 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9절, 주일 날 아침에 길가에서 두 여인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12절, 걸어서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네 번째, 누가복음 24장 15절, 주일 날 저녁에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글로바와 누가에게 보이셨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 주일 날 어두웠을 때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도마를 제외한 열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20장 26절, 그로부터 여드레 후, 예루살렘 다락방에 도마가 있을 때에 열한 제자에게 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21장 1절, 디베랴 호수에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여덟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 갈릴리 산에서 열한 사도에게 나타나 보이셨으며, 고린도전서 15장 6절, 갈릴리에서 오백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사도행전 1장 9절, 승천할 때에 감람산에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만 보여서는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 보고도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두 번을 봤는데도 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처럼 저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까지, 확증되기까지 계속해서 일깨워주시기 위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다.

2. 선교의 사명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40일 동안 땅 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려고? 아픈 사람 고쳐주려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려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4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모태에서부터 죄를 안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인들이 죄를 먹고 마시다 심판받아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멸망 받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타락으로 멸망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다.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의가 왔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왔다.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삶이 왔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율법에서, 악한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죽음에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살고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33년만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류 구속사업을 영속적으로 이어받아서 할 사람들을 불러 교육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열두 제자들입니다.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70명을 불러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시키고 내보내셨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병자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였고, 영혼 하나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0-22절에서 부활하시자마자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 죽임을 당할까봐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정말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너희들이 전도 못한다.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

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허락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과 새로운 용기와 결심과 맹세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개의 마음이요, 작심삼일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아 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일어나서 옛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묵혀 두었던 배와 그물을 끄집어내어 수리한 다음에 3년 전 그곳, 그 자리로 썩어질 고기나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사람을 낚으라고 하셨건만 사람은 낚지 않고 물고기나 낚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올라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 만났던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맹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헌신짝같이 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짓고 숨었던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을 배반하고 그 맹세도 내팽개치고 썩어질 고기나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구워 놓은 고기

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참 먹고 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했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예수님은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왜 세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까지 했었지만 결국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 만났지만 또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믿음직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영혼을 건지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 성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난 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 다섯 남편이 있었고 현재도 법적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건지신 후에 제자들이 떡을 가져다 잡수시라고 하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혼을 건졌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마음이 만족하며 기쁘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돈 많이 버는 데 기쁨이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면 기쁨이 있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탄다고 기쁨이 있습니까? 오히려 불안하지요. 하지만 헌 차 타고 다니면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까짓것 박아봐야 몇 푼 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누가 긋지는 않을까?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라디오 떼어 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오시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

니다. 우리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껏 지니고 다녀야 누가 와도 겁나지 않지, 잔뜩 가지고 걸으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신부, 목사라 할지라도 전부 도둑놈같이 생각됩니다. 저는 현금이 별로 없으니 다행이지만 만일 현금이 많아서 침대 밑에도 감춰두고 냉장고에도 감춰두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들어와 가져갈 것만 같은 불안감에 늘 시달릴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성공에 있지 아니합니다. 야곱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한 영혼 건지는 그것이 골프 치는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만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고기 먹어봐야 죽을 텐데, 언젠가는 죽을 텐데, 천국 갈 사람이 그것만 잡고 있겠느냐? 너는 구원받았겠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 죽어도 한 세상, 저래 죽어도 한 세상이다. 믿고 죽으면 천당이지만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텐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 유언이요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또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하고 있으며,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다섯 가지를 해야 합니다. 먼저, 모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다음에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장작도 모여야만 불이 붙어요. 모이는 데에서 힘이 생겨요. 우리 동양선교교회는, 주일 날 2부 예배는 그래도 꽤 나오는데 금요일에는 별로 잘 안 나와요. 부득이하게 사정 있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다음에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훈련을 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의 인격을 배워서 생활이 모범이 되어야 해요. 그다음 마지막에 전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전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동만 가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행동으로 왔다 갔다만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아나요? 십자가가 뭔지 아나요? 말로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롬 10:10). 이처럼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40일간 머물면서 애타게 외치신 것입니다.

3.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라고 면류관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면류관을 차 버리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셨고, 승천하심으로 인간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저주받은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다. 눈물의 골짜기만이 아니다. 피로 물든 땅만이 아니다. 저주받은 죽음의 바다만이 아니다.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올라가는 이 나라가, 내가 왔던 그곳이 장차 너희들이 가게 될 영혼의 본향이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영원한 산 소망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는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그들이 보는데 올리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신경에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

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거짓말이 있다면 성경도, 기독교도 벌써 없어진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천지는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살아 계신 몸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못 자국이 있는 몸, 지정의가 모두 있는 몸, 감각이 있고 시장하여 음식을 잡수시던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는 네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가신 것임을 말합니다.

제가 유럽에 갔다가 다시 온 것은 여기가 제가 있을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향은 두 곳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은 우리 모두 다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아버지 나라,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둘째, 구속사업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육

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의 완성, 사명의 완성, 구속사업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셋째, 영원한 거처의 준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먼저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이 먼저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가족들을 가서 데려오기도 했고, 또 비행기표 보내서 친척들을 오게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영광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영광의 나라에서 혼자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을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의 완성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 갔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백발이 되어 양로원에 계셨는데 제가 집회를 인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어요. 저를 만나 손을 꼭 붙잡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또 만나서 반가워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반가운데, 제가 이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식구들을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영광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영원히 붙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석양의 무덤을 향하여 소망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빛나는 세계의 영원한 영광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못했고,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비겁하기 짝이 없었지만 부활과 승천을 똑바로 보고 나서부터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전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과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어둠 속으로, 답답한 곳으로, 절망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이 준비하신 빛나는 나라로 들어가는 새 출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과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을 열심으로 전도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자

(마 28:19-20)

교회 존립의 의미는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 존립의 의미와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교회는 네 가지 부흥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합니다. 개인 부흥, 교회 부흥, 확장 부흥(지교회 설립), 제3세계 선교,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할 때만이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교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아직까지 성숙한 신앙에 도달한 신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교하자"라는 주제 아래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선교의 성서적 기초입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하느냐, 성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성서적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교의 구약적 기초입니다.

구약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전체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 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 왕의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너 모세는 가서 그들을 끄집어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 내라는 선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외치면서 만약 너희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재를 무릅쓰고 회개함으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에서도 벌써 하나님의 이방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전도자를 보내서 니느웨 영혼 12만을 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선교의 복음적 기초입니다.

사복음서를 말합니다. 사복음서의 선교하라는 말씀들이 선교의 기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48절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선교의 기초가 되는, 선교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선교의 사도행전적 기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선교에 대하여 쓴 것입니다.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를 기록한 것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소아시아와 온 유럽 선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역사의 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바울 사역적 기초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우리도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8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13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럽 첫 땅인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성문 밖 강가에서 여자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루디아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아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져서 그 복음이 돌고 돌아 한국까지 왔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를 끝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먼 이방사람에게로 가서 전도하라. 네가 잡혀서 로마에 간다고 하더라도 너는 죄를 지어서 재판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전도를 위해서 가는 것이니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의 기초는 구약에도 말을 했고, 사복음서에도 말을 했고, 사도행전에도 말을 했고, 바울의 선교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됨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 선교를 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보편적인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잃은 자녀를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탕자는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의 사료 쥐엄열매를 먹고 고생하면서 아버지 집 생각이 나서 두 손 들고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옵니다. 남루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황급히 뛰어가서는 입을 맞추고 껴안고, 집 안에 데려다가 누더기를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옷으로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들판에 나갔다 돌아온 큰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아버지께 불평을 합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에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 나를 잔치해 주지 아니하더니 저 방탕한 놈이 나가서 집안 망신 시키고 돌아오니 송아지를 잡고 잔치해 주십니까?"

그때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찾았으므로 내가 기뻐하노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위해서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속담에도 "중매 세 번만 잘하면 천당 가고 잘못하면 따귀 석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일 세 번 하면 천당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 건진 사람이라면 더 확실히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제일 오래 살기를 애쓰는 사람이 전부 다 환갑 넘은 사람, 진갑 넘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환갑진갑 넘은 사람들은 띠도 잘 외우고 그저 뭐 좋다 그러면 새 떼같이 몰려가고 열심히 운동하고 야단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당신도, 나도 갑니다. 인간의 가치는 육체, 고깃덩이, 흙덩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생명 영혼, 그것이 값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육체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 그 정신, 영혼, 인격, 생활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넷째,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

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고민 속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 나라의 여호와로 믿는 백성은 복된 것입니다.

다섯째, 인류를 위해서는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태평양전쟁이 끝나자 미국의 저명한 인사가 "만약 미국이 일본에 신실한 선교사 1,000명만 보냈더라면 태평양전쟁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구 씨가 해방되자 서울에 돌아와서 "경찰서 10개 짓기 전에 예배당 하나 지어라"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더라면 오늘 저런 고문이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죽기 전에 "오늘 이 세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려면 무기를 더 만들어야 합니까? 학교만 자꾸 지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해서 모든 사람 마음속을 개조하는 인간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사랑, 봉사, 희생의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잃은 아들딸들을 찾게 하는 것이고, 자신에게는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는

것이고, 나라는 잘살게 하는 것이고, 세계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기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선교의 방법입니다.

첫째, 기도로써 선교합니다.

창세기 18장 22-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소돔 성이 죄가 많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성에 의인 50사람이 있다면 악인들로 인해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45명, 30명, 10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없어서 망한 것처럼 소돔 성에도 의인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기도가 조카 롯과 롯의 두 딸을 구원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금식하고 안수하여 보낸다, 이것 보세요. 금식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여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정성껏 보내주시는 선교헌금도 감사하지만 교회에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실 때 힘이 백 배나 더 납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사를 바침으로 선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세째는 교사요 그다음은 능력이요 그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선교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잘 못합니다. 이번에 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몰아 주시면 교만해집니다. 은사는 다 각각입니다. 몸의 지체는 다 각각입니다. 그러나 한 군데에 붙어 있습니다. 다 서로 연락을 해야 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셋째, 자신을 헌신함으로 선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시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어부들이 그대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결단,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정 값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드려 선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

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재물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화장품도 안 사고 최대한 절약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16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예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다닐 때 빌립보 교회는 여러 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젊은 청년을 통하여 의복을 보냈을 것입니다. 먹을 음식도 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돈도 보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물질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30억이라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선교사를 직접, 간접으로 보내서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따지지 마시고 다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어린 소년의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지구촌 구석구석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교회 성장의 바른 자세

(행 2:43-47)

작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내 집을 채워라”였고, 금년도 표어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나무가 살았다면 계속 자라납니다. 어린아이가 살았다면 계속 육체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신앙도 자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혼란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죄수가 감옥마다 가득했지만 반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면 축첩제도가 사라지고, 도박이 사라지고, 미신이 사라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감옥이 비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우연하게 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원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에 “교회 성장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

고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신령한 교훈을 피차에 나누려고 합니다.

1. 교회가 성장하려면 물질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업이라는 것은 먼저 예산을 생각해야 합니다. 재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정반대입니다. 돈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보다 앞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 산 믿음, 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큰 성과를 거둡니다.

가든 그루브에 있는 슐러 목사님의 드라이브 인 처치는 한쪽에서는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27년 전에 젊은 슐러 목사님이 신학교를 마치고 4년 동안 시카고에서 목회한 후에 이 서부 쪽으로 옮겨 보려고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애기를 데리고 500불 현금을 가지고 왔으나 교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고 영화를 보는 극장을 빌려 낮에 예배를 시작해서 50대 자동차를 모아 놓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에서 돈을 빌려 이 배후에 땅 2에어커를 사서 집을 지은 다음에 양쪽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사서 교회를 짓자고 한 후 기도한 끝에 10에이커를 6만 6천 불에 사기로 했습니다. 25년 전에 그것을 사려 할 때 19,000불은 다운을 하는데 천 불은 보증금으로 걸고 넉 달 동안 18,000불을 내고 나머지는 400불씩 15년 동안 갚기로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더 있다가 사자고 하면서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사자는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돈 천 불을 계약금으로 주고 넉 달 동안 18,000불을 장만하는데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금용일이 되었는데 12시까지

15,000불이 장만되고 3,000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데서는 다 빌렸습니다. 신자들의 주머니도 다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5년 전이면 아주 옛날입니다. 이제 보증금 1,000불만 떼였구나 싶었습니다. 1,000불을 떼인 것보다도 이 10에이커 땅을 사면 앞으로 교회가 부흥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돈을 장만하러 다니다가 밖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알렌 그레이스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합니다. "그분도 이제는 돈이 없잖아." "그래도 전화를 해봐요." 그분은 거기서 20마일 떨어진 목장을 소유한 늙은 할머니인데 병으로 말미암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이 땅 사는 데 이천 불을 헌금했었습니다.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할머니인데 사모님이 그분에게 한 번 더 전화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전화해 봐야 뻔한 일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기도하고서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립니다. 전화가 울리니까 간호사가 받는데 그 할머니 좀 바꿔 달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전화를 받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마음은 좀 떨리고 슬프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 전에 할머니가 땅 사라고 주셨던 2천 불을 다시 돌려드리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니, 왜 다시 돌려 보내줘요?" "돈이 모자라서 그 땅을 못 사게 되었기 때문에 돈을 다시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그 땅은 사야만 합니다. 내가 돈 좀 더 낼 게 있습니다. 은행

에 내가 돈이 3천 불 더 있는데 거기 은행에 가서 좀 기다리시오. 내가 지금 가서 그거 찾아드릴 테니까" 하는 게 아닙니까. 3천 불이 모자라는데 그 할머니가 한 시간 만에 은행에 와서는 3천 불을 주어서 마감 한 시간 전에 18,000불을 주고 10에이커를 6만 6천 불에 샀습니다.

돈보다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믿음이 결국 오늘의 그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는 기초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에 교회 부흥 성장은 숫자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산 믿음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2.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성장의 이유, 성장해야 할 목적을 알아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프랑스 군대가 전쟁 목적을 알 때에는 강한 군대이지만 전쟁의 목적을 모를 때에는 가장 약하다고 말한 것처럼, 왜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가 그 의미를 알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나성에 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300개라고도 하고 가정에서 모이는 것까지 세면 400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작든 크든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으면 선교 못합니다. 교육도 못합니다. 봉사도 못합니다. 그저 한 사람 생활비나 댈까 하는 호구지책밖에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

명이 큰데 그 거룩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많은 성도를 보내주시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어려운 농어촌 도시 교회 120여 개를 돕고 있고, 일본과 독일과 중동에 선교사를 임명할 수도 있고, 인도에 교회도 세우고, 나성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신체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또 한글학교를 통해 교육을 합니다. 주일학교도 부흥회를 합니다. 중등부도 고등부도 대학부도 해마다 부흥회를 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성에 있는 많은 다른 청소년들과 불신자 청소년들에게 교육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동차 한두 대에 위문품을 싣고 국경을 넘어 멕시코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철수라든지 김 교수님 등 어려운 문제를 위하여 천 불씩 바칠 수 있는 봉사를 통해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결단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국내 국외 선교, 봉사, 교육을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해야만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교회 성장의 둘째 비결입니다.

3. 교회가 성장하려면 한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가 움직일 때에 교회가 성장합니다. 나 하나의 존재가 교회 부흥발전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각자가 인식할 때에 교회는 성장합니다. 손님 교회가 아닙니다. 구경꾼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만 채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해서 나는 뺄 수 없는 존재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교회가 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3절과 8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

절을 보면 교회를 몸으로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몸으로 보면서 머리는 그리스도요, 손과 팔과 귀와 발과 이 오장육부의 모든 지체는 우리 각 기관이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몸의 교회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머리카락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손톱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손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 전체에 여러 가지 각기 지체가 있지만 하나로 연결될 때에 비로소 불구자가 아니고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서로가 나만이 중요하다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픕니다. 어느 하나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결국 그 생명은 정지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면, 만약에 귀가 듣지 않는다면, 만약에 발이 안 걸어준다면, 만약에 음식을 손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입이 그걸 씹어주지 않는다면, 목이 넘겨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모든 지체 전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필요한 분입니다. 이 몸에는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하나는 직분이 있든 없든, 먼저 믿었든 처음 나왔든 교회 부흥 성장에 절대불가결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하나가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 소질, 특질, 그 장점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봉사할 때에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파르타의 500용사가 그렇게도 애국심이 강하고 사상이 건전하고 용감한 군인들이지만 한 사람이 협력하지 아니하고 배신을 할 때 499명이 전멸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 안의 포위당한 스파르타 용사 중 한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지하 비밀 뚜껑 문을 열고 적진에 가서는 항복해서 빵 한 조각만 달라고, 저 성안에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조국과 499명 전우를 팔아서 결국은 그 한 사람 때문에 499명의 전우가 다 죽었다는 얘기는 한 사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시카고의 대화재는 한 사람이 담뱃불 하나 주의하지 못해서 온 시카고가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국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네덜란드는 바다를 막아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했는데 한 아이가 제방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제방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자꾸 새는 겁니다. 그냥 두면 결국 많은 물이 들어와 많은 사람이 죽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주먹으로 틀어막아 수많은 생명을 건지고 아이는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게 됩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주보만 들고 가고,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나그네 신자, 손님 신자, 구경꾼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교회 주인이다, 이건 내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 신체의 어떤 하나인데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몸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나 하나가 교회 부흥 발전에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각자가 느끼고 동참하여 역사할 때 교회는 부흥됩니다.

4. 교회가 성장하려면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31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 둘 있는데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니까 알겠다고 그래 놓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얼마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나. 내가 가서 일을 해야지. 그래야 나도 먹고 아버지도 잡수시지. 사람이 일을 해야지.' 그리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더 훌륭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형보다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가서 일을 한 동생이 더 훌륭하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지 말고, 그저 호언장담하지 말고, 청산유수로 그저 미사여구로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여기 나와서 하는 기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당회장님을 중심으로 당회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과 공회 앞에 기도했으면 정말 당회장 중심으로 움직여 줘야 합니다. 말을 해놓고 다른 길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가 구역예배 드릴 때에 기도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모든 간사님들도 그 피교육자들에게 말로 가르쳤으면 자기가 먼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성가대원들도 "거룩거룩" 하고 찬양했으면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대 피우면서, 그저 적당히 마시면서 거룩거룩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었다면 지키려고 노

력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부흥됩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 교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했습니까? 얼마나 옷을 거룩하게 입고 다녔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믿는 사람답게 실천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칭찬받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학교에서 못된 짓을 해보십시오. 예배당 가자고 해도 '쟤 때문에 안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시간 가는 것만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그저 돈만 자꾸 계산하지 말고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임금도 올라가고 보직도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같이 되어야지.' '이 다음주에는 저 사람이 다니는 동양선교교회도 좀 가야겠다.' 이러고 교회가 부흥되지만 남의 회사 가서 일하면서 요령만 부리고 그저 얌체놀이만 하면 '아이고, 나는 예배당 안 나가지만 네까짓 것보다 낫다' 그럽니다. 교회는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욕먹고, 기독교 욕먹고, 하나님 욕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소처럼 묵묵히 충성하고 실천하는 이것이 네 번째로 필요합니다.

5. 교회가 성장하려면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교회냐, 적어도 알곡이 모여야 교회지." 저도 이 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도 훌륭하고 양적으로도 많아야 합

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사람들을 무시 못합니다. 공산주의이지만 그 사람들 무시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10억이 넘습니다. 세계인구의 1/4이에요. 장사를 해도 그 사람들과 친해야만 나라 경제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거, 이거 무시 못합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운동선수도 꽤 나옵니다. 인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여기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용서하세요. 집사님이 1년 반 동안 등록을 안 하고 다녔어요. 1년 반 후에 등록을 하면서 "제가 1년 반 동안 등록도 안 하고 뒤에 앉아서 예배 본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물었더니 어떤 조그만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 교회가 작아서 중립에 설 수가 없더랍니다. 이쪽에 붙으려니 저기서 욕하고, 저쪽에 붙으려니 여기서 욕하고, 그렇다고 중간에 있자니 서로 저쪽인 줄 알고 이쪽인 줄 알고, "아, 그래서 제가 큰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작은 배 타니까 멀미가 나고 큰 배 타니까 멀미가 안 납니다" 하고 등록했다고 말합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인적 자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재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기술 가진 사람, 저런 기술 가진 사람, 인재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막아내기도 쉽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요. 저 뒤의 땅이 8만 불인데 사가지고 앞으로 뭐 합시다. 그래서 양적 부흥도 필요한 것이고, 또 질적 부흥도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당장 전도를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기르셨어요. 3년 동안 가르치고, 3년 동안 모든 기사 이적을 보게 하고,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에서는 요새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간 장로님을 데려다 그저 목사가 마음대로 안수 줬다는데, 그건 어딘지 모르게 비성서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장로님에게 안수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일도 하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안수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의과대학 문턱에도 못 가고 누가 의사 자격증 하나 줘가지고 청진기 하나 끼고는 주삿바늘 가지고 들이대면 NO, NO, NO! 그건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의사가 공부 안 하고 청진기 끼고 주삿바늘로 찌르면 육신의 생명 숱하게 죽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 노릇 하려고 해도 모든 순서를 밟아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가지고 목사 노릇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배우고, 심방하는 것도 배우고, 수양회도 갑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양적으로 질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같이 일인 백당의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안일한 생활보다 위대한 꿈을 위해서 고난에 맞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됨을 거역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을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욱 귀중히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 애굽의 임금이 되었을 겁니다. 아

주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최상으로 누렸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잠깐 육신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그 애굽 궁정에서 나와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사막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얼마나 실감이 나고 위대해 보입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저 방 하나 얻어 어머니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둘이서 아들딸 낳아서 재미있게 살면 되지 하고서는 대학 안 가고, 부모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결혼합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좋은 직장 가질 수 없지요, 승진도 못하지요, 수입도 적지요. 어린애라도 태어나면 살림이 쪼들리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싸움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좀 보류하더라도 대학을 나와야겠다, 학위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한 달에 3천 불, 4천 불, 5천 불 수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육신의 향락보다도, 즐거움, 만족보다도 꿈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슐러 목사가 땅 10에이커를 사서 거기다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천 명 들어앉고 바깥에서 자동차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좋은 십자가를 하늘 꼭대기에 달고, 아주 높이 분수를 하려니까 몇몇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로 결정하려니까 제일 먼저 사표를 내고 다른 교회로 간 사람이 그 이사회 부이사입니다. 그리고 회계가 갔습니다. 그리고 서기도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비서도 전화로 이런 환경에서는 “목사님, 나 일 못해요” 하고 갔습니다.

그때 슐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내 일생에서 그때보다 더 외롭게 느낀 적이 없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일러 대학교의 버틀러 박사가

"일이 어렵게 되더라도 움직이지 말라, 사람과 압력은 변해도 대지는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했지요.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관에 붙어 있던 "이기는 자는 그만두는 법이 없고, 그만둔 자가 이기는 법이 없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고 기도하면서 오늘 27년 전 500불 가지고 출발한 교회가 지금은 수정교회까지 지어서 전부 재산이 얼마인가 하면 2억 달러입니다. 2억 몇 배입니까? 슐러 목사가 '200명 교회 지었으니 그저 여기서 살면 되지, 뭐 고생할 거 있나? 했다면 오늘도 그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 아픈 것을 당했지만 밀고 나갈 때 결국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고난에 맞서고자 하는 네덜란드 국민과 이 미국 조상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바다와 싸우고 습지와 싸우고 황무지와 싸우고 사막과 싸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7. 지난날의 업적보다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14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일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미 취하였다 함도 아니요, 아직까지도 푯대를 향하여 달음박질한다, 쉬지 않고 뛴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찬란한 업적보다 오늘부터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약혼하기 전,

결혼하기 전 그때가 참 좋다고 그럽디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다고 해요. 그때는 그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면 절대로 다투지도 않고, 절대로 별거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해요. 목사도 성공하려면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임하면 그 목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더 동남아시아에도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작년보다 큰 계획이 있습니다. 새롭게 계획을 하고 새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부흥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잘되는 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움직일 때에도 필요해요. 우리가 나라를 부흥하려는 데도 앞서 말씀드린 일곱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질보다도 믿음이 왜 부흥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각자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말보다 실천, 양과 질 병행의 성장, 그다음에 안일보다도 꿈을 위해서 희생과 고생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우리 민족 교포사회, 동양선교교회가 크게 부흥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더 많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일곱 가지를 가지고 가정과 회사와 교포사회 민족 교회를 부흥시키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자

(행 11:19-21)

본문에 나타난 수리아 안디옥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첫째는 로마였고, 둘째가 알렉산드리아였으며,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24킬로미터 떨어진 오론테스 강(Orontes River) 하구에 위치한 도시로서, 로마의 보화와 희랍의 탐미주의와 동양의 사치가 혼합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동방의 여왕이라고도 일컬어지고 화려함의 극치라고 찬양을 받던 도시였으며,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인, 아프리카인까지 섞여 사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마차 경기로 유명했고, 도박장과 술집과 무도회장이 즐비했으며, 매음과 강도와 살인과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죄악의 도시에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란 말이 네 가지가 붙게 됩니다. 이방교회로서 최초 교회요, 국제적 교회로

도 최초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린 최초 교회요,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선교의 의미, 선교확장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성도님들과 더불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선교의 의미

선교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자면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증인이 되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이 선교입니다. 즉 다시 바꾸어 말하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 새사람 되게 해서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봉사에 이바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도 물론 귀합니다. 학벌도 귀합니다. 우리의 동산, 부동산 모두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요 학벌이요, 동산과 부동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재물이 많아 곳간을 늘려 짓겠다고 하지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밤에 제가 조의를 표하러 갔습니다. 시신은 장의사에 있고 사모님의 사진이 양쪽 화분 사이에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날 보고 "임 목사

님! 영혼이 떠나니 5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아내도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일 땅속에 파묻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도 영혼이 같이 붙어 있을 때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영혼이 떠나면 10대 독자라도 내버리게 마련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서로 사랑해서 떨어질 수 없었던 남편도 이젠 떨어져야 하고, 우리를 낳아서 길러 가르치느라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부모님도 영혼 떠나면 무덤 속에 파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영혼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노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선교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물의 영장답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그 영혼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인류 앞에 닥쳐서 나날이 많은 고민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경제문제, 핵문제, 이념문제 등이 현대사회의 주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경제적 공황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사업장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된 과학, 물질과 문명은 인간을 대량학살이라는 위협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념적인 투쟁으로 세계도처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문제도, 핵문제도, 이념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문제입니다. 인

간문제는 윤리문제, 종교문제 등과 직결되고, 종교문제는 결국 복음으로 귀결됩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새사람 되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리고 모든 국경과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요, 참으로 귀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 선교 확장의 의미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선교 확장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간적인 확장이요, 둘째는 민족적인 확장이요, 셋째는 수량적인 확장이요, 넷째는 심층적인 확장, 질적인 확장입니다.

첫째, 공간적인 확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므로 기독교가 처음으로 탄생했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모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120문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됨으로 유대 땅에서는 머무를 수가 없어서 동서 사방 피난길로 흩어진 신자들이 베니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신자가 생기고 안

디옥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것은 공간적인 확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방의 안디옥 땅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공간적인 확장입니다. 복음의 영역을 이와 같이 넓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웃 사람에게 전도하고, 우리 집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웃집에도 전도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해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의 과제이며, 이것이 교회의 공간적인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926 S. 아이롤로에 있는 작은집 리빙룸에서 장년 15명과 학생 아이들 15명 모두 서른 명이 모여서 시작한 동양선교교회는 그 시작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조그만 한 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시아로 뻗쳤습니다. 저 남미로도 뻗쳐갔습니다. 저 유럽으로도 뻗쳐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간적인 확장을 어느 정도 했지만 아직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땅은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이 오대양 육대주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선교의 공간적 확대를 이뤄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둘째, 민족적인 확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니까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과거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 구레네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에 와

서 헬라인들에게도 전도함으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민족, 문화, 종교를 초월한 민족적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듯이 복음은 유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국경을 넘어 헬라인과 이방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민족적인 선교의 확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한인교회이지만 지금은 일본 사람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독일 사람에게도, 이태리 사람에게도, 브라질 사람에게도, 인도 사람에게도, 태국 사람에게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나와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야 할 것이고, 직접 가지 않더라도 각종 문서와 전파 등으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선교 확장의 두 번째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수량적인 확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데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 믿는 무리가 더 많아지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량적인 확장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으로만 만족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열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숫자를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120명이 되었습니다. 120명이 3천이 되었습니다. 5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10억이라는 숫

자를 기독교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많은 수의 국가들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일찍이 초대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불교 국가 버마에 들어가서 7년을 선교했지만 겨우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헌신적으로 선교사업을 펼쳐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7천 명이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량적으로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1885년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한국 선교를 나왔을 때 사과씨 하나를 가지고 대구에 와서 대구 땅에 심어 놓은 것이 오늘날 대구를 사과의 고장으로 만들었고, 동양선교교회도 11년 전에는 30명으로 출발했지만 오늘날에는 등록교인 3,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머지않은 날에 5천이 되고, 만 명의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 안에 인재가 있게 마련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서로 협력하여 무엇이나 달성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수량적인 확장입니다.

넷째, 심층적인 확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이다', '저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위상입니다.

그렇다면 '심층적 확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적인 확장'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간적인 확장, 민족적인 확장, 수량적인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실 있는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면 오합지졸밖에 더 되겠습니까? 마치 밀가루 속에 물이 들어가서 그 밀가루를 섞이게 하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새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러줄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 심층적인 확장입니다.

3. 선교 확장의 방법

이제 확장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간적인 확장과 민족적인 확장과 수량적인 확장과 심층적인 확장을 이룩할 수가 있느냐는 방법론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단점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너무 자기를 노출하는 것도 바보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 목사가 바보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저에게 자동차를 한 4-5년 전에 사 줬는데 저는 한 번

도 그 워셔액을 쭉쭉쭉 뿌려가며 와이퍼로 닦는 것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했지만 그다지 쓸 필요도 없고, 눈도 오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주유소에서 한 사람이 "앞 유리창이 더러우니 워셔액도 가끔 뿌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게 고장이 났나 봅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바늘 가지고 뚫으면 되지요" 하더니 그 사람이 제 차에 타서 와이퍼를 작동시키니까 워셔액이 쭉쭉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바보야. 흑흑흑' 그랬습니다. 물이 쭉쭉 나오는 그걸 5년 동안 안 썼어요. "목사님, 그걸 안 쓰면 고무가 타든지 금방 망가집니다. 이거 쭉쭉 뿌리시고 가끔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옆에 태우고 가면서 계속 쭉쭉 뿌려대니까 옆에서 아내가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해"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뜻이 있더라도 방법을 모르면 그 뜻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데는 지능도 좋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방법을 모르면 죽도록 고생해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장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 통계를 보니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환난을 통한 선교 확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환난을 통해서 선교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편안해야 잘되는데 우리 기독교의 선교라는 것은 환난, 핍박, 역경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전도하였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없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자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아직도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은데 내가 이대로 죽어선 안 되겠다. 좀 더 살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장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환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교회의 양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대원군 시절에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6·25전쟁 때 많은 전화(戰禍)를 겪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 이와 같이 많은 교회가 양적으로 많은 숫자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기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불경기가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모든 것이 배급제가 되었고, 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늘어날 때 제일 장사 잘된 곳은 두 군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학교입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도 아이들은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의무교육은 무상이니까 아이들을 다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은 그때도 실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잘 지냈습니다.

둘째는 교회입니다. 불경기가 되고 파산이 속출하고 실업자가 늘어날 때, 이 사람들이 돈이 있었으면 그저 차나 사고 골프나 치고 낚

시나 가고 술이나 먹고 춤이나 출 텐데, 돈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교회로 몰려오는데 어찌나 교회가 부흥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곳곳에 실업자는 많지만 목사는 실업자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고통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점점 잘되지 실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평신도를 통한 선교 확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했다는 말도, 요한이 전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안수도 받지 못한 무명의 평신도들이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 확장에서 평신도들의 힘이 지극히 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천 년 동안 초대교회, 로마제국 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시대 교회, 미국교회가 이만큼 자라난 것은 그때그때마다 평신도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천 년 역사에 이와 같은 금자탑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전도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에티오피아로 가서 기독교를 뿌리 내리게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평신도였습니다. 또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는 신학교 문턱도 안 갔고 안수도 안 받았던, 남자도 아닌 여자 평신도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 세워져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로마로 되돌아간 성도들 또는 로마로 이주하거나 노예로 잡혀갔던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보니까 독일에 한인교회가 50여 개 있는데 그 교회들은 대부분 간호사들이나 유학생들이 세운 것입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보니까 음악을 배우러 온 학생들이 로마 한인교회를 세웠습니다. 밀라노에 가보니까 한국에서 온 상사 주재원들이 밀라노 한인교회를 세웠습니다. 마드리드에 가보니까 마이애미에서 미 공군하고 결혼한 한국 여자가 스페인에 와서 한인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선교 확장에 있어서 목사님들도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들도 교회를 세우지만 무명의 평신도들이 교회 설립과 확장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사례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벳새다 광야에서 무명의 어린 소년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이런 이적을 나타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가 확장됩니다.

셋째, 물심양면의 후원을 통한 선교 확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한 후에 전도할 수 있는 여비도 주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처음으로 보낸 물심양면의 후원이었습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마음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5시에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선교 한번 갔다 오겠다고 해서 보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자녀

들이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여비를 장만해 드리고 물질을 후원해 드리고, 떠나신 후에는 그들이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훌륭한 자녀들이고 훌륭한 부모이다.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식하고 배후에서 기도해 준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가서 두 달, 일본에 가서 보름 동안 여러 교회를 날마다 쉬지 않고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설교를 하고 왔을 때 목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아픈 데도 없었습니다. 돌아와서는 대학생 집회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시간표를 짜놓고 낮에는 낮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밤에는 야근하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교 확장의 배후에는 금식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기도의 용사들과 또한 물질로 후원해 주는 손길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도 어떤 분은 한 달에 1불을 냅니다. 어떤 분은 3불 냅니다. 어떤 분은 10불 냅니다. 그것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착취해 와서 자기 나라를 부하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점점 더 쇠하여 가지만 선교하는 나라 미국은 아직까지도 세계에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해가 되는 것보다도 갈릴리 호수와 같이 신진대사가 활발한 그런 나라가, 교회가, 개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심양면으로 하는 후원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가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헌금을 어떤 분은 5불,

어떤 분은 10불, 어떤 분은 30불, 50불 내고 계시는데 아직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한 달에 꼭 5불씩만 해보세요. 5불씩. 그저 내가 선교사님 점심 한 끼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그 5불도 없거든 하루만 굶어보세요. 그러면 위장병도 낫고 머리도 아주 깨끗해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몸도 가뿐하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그저 하루만 금식하면 5불 됩니다. 하루 안 먹고 선교사님 선교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해도 한 달에 30불입니다.

30불 가지면,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달을 다섯 식구가 너끈히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그 돈 5불, 10불, 30불이 선교사 가족을 한 달을 먹이고,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헌금만 냅니까? 내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그동안 성경퀴즈대회에서도 일등하고 체육대회에서도 일등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동양선교교회는 오늘부터 이민교회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선교에 앞장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손을 통한 선교 확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려 하고, 또 평신도들이 물심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남침을 하기 전에 소련, 중국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팔도강산 다 우리 것을 만들겠습니다. 붉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소련에 부산항을 주겠습니다. 중국에다 뭐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약속하고 주일 날 아침에 3분 안에 내려왔고 부산만 남았을 때에 다 건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 하고서는 만세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맥아더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인천 아래의 남쪽에 있는 공산당, 그 개미떼 다 올려서 한 번 집어 던져라 하시니 압록강에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9편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11년 동안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사람이 노력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지만, 원래 슈퍼마켓이던 이 건물을 계약한 것이 1974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가 좁아서 교회를 옮겨야겠는데 여기에 와보니 위치도 좋고 건물도 적당하고 맞은편에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군말 않고 팔겠다고 그럽니다. 얼마냐고 물으니 62만 5천 불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8년 전에 62만 8천 불 주고 이것을 계약했습니다. 먼저 계약금 12만 5천 불을 주고 50만 불은 15년 동안 한 달에 5천 4백 불씩 할부로 해서 지금까지 7년째 물어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마켓을 순순히 팔았을까요? 그 뒤에는 주의 손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마켓 안에서 밤만 되면 조그맣고 붉은 빛 나는 생쥐가 모든 걸 갉아먹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마트 안

이 온통 갉아먹은 쓰레기투성이였어요. 약을 놓으면 몇 마리는 먹고 죽었지만 요놈들이 영리해서 약은 안 먹고 약이 없는 부분만 전부 파먹습니다. 참다못하고 슈퍼는 결국 손을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양선교교회에 주라고 생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쥐를 가지고도 역사하십니다. 이다음에 우리 교회에 꼭 생쥐 동상을 세워놓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동양선교교회를 위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은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생을 살 동안 세 가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첫째, 자연과 싸워야 합니다. 추위, 더위, 홍수 등의 자연현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둘째는 '나의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악한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셋째로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맥아더 장군의 전쟁 철학에는 '승리'라는 두 자밖에 없었습니다. "패배하면 수치다. 노예다. 고통이다. 죽음이다. 승리해야만 기쁨이다. 자유다. 자랑이다. 영광이다. 안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과거에 늘 싸웠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고, 일본이 쳐들어왔고, 중국이 쳐들어왔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수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역사 5천 년을 읽어봐도 저 만주 땅까지 몽골군을 쫓아가서 밀어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부녀자를 겁탈하고 착취했지만 중국 땅을 쳐들어가서 복수했다는 말도 없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가 없고, 매일 얻어만 맞고 그저 무릎 꿇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저 만주 벌판에 우리 조상들이 일구어 놓은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

안 우리의 금수강산을 모조리 내주었던 우리는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시대에 새 나라에 와서 새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과 같은 그런 약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행동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투쟁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도전이 없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미국시민이 되고 돈을 벌어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살다 죽었다.' 그러면 개, 돼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인생은 개, 돼지나 마찬가지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조상이 정말 비겁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요 군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침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평화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의 정신인 온유, 겸손, 사랑, 봉사, 희생정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였고, 세계 어느 곳을 가든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기울어져 가는 문명을 다시 일으킬 책임은 우리 배달민족, 선택받은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환난의 극복과 평신도들의 자각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심양면의 지원과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공간적, 민족적, 수량적, 심층적 부흥을 일으켜 인류 역사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민족과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존립의 목적

(마 16:13-20)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 존립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피차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왜 세워졌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사회에 지탄받지 않고 존경의 대상이 되며,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의 존립 목적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이 땅 위에 존립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네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교회 존립 목적의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했고, 철학자 톨레미는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말했고, 어떤 신학자는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뜻깊은 말입니다. 다른 짐승들도 언어가 있고, 짝을 짓고, 집을 짓고 살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등 우리 인간과 거의 비슷하지만 한 가지 특별히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 하나가 특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사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편 29편 2절과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분명히 사람이 사는 최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태양을 하나님으로 알고 부끄러운 것들을 영광으로 알고, 자나깨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돈을 버는 모든 것들이 인간 삶의 하나의 과정이지 근본적인 목적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샤카'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to bow', '절하다,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

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 말합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데, 워십이라는 것은 가장 값비싼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참사랑을 한다면 피차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것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일 부모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는 참다운 자녀들이라면 부모님께 가장 값비싼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이 우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때묻은 양심을 깨우쳐 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영혼에 공급해 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강화시키고 아름답게 합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닫힌 마음을 두드려 열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의지를 결합시켜서 경건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서 접촉하여 만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대부분의 개혁교단의 예배는 이사야 6장 1-8절에 나타난 형식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교파와 교회에 따라서 예배의식의 전후가 바뀌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개신교의 예배는 복잡한 여러 의식들을 줄여서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찬양과 경배요, 둘째는 죄의 고백이요, 셋째는 교제요, 넷째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반 동안 드리는데, 그것은 네 가지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또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말과 행실과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개처럼 토했던 것을 또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예배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좀 더 좁게 두 가지로만 말한다면, 예배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운동'인 동시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운동'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운동하시는 것은 특별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중세의 교회는 의식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운동에 너무 많이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쁨을 얻고, 새로운 교제를 갖게 됩니다. 교회 예배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보다는 공동 예배, 집단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로버트 클레이그는 말하기를, "촛불은 하나만 켜는 것보다 여러 개를 함께 모아 불을 붙이는 것이 어둠을 더 많이 밝히고,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길에서, 갈림길에서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나 2장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집단적인 침묵은 개인적 침묵보다도 더 효과가 있고, 더 위력을 나타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한국의 서해

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백사장에서 놀고 간 다음에 모래사장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도 물이 한 번 쑤욱 들어왔다 나가면 아주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묻혀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샘물같이 용솟음치는 보혈로, 성령의 바람으로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을 다 씻어내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옛날 시골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자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을음을 내는 탄 공기를 다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로 바꾸면서 동시에 밝은 태양의 빛줄기를 방 안으로 비추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이 더러운 마음 문을 하늘을 향해 열어놓고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신령한 것으로 바꾸며, 또한 태양빛 같은 밝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 심령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종교의 참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가 학교에 가서 세 시간 공부하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놓아 두고서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시간 무사히 공부 마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건강하여 공부 잘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훌륭한 사람 되어서 선한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도시락이 없어졌더랍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물었더니 모두가 모른다고 하는데 키 큰 아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집은 밥 먹을 때 다 그렇

게 하고 먹냐?" 도시락을 뺏긴 아이가 "도시락이나 빨리 내놔" 하니 "가르쳐주면 줄게. 너희 아버지는 안 그러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신다"라고 답하니 "너희 어머니는 안 그러니?"라고 또 묻습니다. "엄마도 한다." "너의 누나는 안 그러냐?" "우리 누나도 하지." "그럼 너희 집에 안 그러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자, "우리 집 개새끼와 돼지새끼는 안 그런다"라고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충청도 삽교성결교회 허경선 목사님이 계실 때에 부흥회 갔다가 주일 날 낮에 이 얘기를 했더니만 저 뒤의 중년 신사 한 분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개를 퍽 떨구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인데 부흥회 하는 날이라고 해서 왔다가 우리 집에 개새끼, 돼지새끼는 기도 안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그동안 기도 안 하고 먹던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본분이요 최고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2. 교회는 전인적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세상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돈을 벌게 하는 교육, 출세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정신 교육, 사상 교육, 가치 교육, 인격 교육 등을 통해 사랑과 봉사와 희생적인 사람을 만드는, 세상의 교육보다 더 폭넓고 보다 더 고차원적인 교육입니다. 보다 더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 가운데에서도 참사람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참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은 먼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서 그를 닮아서 온전한 생활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현실의 일상에서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사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의 올바른 태도를 가르칩니다. 공동예배와 개인의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이며, 모든 인류는 같은 형제자매라는 박애정신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은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배양해 줍니다. 또한 각자의 개성과 특수성에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이민생활 속에서 목적과 꿈을 심어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며, 명확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그것은 막연히 어떤 개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막대기(자로 쓰는 대막대기나 나무 막대기 따위를 이르는 말)라고 했고, 성경을 저울이라고도 했으며, 성경을 걷대(댓개비의 거죽을 이루고 있는 단단한 부분)라고도 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항해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양하고 심오한 교육을 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고 갔던 것처럼, 교회라는 곳은 죄악 가운데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멸망으로 가던 사람들을 불러내어 꺼내주는 곳입니다. 그

래서 교회를 새로운 출애굽이라 말하며,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인간의 재생 공장'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LA에 사는 어떤 젊은 목사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과거에 몹시 술을 좋아하던 사람, 주먹깨나 쓰던 사람, 집안에서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성품이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는 산상보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울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탕자 어거스틴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적인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인적인 교육을 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3. 교회는 만인을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시키는 특수 훈련소,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미장원 등등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어두운 밤의 등대다. 교회는 환난 중의 도피성이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영과 혼과 몸, 이 3자가 합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몸이 없으면 유령에 불과합니다. 또 사람의 정신이 잘못되면 정신이상자입니다.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면 10대 독자라도 갖다 내버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사람이요, 인격이요, 존귀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위해서는 물질이 있습니다. 정신을 위해서는 문

학, 철학, 예술, 과학 등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었을 때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정신이 병들었을 때는 문화단체를 찾아가야 합니다. 영혼이 병들게 되면 병원도 안 됩니다. 문화단체에 가도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그 영혼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며 자범죄까지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마치 새 옷을 털면 먼지가 나듯,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무리 씻고 나와도 금방 때가 묻듯,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어린아이를 낳아 그저 어떻게 하든지 때 묻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죄짓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착한 자식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가르쳐 놓았지만 외부의 아이들과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어린것이 벌써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싸웁니다. 욕심을 갖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 손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셨고, 마음으로 더러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슴이 창에 찔리셨고, 우리의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에 다녔기 때문에 발에도 못이 박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신앙고백을 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

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 위에,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 그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교회를 말살시키지 못했고, 2천 년 동안 교회는 점점 왕성해 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흔들 자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가르치고, 어디에서 전파하겠습니까? 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강단과 교회학교와 예배실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저도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교회의 이 강단 밑에 나와 겸허히 주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속죄함의 공로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름 받은 사람들의 집단으로서의 이 교회는 첫째는 예배드리는 곳이요, 둘째는 교육하는 곳이며, 셋째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나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세속직업은 두 번째로 돌리고 우선적으로 영혼 건지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형수로 하여금 무죄 선고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천

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0절에서와 같이 병든 육체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와 같이 원수가 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하나로 화합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과 같이 길 잃은 양으로 하여금 목자에게 돌아오도록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32절과 같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다시금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17년간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21살 이전에 전도한 사람의 비율이 95퍼센트였고, 22살부터 35살까지 전도한 사람의 비율이 3퍼센트였으며, 36살 이후로 전도한 사람은 1퍼센트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 유연할 때 바로잡아야지, 굳어지면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침례교회 조지 크룩 목사님이 전도한 1200명 가운데 96퍼센트가 21살 이전에 전도해서 믿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R. A. 토레이는 "나이 많은 사람보다 5살, 10살의 어린이들이 전도하기 제일 좋은 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많은 영혼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의 앞날이 풍성해지려면, 우리의 이민역사가 찬란해지려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희망이요, 내일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전도해서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을 때 미국에 와서 고생한 우리 세대들이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가 고된 이민생활의 수확을 거두는 추수의 때라고 생각한다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전도해야겠지만 반드시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린아이를 전도하면 어린아이가 예수 믿고 나서 생활이 변화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부모들이 부끄러워서 어린아이 따라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사례 가운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부모들도 따라나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른도 전도해야겠지만 오늘부터 어린아이들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꼭 이웃집 아이들에게 사탕을 사주든지, 5불이나 10불을 주든지, 책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로 많이 나오게 하여 이 교회가 차고 넘쳐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 교회는 선한 봉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몸까지 버려서 남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생을 남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33살밖에 살지 않으셨고,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고, 외국 유학도 안 가셨지만 얼마나 굵게, 빛나게, 향기롭게 사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 이제 환갑이 됐는데, 학교도 여기저기 다녔는데 한 게 뭐예요? 시골 논두렁 길만도 못하게 길을 닦아놨으니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학벌도 없고 33살, 그것도 3년밖에 공생애를 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굵은 인생을 사신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자기를 위하기보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으냐, 그 사람에게 갖다 먹여주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높으냐? 앉아 먹는 사람이 높지? 그러나 나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 가운데에서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섬기러 와서 일생을 섬기며 살다가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프리스턴 신학교 총장 맥키아버 박사는 "기독교는 두 가지 상징이 있다.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붙들고, 한 손으로는 수건을 두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땀을 닦아주고 발을 씻어주는 수건을 두르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요즘 신자들은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구찌 백,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낚싯대,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골프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비록 그런 것들을 잡았더라도 다른 것도 잡으세요. 다 같이 한 번 따라 해봅시다. "수건을 붙잡아라." 이것은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픈 자는 빵을, 집 없는 자는 집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정의를, 고독한 자는 친구를 요구한다. 배고픈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훼방이다. 배고픈 자가 신앙을 얻지 못하는 것은 빵을 주지 않은 까닭이다. 빵을 제공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 미국에서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헌금해서 미국

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더 나아가 유럽, 남미까지 선교사업과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대열에 못 낀 성도가 혹 있으면 오늘부터 결심하고 조금 덜 드십시오. 미국은 굶어죽는 사람들보다 너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울 달아서 몸무게가 자꾸 늘어나면 조깅을 하거나 식사조절을 하십시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모은 돈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선교, 교육, 구제 사업에 쓴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은 흘러야만 물고기가 싱싱하게 뛰어놀지, 물이 만약 웅덩이에만 고여 있다면 거기는 이끼가 끼고, 모기가 생기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고독한 종교는 있을 수 있으나 고독한 기독교는 있을 수 없다." 인도의 간디는 "나는 기독교는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는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이 몸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봉사를 실천하십니까? 오늘 교회는 분명히 봉사가 좀 더 필요합니다. 교회는 좀 더 문을 개방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도 전하셨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떡도 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은 개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개인은 대중을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봉사하리라.'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이 봉사만이 기독교의 대화요, 기독교의 모범이요, 기독교의 열매요, 기독교의 향기입니다. 이민교회에는 위로의 신학이 필요하고, 서로 돕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어제 고마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집사님 내외분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집사님의 아들이 전화를 받을 줄 알고 그 가게에 전화를 해봤더니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장로님 부인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정에서도 바쁜 사람이고, 남편의 비즈니스도 비서처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집사님 부부가 모두 드러누워 있어서 가게 볼 사람이 없으니 자청해서 전화 받는 일을 하루 종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서 도와주거나 병원에 가보거나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신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교회는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도 가난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유대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고아와 과부도 많았습니다. 또 그 당시는 전염병도 유행했는데, 나라에서 손도 못 쓰고 있을 때에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나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신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주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주에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애들이 매일 죽어 나갔습니다. 아는 집의 어린애 하나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경찰서와 보건소에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새끼줄을 쳐 놓고 빨간 헝겊을 달아 놓고 막아 놓았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염치 불구하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한 번 와서 기도해 주시면 제 아이가 살 것 같으니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전염병인데…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라는 마

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나도 저만한 어린애가 있는데' 하면서 눈물로 여러 날 다니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어린애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했던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에는 육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봉사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기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기쁩니다. 성가대원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게으름 피우고 집에 그냥 앉아서 빈둥빈둥하는 날에는 마음이 그저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라도 한 날은 그렇게도 잠이 잘 오고 좋은 꿈도 꾸고 마음도 좋습니다. 봉사할 때만 이런 것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문제만 털어놓고 가지 마시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을 퍼내야지 새 물이 그만큼 또 고입니다. 쇠는 써야 빛나지 안 쓰면 고철이 되어서 엿가락도 못사 먹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교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 교회 여러 곳에서 여러분의 손을 빌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로이드 조지는 스물네 살의 젊은 나이에 대영제국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파란 24세의 젊은 청년이 어떻게 대영제국의 총리가 되었을까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영제국 국회의 모든 정당의 원로급 정치인들 앞에서 국정연설을 얼마나 논리있게 잘하는지, 박수소리가 물결쳤습니다. 영국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스물네 살에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를 물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하고 교회를 따라다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교회에 데리고 갈 때에 꼭 요절을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에 올 때 묻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성경 어느 구절을 보셨느냐?' '제목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대지는 뭐냐? 소지는 몇 개냐?'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오늘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어려서부터 쭉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의 사상이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원리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스물네 살에 총리대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녀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탈선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훈련받는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이 되고, 선교를 통하여 고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봉사를 통하여 삶의 보람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미국 땅에 앉혀 놓으신 것은 나 하나 편안히 먹고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배하는 성도들, 교육받는 성도들, 전도하는 성도들,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은뱅이를 고침

(행 3:1-15)

우리 교회가 주축이 되어 세계 선교를 위한 세계복음선교연합회를 조직했는데 금년에는 남미 선교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남미 파라과이에서 총회와 선교대회를 열어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대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총회와 선교대회를 잘 마친 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세 나라에 가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떠날 때 여러 성도들이 남미 선교를 위해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목표한 것 이상으로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연합 선교원에 필요한 비품비를 충당해 주었고, 남은 돈으로 아르헨티나 지교회와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지교회를 도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교회는 원주민 교회를 구입했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필요했고, 상파울루 지교회는 교육관을 설치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뿐만 아니라 선교대회를 다녀오신 두 분이

나와 직접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설교를 짧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전쟁 3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38주년 기념 및 남미 선교에 가서 느낀 것을 종합하여 "앉은뱅이를 고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앉은뱅이를 예수를 믿기 전의 나로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신다면 더욱 실감이 나고 은혜가 될 줄 압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밖에 앉아 있던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앉은뱅이가 고침 받은 과정에 대해 제한된 시간이지만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사역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입니다. 이 둘은 골육의 형제는 아니었지만 믿음 안에서 형제 이상으로 그 우정이 두터웠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두터운 우정을 나누었던 경우를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에서 찾아볼 수 있고, 중국 역사 속에서는 관중과 포숙을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오전 9시 기도할 때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은뱅이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경 볼 때 성경 보고, 식사할 때 식사하고, 잘 때는 잠을 자는 규칙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

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절제라고 말합니다. 절제는 참으로 인격의 최고봉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영국의 웨슬리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시계와 같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사건입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킨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 밖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가까운 곳에 앉은뱅이가 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만약 앉은뱅이가 성전 가까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앉은뱅이인 채로 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비극적인 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 가까이 와서 미문 밖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편 84편 10절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침 받은 시간이 오전 9시라는 것입니다. 오전 9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기적의 배경을 보면 기도하다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2천 년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은 기도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듣는 시간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시간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죄가 없으십

니다. 그분의 생활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마감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심야 기도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이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빠진 것을 보았을 때 목자로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살면서 무엇을 하느라고 한 달에 한 번, 2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미국이 130년 만에 처음으로 가뭄으로 미시시피강이 마르고 땅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선교자의 정신을 저버리고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납주의, 현실주의, 찰나주의 등으로 물든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시간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많은 식구들이 빠지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장들과 기관의 임원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끌고 나가며 성취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봉사입니다. 사명입니다. 며칠 후면 임명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얼굴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을 원합니다. 제가 볼 때, 엄밀히 말해서 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분은 목사여서 그런지 나이도 환갑이 훨씬 넘었는데 젊은 사람처럼 건강해 보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열두 달, 24시간, 이명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 죽을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형님이 경영하시는 제과점의 사탕을 많이 훔쳐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다 빠져 제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자잘한 병도 많습니다. 이 병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 마귀, 과로, 불경건한 생활, 죄의 결과, 무절제, 부주의, 선천적 원인 등으로 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병도 있는데, 저의 병은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앉은뱅이의 병의 원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 힘을 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생산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생충과 같은 삶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스파르타와 같은 폭압적인 국가였다면 아마 벌써 국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 앉은뱅이는 적

선을 요구했습니다. "돈 한 푼만 주시오. 빵 한 조각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을 때보다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4.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먼저,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주목한다는 것은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집중하고 통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군인 출신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이 나타날 때 "주목!"이라는 명령어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모든 병사들이 상관을 쳐다봅니다. 눈을 맞춥니다. 눈동자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존경과 정신 집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다른 곳을 쳐다보며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간절한 눈빛으로, 눈을 마주치며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마는 태도가 아닌, 꼭 받아야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쳐다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는 그의 뒤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구걸한 것은 주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기대에서 벗어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 떡, 옷이 아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안을 가진 사람의 통찰입니다. 직관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스스로 활동하고 돈도 벌고, 집도 갖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인간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신불수이기 때문에, 앉은뱅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 한 푼 쥐여주는 것은 일시적인 구제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손을 뻗어 그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7절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돕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남을 돕고 싶어도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도울 능력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없어서 돕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도 있었고, 손도 직접 뻗어서 도왔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도만 잘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또, 입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몸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행이 남미의 선교현장을 다닐 때, 참 힘들었습니

다. 때는 겨울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미국만 못합니다. 잠자리도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저고리까지 땀에 젖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집에 방문했을 때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도 좋은 지도자가 생겨서, 정치를 잘해서 저들의 빈곤이 해결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 때 피까지 흘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점심으로 빵을 주었는데 빵을 자르다가 칼에 손을 베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걱정할까 봐 얼른 혼자 응급처치를 하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손가락을 다 베지 않아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라는 것은 눈물과 땀과 피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남미에 다녀온 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들을 향해 손을 뻗고 왔기 때문에 가지 않은 사람보다도 기쁨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5. 치료받은 앉은뱅이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첫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람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순종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강은 이보다 더 깊고 맑은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낫는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왜 안 하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였고, 순종할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

복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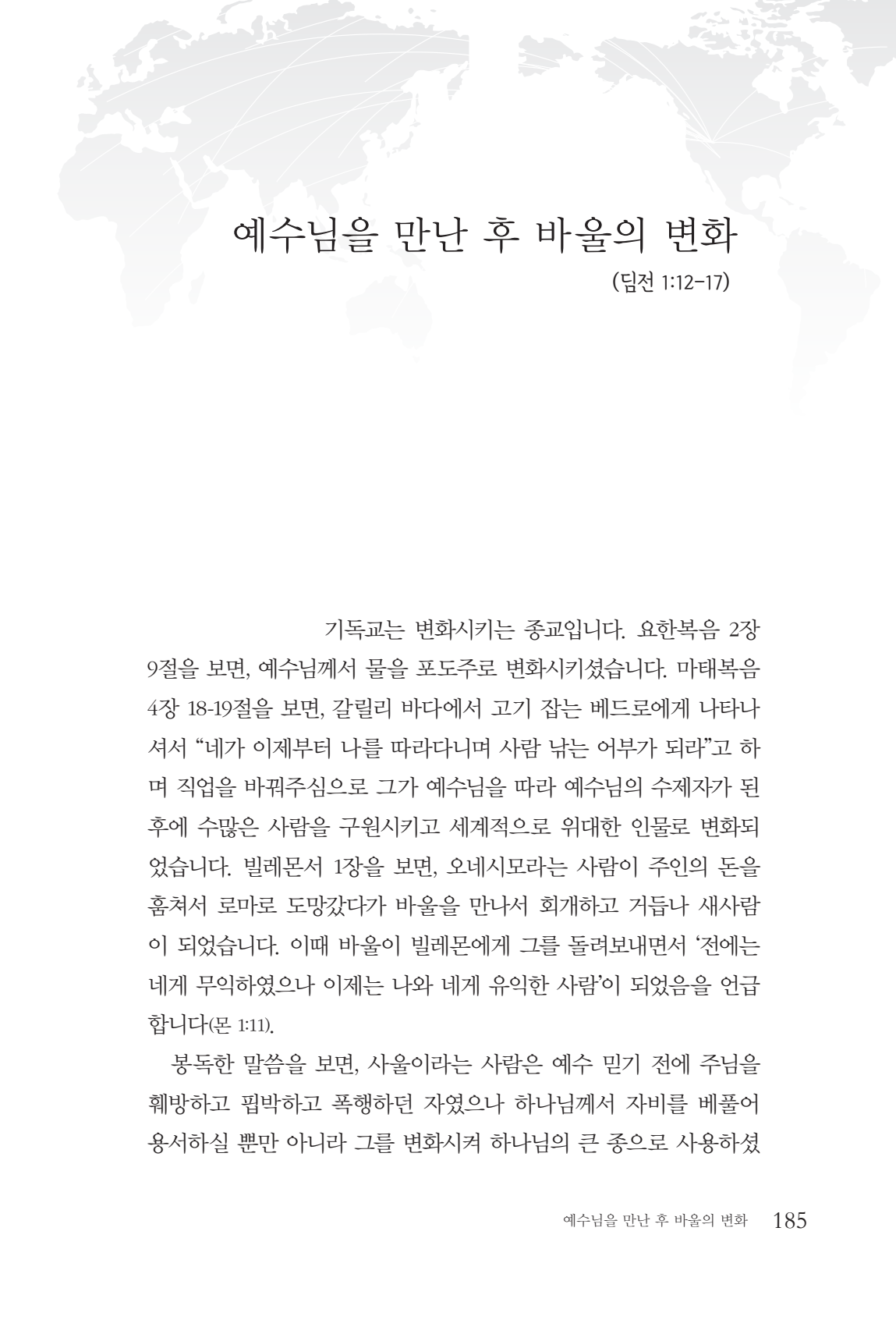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홉 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른 가서 부모, 처자, 친척,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절했습니다. 이 앉은뱅이도 일어나 걷고 뛰다가 집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를 만나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돌아가 이젠 자신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음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찬미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말합니다. 외국에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물론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6. 이 기적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9-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니라'라는 말은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놀랐습니까?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보고, 초자연적 역사를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병을 고친다, 기적이 나타난다 하면 많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먼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여주의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그때 가자마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남자 신자 수만 5,000명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은뱅이 한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은뱅이가 누구입니까? 저 역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앉은뱅이였습니다. 반신불수였습니다. 저도 자주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고침을 받고 이제는 앉은뱅이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미국과 남미와 한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앉은뱅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앉은뱅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지식, 과학, 물질, 무기,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일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야 치료받고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해 정치가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도 떠듭니다. 통일! 통일! 통일! 그러나 통일은 학생들의 힘이나, 학생들의 순수한 애국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의 어떤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온유, 겸손, 평화, 사랑, 봉사를 실천하려고 원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정신만이 우리 조국의 분단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앉은뱅이와 같은 우리 조국을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적인 거룩하고 큰 사명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고, 힘을 한데 뭉치고 시대적인 앉은뱅이를 고치는 데 물심양면으로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변화

(딤전 1:12-17)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19절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부터 나를 따라다니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며 직업을 바꿔주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후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거듭나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를 돌려보내면서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음을 언급합니다(몬 1:11).

봉독한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훼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던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큰 종으로 사용하셨

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기독교가 있을 수 없고 바울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 없다고 할 만큼 기독교에서 바울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보다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한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6절을 보면, "내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라고 말했습니다.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 나라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 사회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그가 이스라엘 전통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나왔던 왕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며,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애국심에 불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바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한 것은 구약 율법을 절대로 소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킨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것은 윤리 도덕에 열심을 다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은 '크다'는 뜻입니다. "나는 큰사람이다. 나는 문벌도 좋고, 학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나는 큰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바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18절을 보면, 사울이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 공회의 인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쫓겨가는 신자들을 뒤따라가다가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니 눈이 멀어 땅에 꼬꾸라지듯 넘어졌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렇게 자랑하던 사울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자신을 '만삭 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기가 열 달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삭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한 여섯 달, 일곱 달 되어 나온, 발달이 덜 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함이 있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덜 익은, 설익은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사도 중에 작은 자이지만 지금은 모든 성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두목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가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바울은 '나는 작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는

지극히 작은 인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교만한 자였지만 예수님 만난 후 가장 부족하고 죄 많고 가장 작은 자로 그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문둥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지렁이 같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 보면,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는 '나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만하면 훌륭한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도둑질도 안 하고 노름도 안 하고 아편도 안 하고 술집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기에 '나는 이만하면 깨끗하고 애국청년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부흥회 때 하나님의 밝은 빛이, 사울에게 나타났던 다메섹에서의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추니 온갖 지저분한 것이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려가며 철저히 회개하고 간증하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은 기독교는 서양종교, 문화종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종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노방전도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사람은 자신을 문둥이요, 부정한 자요, 화가 있어 망할 자요, 버러지 같은 사람이요, 개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은 자신의 진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신분을 바로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 문답 받을 때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령을 몇 번 받았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웁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내가 죄인 됨을 깨달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눈물도 흘려봤습니까?" 이것에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학습 세례를 줍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찬송을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신학교를 책임지고 있는데, 신학생들 시험을 보면 교수들이 어떤 사람은 가정문제를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과거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봅니다. 여러 말 안 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죄인 됨을 깨달았습니까? 죄 때문에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죄 때문에 눈물도 흘려봤습니까?" "네"라고 대답한 이들은 자기 신분을 바르게 파악한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고 바리새 교인의 신앙을 자랑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와 같이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나는 작은 사람이요, 나는 죄인 중의 괴수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13절을 보면,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가 나타나고 부끄러운 것이 나타날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어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고개를 들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며 죄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요, 성자에 가까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상,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엄청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만이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예수 만나기 전의 사상이요, 철학이요,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신조, 철학, 사상이 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던 사람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 성부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요, 이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사상이 삼위일체 사상으로 변했습니다. 또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것이라며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은혜주의자로 이렇게 철저히 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한 것처럼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율법주의자가 은혜주의자로 변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총, 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육체의 할례는 필요 없고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2장 28-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신앙이 확실해지고 구

체화되고, 철저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란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누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년 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기한 것을 봤으면 바로 나팔 불면 될 텐데, 14년 전에 하늘로 이끌려 가서 모든 걸 보고 왔다고 하며 가히 이것을 다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부활하여 더 좋은 나라에 간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부활이라는 것이 그저 말로만 들리고 그냥 '부활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교할 수 있는 복음의 신앙이 생깁니다.

"천국, 누가 가봤나? 가봐야 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 어려웠을 때, 이렇게 좋은 나라 미국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원주민들에게 미국이 이렇게 좋다고 하면 안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천국을 말했습니다. 꼭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 집이 준비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신분이 변화되고, 사상과 생활이 변화되고, 부활과 천국의 신앙이 확고해져서 기쁨이 충만하여 순교할 때까지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신분을 바로 평가해서 깨닫고, 사상과 생활이 변하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100%의 신앙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세월을 보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 다락방의 교훈

(요 13:6-15)

오늘은 우리 교회가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갖는 성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해서 "마가 다락방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마가 다락방의 분위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서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 나라, 자신이 오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 마지막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참 영광스러운 시간인 만큼 모두가 기뻐하고, 또 화기가 가득 차고 감사하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 방 안의 분위기가 아주 침울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민망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왜입니까? 바깥에서는 예수님을 시기해서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로마 군인들,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

수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긴 떠나야겠는데 제자들의 모든 것을 볼 때에 미흡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들이 남을 잘 가르치고, 사회 봉사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이 생각할 때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 예수님이 잡힐 때 다들 겁을 먹고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수제자인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자라는 것을 이미 내다보셨습니다.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의 전도단의 재물을 맡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돈을 챙기고 아닌 척 뻔뻔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려고 애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위선자입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자입니다.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간첩입니다. 애찬의 암초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라고 했습니다. 이 암초라는 것은 바다에 큰 바위가 있는데 물이 그 위를 다 덮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물인 줄 알다가 큰 배가 부딪혀 파선이 되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닷물 같은데 바닷물이 아닌 암초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극히 소수이지만 암초가 있습니다. 신자 같은데 신자가 아닙니다. 집사 같은데 집사가 아닙니다. 안수집사 같은데 안수집사가 아니에요. 권사, 장로, 목사 같은데 참 장로, 권사, 목사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식당에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

비신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안 나가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목사에게 돈을 많이 떼여서 교회 안 나가요”라고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암초라는 것은 바닷물 같은데 바닷물이 아닙니다.

제가 1948년도에 전라도 천원이라는 곳에 가서 집회할 때였습니다. 어떤 집에서 저녁을 해서 정성껏 밥상을 차려왔는데, 거기 전도사님과 주인, 그리고 저랑 셋이 앉아 밥을 먹는데, 밥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더니 딱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돌이었습니다. 이빨이 시큰하게 아팠습니다. 주인도 그 소리를 듣더니 부엌에 있는 아내를 오라고 해서 “여보, 당신 오늘 밥을 지을 때 잘 보고 지었소? 이 강사님이 돌을 씹으셨잖아” 하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말려놓고 먹는데 또 나오고, 그래서 조심조심 먹는데 그 밥, 반 그릇도 못 먹고 남겼습니다. 밥 한 그릇에 조그마한 돌 하나라도 있으면 못 먹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도 이런 암초와 같은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아주 흐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바깥을 보니 소위 종교인, 지도자라는 자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로마 군인들과 작당을 하여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안을 보니 제자들을 보나 수제자를 보나, 가룟 유다를 보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다락방의 분위기입니다.

2.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고별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는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전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 나라는 날이 덥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

로 늘 엄지발가락을 끼운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밖에서 발을 씻습니다. 더군다나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발을 씻습니다. 그 발을 씻을 때 자신이 씻든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게 유대 나라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고자 하시는데 아무도 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말에 주인 많은 나그네가 굶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내 동생들 많은데', 막내 요한은 '우리 형들 많은데', 중간치들은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하면서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쭉 씻어주십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은 절대 못 씻기십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즉, 보혈로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때묻은 영혼을 깨끗게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네가 아직까지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내 몸을 다 씻어 주세요" 하니, 예수님이 "아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넌 한 번 회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신앙고백할 때 이미 깨끗해졌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서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혼탁한 세상에서 살면서 눈으로 죄 짓기도 하고, 마음으로 죄 짓기도 하고, 입으로 죄 짓기도 합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수 없고, 그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밥은 항상 먹죠. 자고 일어나면 세수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회개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때묻은 것은 그때그때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날 잘못한 것 회개하고, 죽지 못한 것이 있으면 또 죽이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슬리는 매일 밤 자기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어 주신 후 앉으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로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하지, 선생이라고 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미안하게 생각하느냐, 황공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내 발을 씻어줬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 발을 씻어줬다면 얼마나 황송합니까. 어떤 면에선 자랑스러운 것보다도 민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유대 나라 오랜 역사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주었지, 주인이 종을,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 경우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미국에서 노예에게 45도 각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백인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해놓고 그들

에게 대통령 모자를 벗어 45도 허리를 숙여 흑인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같은 인간이요,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형제요.” 얼마나 겸손한 일입니까.

또 발을 씻어주었다는 것은 봉사의 정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말하길, “한국사람들은 미국에 오니 부지런하다. 그리고 자녀교육에 열심이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된 것 같다. 가치관이 많이 삐뚤어진 것 같다. 돈 벌어서 옳게 쓰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백인들을 보면 봉사정신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 잘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자선단체 가서 봉사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고별설교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설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교육하셨습니다. ‘너희는 겸손하라, 너희들은 남의 발을 씻어주어라’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발을 씻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는 말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다.” 다 같이 말해봅시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저 받지 말고 거저 주어야 합니다. 목사들도 교회를 섬기는 마음, 모든 양 떼를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지,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 내가 목사다, 당회장이다, 나를 대접해라 하면 안 됩

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여자에게 명령만 하고 부려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여자는 너무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내가 먼저 남편을, 아내를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져야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물 한 그릇 떠와!"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서 떠옵니다.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3.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성찬식이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예식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성찬식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창설하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어느 교파에서는 매일 하기도 합니다. 어느 천주교 가문은 아침마다 떡을 떼어 줍니다. 그러나 교파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춘추에 한 번씩 갖습니다.

그럼 이 '성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을 보면,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하얀 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닙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성도의 교제와 화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성찬을 떼실 때는 큰 보리떡 하나 가지고 전부 하나씩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

도주 한 잔을 가지고 돌아가며 마셨습니다. 떡 한 덩이, 한 잔의 포도주. 이것은 교제와 화목을 뜻하며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형제들의 피는 다 부모님의 피를 받았기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신자들이 한 몸과 한마음인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유대 사람, 헬라 사람, 종이나 주인,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이 떡과 잔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몸 한마음임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주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7-9절을 보니까 장차 어린양 잔치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약혼식을 먼저 하죠? 약혼식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은 결혼하기 전에 하는 행사인 것처럼, 오늘 성찬식은 장차 주님의 어린양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됩니다" 이렇게 듣고, 또 이것이 피상적이지만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아, 나를 위해 이렇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지'라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재헌신의 예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나 내 죄 때문에 주께서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죠?" 이런 감사와 '죽을 죄인 살리셨으니 이제 여생을 이 몸 바쳐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나 위하여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만

백성에게 전하겠다는 각오를 갖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온몸이 깨끗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들도 나가서 나를 본받아 이렇게 행하라."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구원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성찬식을 통해 더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합 3:1-3)

오늘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223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서 과중한 세금을 빼앗기고 자유를 억압당했기 때문에 미국에 온 여러 사람들이 영국군과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아직도 일등 국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성경을 토대로 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짧은 역사이지만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강한 나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네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빵, 사랑, 자유, 영생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기본 욕구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군이 필리핀에 상륙해서 일본군이 영국군과 미국군을 잡아서 수용했던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내무반 벽, 식당 벽, 화장실 벽에 제일 많이 쓰여 있는 단어가 "배고프다. 빵을 달라. 사랑을 달라. 자유가 그립구나. 자유를 달라. 영원히 살고 싶

다" 이 말이 제일 많이 쓰여 있더랍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요구하는 기본 4대 욕구입니다. "배고프니 빵을 달라. 사랑이 그립구나. 자유가 그립구나. 영원히 살고 싶구나."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빵을 얻습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해야 나도 사랑을 받습니다. 자유는 피 흘려 투쟁해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223년 전이 미국에 온 여러 나라 이민자들이 힘을 합해서 대영제국 정규군과 싸워 피 흘려 독립을 쟁취하여 오늘의 미국의 기초를 닦았으니 우리는 그 무명 용사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600년 전에 유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범함으로 그 죄 값으로 갈대아 족속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육축도 다 쓸었습니다. 농작물도 다 짓밟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이 정치를 잘하고 용맹스럽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 시대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웃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하시고 아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시대를 이루게 하신 그때가 그리웠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은 피해를 당해서 황폐하지만 다시 이전 황금시대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우리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뜯고 내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다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우리가 선교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지역사회에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를 확장했습니다.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다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케 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그 시대에 부흥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요소를 실천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인, 가정, 교회, 그 나라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 부흥 요소는 무엇입니까?

1. 겸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겸비한 백성은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얼마 후에 솔로몬이 밤에 자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네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촉망을 받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평화의 왕은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말년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후손에 와서 갈라졌습니다만 하나님이 "네가 겸비하면,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부흥시켜 주마"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못된 왕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우상을 거기다 놓고, 선지자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앞에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으니까 그 포도밭을 탐냈습니다. 주인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포도밭이라 팔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이 악한 사람들과 짜서 그 주인이 하나님을 욕했다고 누명을 씌워 그 사람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죽어 개들이 네 몸의 피를 핥을 것이라. 네게 속한 것은 멸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보행도 천천히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인하여 재앙을 네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겸비할 때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용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을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21세에 임금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할 때 겸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멸시하고 비웃고 욕을 하고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갈대아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남녀노소를 거의 다 죽이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

과 기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왕궁과 예루살렘 성은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지만 겸비하고 근신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고 축복하셨지만,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겸비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함으로 결국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을 보면,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였더니 8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망한 다음 메대 바사 왕 고레스가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방령을 내려 돌아올 때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 이르러서 마치 야곱이 얍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언덕에서 에서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그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어린아이들까지 우리가 가져가는 모든 재물까지 무사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답하심을 이루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11절을 통해 진정 위대하고 겸비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겸비한 분은 오직 이분뿐이며, 앞으로도 이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제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버리고 종의 몸을 입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늘 보좌에 앉아 모든 만물에게 경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에 유재한 목사님이란 유명한 부흥강사가 있었습니다. 농촌을 사랑하는 그분 집회를 갔던 것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50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저 변소에 들어가서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방시켜 구원시키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겸비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서 모든 사람과 만물에게 경배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을 보면 겸비한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용서받았고,

그 가정과 나라가 부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비치 아니한 왕과 백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겸비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2. 부귀를 떠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풍문으로 듣자 하니까 디모데가 있던 교회에 말다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경하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점점 부패하는 자리로 끌고 갈 때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들과 같이 물들고 그들에게 동조하여 그들과 같이 망하지 말고, 불의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충고한 말입니다.

그러면 불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9-30절을 보면, 불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무정, 무자비 등이 다 불의입니다. 불의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창세기 31장 36-41절을 보면, 야곱에게 대한 라반의 행위가 불의입니다. 야곱에게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그가 사랑하는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였습니다. 그 언니 레아를 주었습니다. 7년을 더 일하면 정말로 주겠다 했습니다. 또 7년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일하는 중에 라

반은 열 번이나 삯을 챙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불의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행위가 불의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서 바로 왕의 시위대장의 집으로 가서 노예생활을 할 때 그 주인에게 얼마나 정직하고 충성하고 깨끗하게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의 여자가 색골이라 여러 번 동침하자고 수작 부리고 마지막에 옷을 잡아당기면서 동침하자고 하니까 옷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그 여자가 분하기도 하고, 욕구불만도 있고, 창피하기도 하니까 그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 옷을 보이면서 이 요셉이란 자가 옷을 벗고 덤비기에 소리쳤더니 도망갔다고 죄를 덮어씌웁니다. 보디발은 이런 경우 요셉의 말도 들어봐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두세 사람 증인이 없으면 재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셉아, 네가 정말 나쁜 짓을 했느냐?" 물어보지 않고 여자 말만 듣고 옥에 집어넣은 것은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불의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5-23절을 보면, 다윗에 대한 사울의 행위가 불의입니다. 다윗은 일선에서 싸우는 형을 위해서 아버지가 먹을 것을 싸주면서 보고 오라고 하여 심부름을 갔습니다. 적국과 대치 중이었는데 보니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구척 장수입니다. 아무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때에 다윗이 믿음으로 돌팔매를 가져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 나라를 구한 일등공신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의 말, "사울 왕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더니 기분이 상해서 딸은 주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아들인 요나단에게 물려주고자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시기, 질투에서 오는 이것이 사울 왕의 불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야에 대한 다윗의 행위가 불의입니다. 다윗은 하나

님의 은혜로 목동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상승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까지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서 저 지붕 꼭대기에 가서 동서사방을 보면서 '이게 다 내 땅이지' 하고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할 때 저 멀리 있는 집 뒤뜰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음욕에 사로잡혀 뒷방에서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왕으로서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일선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충신입니다. 그 불의로 씨가 맺혀 아기를 배니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군인을 데려다가 잘 대접한 다음에 "네 집에서 푹 쉬었다가 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갑니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대장과 동료들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는데, 자신이 어찌 집에 가서 신을 벗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갖다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일선에 내보내서 갑자기 죽여버려라."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음란과 배신과 살인, 이것이 불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행위입니다.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는 예수님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빌라도 자신이 봤을 때도 예수님은 사형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죽이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입니다. 자기 지위가 떨어지고, 반란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으면서 흉악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쉽게 못 박아 죽이도록 내줍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유부단하여 불의를 택한 이것이 빌라도의 불의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사회에도 이런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이 없다는 약점을 잡아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들, 한쪽 말만 듣고 입방아 찧는 행위들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듣

지 못한 일은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보고 들었어도 덕이 안 될 것은 발설하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시기, 질투심으로 마음으로 살인죄 짓는 사람, '저 사람 차 사고 나거나 강도 만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인죄 짓는 사람, 간음죄를 짓고도 자기를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뻔뻔스럽게 다니거나 심지어 강단에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해야 할 텐데 그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불의입니다. 불의한 생각, 불의한 행동, 불의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겸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떠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5-6절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으로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한 자가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때리고 옥에 넣었습니다. 쫓겨가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박멸하려고 예루살렘 공회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쫓아가는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임해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람은 거기서 복종했습니다. "너는 저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말할 사람이 있느니라." 그는 사람의 손에 끌려서 그 성으

로 들어갔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이 안수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사람이 180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복음에 최선봉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복종을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민수기에서는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함을 깨우치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이르며,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젊은이는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이 일반적 복종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신명기 2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자기를 쳐서, 육체를 쳐서 복종하라", 고린도후서 1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피차 간에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들의 영혼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부모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학생은 선생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상관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에게 복종하면 실패가 없고, 축복받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복종의 미덕이고, 복종의 축복입니다.

4.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구약의 예언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도 나왔습니다. 목사도 되었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런던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영국을 흑암에서 건지고 세계에 부흥의 불을 붙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존 웨슬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의 선교사들과 같이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마지막 날 "나는 악한 자입니다"라고 회개합니다. "저는 친구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면서 관리를 부탁한 돈을 떼어먹은 놈입니다"라고 울며 회개할 때 성령이 온 사람들에게 임하여 회개의 불이 붙었어요. 평양이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에 전국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오순절은 1907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우리 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성회를 갖습니다. 이번에 강사는 한국 창원에 있는 지용수 목사님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교회를 갔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온 성도를 바로 길러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해주십시오."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십니다. 이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낮, 저녁, 여섯 번 집회를 갖습니다. 이 분이 한 50여 세 된 분인데, 목회를 30여 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능력 있고, 신령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부흥되어야 합니다. 미국도 부흥되어야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면 경제성장, 경제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정신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정치도, 교육도, 군사도, 모든 경제도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흘 동안 가능하면 시간마다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겸비하고 불의를 떠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 심령에 불이 붙으니, 이번 기회에 한 분도 빠짐 없이 큰 은혜를 받아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진정한 교회 부흥

(합 3:1-4)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합 3:1).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년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귀한 영혼들을 많이 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국가와 민족의 부흥이 도모되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세계 평화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이 지구상의 더 많은 물질과 과학 문명의 발전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부흥을 간절히 염원하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

다. 어떤 분들은 요즘 너무 교회가 비대해지고 팽창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기업화된다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물론 시정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가 또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교회 이름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간판을 붙여 놓았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교회는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양적으로도 부흥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힐 때 부흥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의 부흥입니다.

교회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이 있어야만 부흥됩니다. 공자도 "먼저 네 몸을 닦으라"고 말했고, 소크라테스도 "먼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네가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배불러야 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부흥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과 역대하 34장 19절에는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개인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시야로 인해 그 나라가 부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하다가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을 예루살렘 수문 앞에 모아 놓고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0-14절을 읽는 동안 심령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읽다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선다싱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 부흥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호적에서 제명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했습니다. 스펄전은 이사야 40장 31절을 읽다가 부흥을 경험하고 영국에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받으려면 말씀을 많이 읽든지 많이 공부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맟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도 산에 올라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결과로 능력을 받아 깊은 죄악에 빠진 중생들과 악마의 사슬에 매인 중생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악마와 더불어 싸워서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항상 힘써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부부는 같은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 만일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그 배는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항상 힘써 기도했기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만 사도들은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엎드려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개인적 부흥을 받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 간증을 잠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신학교에서 낮에는 성경을 배우고 밤이 되면 강단에 올라가 기도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제가 대방동에 살았을 때에는 새벽마다 대방동 장로교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밤중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비와 같이 내려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혹시 이거 다 받으면 교만해질 것 같아 "하나님, 그만 주십시오"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는 관악산에 집들이 없었습니다. 산 밑에도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산속에 들어가서 낮에는 성경을 보고 밤에는 바위 밑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였는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삼각산 큰 바위에서 낮에는 성경을 보고 밤에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대산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난통에 수정교회에서 밤 기도를 하던 중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뜨겁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2.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에는 '은사 개발'과 '상부상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은사 개발입니다.

로마서 12장 6-8절에는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등 사람에 따라 은사가 다 각각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들의 은사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어떤 장로님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장로님은 통역을 잘하십니다. 어떤 장로님은 물질로 받듭니다. 어떤 장로님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잘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이것이 다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 등 은사가 제각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인십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여러 명 키워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의 자식들이지만 개성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무지개가 좋은 것은 색깔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종류의 꽃이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들을 찾아서 봉사할 때에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야에서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성가대원도 필요합니다. 작년부터는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주일학교에서 맡게 되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한글학교에서도 일꾼을 찾습니다. 자동차, 버스 돌리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여러 분야에 일꾼이 필요한데 여기 앉으신 여러분은 누가 찾아와 부탁하기 전에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케네디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가 뭘 해주길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뭘 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자진해서 자기 은사로 그 분야에서 봉사할 때에 교회는 부흥됩니다. 나그네가 없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진해서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뒤에 앉아 계시던 집사님께서 오늘도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행정학으로 학위를 따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찾아야겠다.' 그러고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진해

서 봉사할 때에 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둑질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나 도둑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은사 개발해서 도둑질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여러분의 은사를 자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상부상조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있다고 교회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집사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성가대가 있어야 하고, 주일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한글학교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저마다의 은사를 가지고 상부상조하기 때문에 동양선교교회라는 큰 조직이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부상조하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2-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의 몸을 비유로 들어 협력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이 몸의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지체에는 임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임무를 각각 수행하면서 그것이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온전히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 지체들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요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은 약합니다. 손보다 약합니다. 손은 때릴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꼬집을 수도 있고 뜯을 수도 있지만 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제게 "손 하나 내놓을래, 눈 하나 뺄래?"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손을 없애달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라고 판단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양성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양한 지체들이 각기 고유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통되고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양성 중에서 통일성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성격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성격에 따라 신앙의 색깔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국수주의자였지만 마태는 사대주의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과격한 성격이었지만 요한은 아주 내성적이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단순한 반면 도마는 이성적이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150여 소수민족이 뭉친 통합 국가입니다. 그러나 성조기 아래, 헌법 아래 미합중국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군만으로는 안 됩니다. 해군이나 공군력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육해공군이 모두 합해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후방에 있는 민관이 밀어 주어야 됩니다. 관리는 후방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국민이나 노동자는 식량이나 무기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군과 민과 관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총력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당회, 제직회, 선교부, 교육부, 봉사부, 청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성가대 등이 있습니다. 청년부와 여전도회, 남전도회, 성가대는 여러 개나 됩니다. 이 모든 부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특정 부서만 똘똘 뭉치고 자신들끼리만 놀게 될 때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모든 부서는 그 부서 안에서 단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3. 확장 부흥입니다.

확장 부흥이라는 것은 지교회를 설립하고 미자립교회를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는 오순절의 은혜를 받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 팽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땅에도 지교회를 세우고, 갈릴리에도 지교회를 세웠으며, 사마리아에도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살림을 떼어 줍니다. 그것이 가정의 발전입니다. 큰 나무는 뿌리가 많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가 오

고 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서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가 커지면 지교회를 세워 분립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의 영락교회도 지교회를 많이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스타메사에 있는 갈보리채플은 반세기의 역사를 가졌는데 지교회 백여 개를 세웠습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의 지교회는 호주에 하나, 브라질에 하나, 독일과 로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안에는 지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3년 전부터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 당회에서 기도하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초에 우리 교회에서 6년 동안 수고하신 이기홍 수석 목사님께서 사우스베이에 지교회를 하나 개척하러 가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행정적인 것과 대인관계 등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였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속으로 '개척을 왜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말합니다.

"제 나이도 있고 하니 독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소 꼬리보다 닭 대가리 되는 게 낫다고. 항상 이 임동선 밑에서는 부목사일 뿐입니다. 목사님 혼자 있으면 빛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나타나면 항상 '부' 자가 따라다니지요. 덩치로 보나 인물로 보나 설교 수준으로 보나 손색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있으면 항상 '부' 자가 따라다녀요. 허경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항상 합니다.

"나도 상당한 사람인데 임 목사 때문에 항상 빛을 못 본다."

그래서 그분도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목사님이 지교회에서 당회장 맡으시는 것을 우리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회와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될 때까지 지교회를 지원하는 안에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회장으로서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교회 근처에 사신다면 꼭 이 교회에 출석할 필요 없이 지교회 역시 동양선교교회이니 그곳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연약한 교회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꼭 본 교회에 나와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비가 오는 날이라도 지교회에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사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9-30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힘 되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실행하였는데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직접 보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다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지 않고 부조하는 것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교파를 초월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145개의 농어촌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액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적게는 20달러에서 70달러 또는 200달러를 지원합니다. 145개의 교회를 돕는 일,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자유를 누리며 자녀교육도 잘 시키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어요. 자동차도 한두 대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절약을 해서 지교

회도 돕고 한국의 농어촌교회, 어려운 교회를 계속적으로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4. 제3세계의 부흥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영국의 웨슬리는 외쳤습니다. 문화권이 다른 제3세계에 선교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과 기도를 하고 안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3세계로 선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헬라에 가서 선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로마에서 전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다른 제3세계인 소아시아와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중동,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독일, 이탈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브라질, 파라과이 등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선교도 하는데, 가봉과 뉴질랜드 등지에 신문, 주보, 마음의 양식을 보내기도 합니다. 공산권에도 선교를 합

니다. 비록 소련과 동유럽에는 하지 못하지만 중국에는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 전체가 우리의 선교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곳에는 피플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한 5천여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까지 선교사를 몇 사람 보냈는지 아십니까? 450가정을 보냈습니다. 1년 선교비가 수십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선교사 한 사람에게 900달러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곤 자립하도록 합니다. 450가정을 선교사로 보냈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낸 교회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 밖에서 앉은뱅이가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네가 한 푼 달라고 하는구나. 떡 한 조각, 옷 한 벌을 구걸하는구나. 네가 근본 문제를 잃어버렸구나. 그런 것보다도 네가 일어나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그의 지엽적인 문제는 도와주지 않고 근본 문제를 도와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 그 사람은 일어나야만 스스로 벌어서 먹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나에게는 금이나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며 손목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발목과 발이 힘을 얻어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찬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남아시아와 저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에는 후진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문맹과 무지와 가난과 독재정치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아프리카 같은 곳은 당장이라도 굶어 죽기 때문에 빵이 필요합니

다. 우리는 그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들이 거듭나 새사람이 될 때에 아프리카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잘 먹고 잘살 수 있게 됩니다.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선교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물질적으로 후원하여 현지에 전도인이나 선교사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긴 노란 종이를 드렸습니다. 선교비는 여기에 적힌 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후에 여러분이 이것을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모국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또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중남미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기에 한 달 후원할 선교비를 적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진국,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는 50달러만 있어도 다섯 식구가 생활합니다. 특히 중동 같은 곳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는 100달러만 가져도 다섯 명의 목사, 전도사 가정이 먹고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정을 후원하는 것이 짐이 된다면 5달러를 후원해도 좋습니다. 한 달에 10달러도 좋습니다. 그것도 부담이 되어 후원을 주저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은 1달러라도 좋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1,800여 명의 장년이 이 주일예배에 출석하는데 1,800명이라면 1달러씩만 내도 큰 것입니다. 아직까지 선교에 물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1달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끼만 금식하여도 아마 1달러 이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 종이에 적어서 나가실 때 양쪽에 있는 박스에 넣고 가시면 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른 상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1달러, 5달러, 10달러 선교헌금을 보내서 건진 영혼들에 대한 상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으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 가정은 아프리카에 가셨다가 현지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학비와 식비를 단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미주 한인교회들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빈축만 사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멍가게냐, 하나님의 기업체냐?' 동양선교교회는 그런 빈축, 비아냥을 받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나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다. 부흥은 개인의 부흥, 교회의 부흥, 지교회 설립, 미자립교회 후원, 제3세계의 선교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 네 가지 부흥에 적극 참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민교회에 사도행전의 새로운 한 장을 기록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국을 위하여

(느 1:1-7)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국을 위하여"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당시 바사 왕국의 중신이 되었습니다. 수산 궁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 하나냐와 몇 사람에게 그곳의 소식을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로부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심한 능욕을 받으며 성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과 남은 동포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리려는 세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가 슬픈 소식을 들을 때에 중심으로 아픔을 금할 길이 없어서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 오직 산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종종 울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도 눈물이 나오지만 가장 슬플 때 눈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눈물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통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자기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눈물은 결단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해진 조국 이스라엘과 조국에 남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족을 위한 눈물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값있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애가를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울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2절을 보면,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1장 16절에는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3장 48절에는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간음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왕과 백성들의 핍박과 생명의 위협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백성을 위하여 통곡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세 번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의 눈물 가운데 첫 번째 눈물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 가서 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장차 7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불을 지르고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멸시킬 것을 내다보신 주님은 미래의 비참한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는 현재의 어리석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신 것입니다. 마지막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며 우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해서, 자기 배가 고파서, 자기가 아파서, 자기가 고독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과 조국, 온 인류를 위한 거짓 없는 눈물이요, 가치 있는 눈물이요, 거룩한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과 동포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느헤미야 1장 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금식하며 기도하여", 1장 6절에는 "이제 종이 주

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1장 11절에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처럼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고 분석해 보면 대부분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나 가족, 친척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좀 더 차원 높은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며칠을 금식하면서 먹지도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또한 자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9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줄 아느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줄 아

느냐? 너하고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듣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반드시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고 쪼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는 작다고 해서 쪼개지 않으니까 독수리가 자꾸 와서 채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쪼개 놓고 주님의 피를 발라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새는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에 의한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외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독수리를 마귀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면 죄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자꾸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책상서랍에 사탕을 두면 책상에 구멍을 뚫고 쥐가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자칫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에스더 4장 15-16절을 보면, 나약했던 여성도 자신의 겨레를 위해 참으로 결사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땅에서 살 때에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국의 이인자였습니다. 모르드개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그런 모르드개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전멸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드개가 알게 되고 양녀처럼 키운 그의 조카딸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였기 때문입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돌아가서 모든 백성에게 자신을 위해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자신도 시녀들과 더불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왕후라 할지라도 규례를 어기고 왕이 들어오라 하지 않을 때에 들어가게 되면 규례에 따라 십중팔구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을 때 왕은 에스더에게 홀을 내밀었습니다. 홀을 내밀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이요, 홀을 내밀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홀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한없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셔서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하만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하여 결국 모르드개를 잡아 죽이려고 하만이 만든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되고, 대적들은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민족의 국경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마치 그

리스도를 잉태했던 여성 마리아의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공헌을 칭찬하듯이 에스더로 인해 유대 민족이 전멸을 면했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민족을 구한 그의 공헌을 칭찬합니다. 에스더야말로 자기 동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먹지도 마시지도 잠을 자지도 않고 기도하여 민족을 구원해 낸 귀한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에 대한 아름다운 기록을 우리는 또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여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여러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머리가 좋고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모략과 중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한 계교를 꾸몄습니다.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충성하는 척하면서 이 세상에 왕보다 위대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30일 동안 왕 외의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거나 무엇이든 구하는 자는 사자 굴에 집어넣자고 하였습니다. 왕에게는 기분이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이 써 온 조서에 인을 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인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분명하게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고국을 일찍이 떠나 이국에 와서 먹고, 자라고, 공부하고, 왕의 사랑을 받아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

님께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고도, 그가 자기 방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아침과 점심과 저녁, 하루 세 번씩 날마다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육신의 건강이나 출세와 부, 자신의 평안이나 안전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조국과 겨레를 위한 숭고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금식하면서, 얼마나 밤잠을 안 자면서, 얼마나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몇 날 며칠 동안 기도를 합니까? 그런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3.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과 동족들에 대한 비통한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있거나, 울기만 하거나, 단지 기도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국과 겨레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간청했습니다.

"왕이여 나를 사랑하실진대 나를 우리 조국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타버린 문짝을 다시 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황폐한 그 땅을 다시 수축, 부흥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돌아가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군대장관과 많은 마병을 붙여주고, 또한 기술자들과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돈까지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와 12년 동안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불철주야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강론하게 하여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가르치고, 모든 십일조를 이행하도록 하고, 각 가정들을 다시 신실하게 재건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부흥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눈물의 사람이요, 애국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에는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은 남겨 두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두시든 주님께서 소중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자 굴 속에서도 보존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잘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셨다가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합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감춰놓으셨습니다. 가이사의 집에서는 여러 여성도들과 남성도들을 숨겨놓았다가 쓰셨습니다. 바로의 집에서는 요셉이란 사람을 감춰놓으셨습니

다. 느부갓네살의 집에서는 다니엘이란 사람을 감추어 놓았다가 쓰셨습니다.

수산 궁에서는 느헤미야를 보내 왕의 총애를 받게 하셨다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쓰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볼 때 연약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나라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바사국의 궁 안에 두고 왕의 신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 치하에서 죽었고, 6·25전쟁에 죽었고, 미국에 와서도 교통사고나 강도에게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왜 보존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훌륭해서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수산 궁보다도 더 풍요로운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생명을 보존하시고, 교육과 훈련을 시키시고, 경제력까지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모세 남전도회를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회장님! 제가 지금 올라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우리 조국에 홍수가 나서 서울 시내가 다 물에 잠기게 되어 위험하다고 합니다. 조국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그 소식을 들은 남전도회 회원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기도를 마친 후에 사라 여전도회 회장 및 여러

분에게 이번에는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조국이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사망자와 실종자가 2백 명이요, 침수된 가옥이 만여 호요, 이재민이 10만여 명이고 농사의 피해도 막대하여 그 손해액이 한 5백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간절히 기도한 후에 회장님이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우리 여자들이 많은 돈은 없지만 오늘 이곳에서 성의껏 헌금을 해서 한국에 보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한 개인이 돈을 내거나 어떤 기관에서 맡는 것보다 수산 궁에 와서 편히 사는 느헤미야와 같은 축복 받은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일단 보류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왔다는 기록이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백 년 동안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도왔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운 것은 로마 정부도, 유대 정부도 아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힘을 합해 몸과 물질로 그들을 도왔다는 이 아름다운 역사는 오늘날 이 미국이라는 수산 궁에서 편안하고 부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립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어려움을 보고 슬퍼하고 울었다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다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함께 12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굶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나라를 재건하였다는데 자꾸 초라한 저 자신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 있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자동차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요? 조국에 다시 못 가면요? 늙어 건강을 잃고 나서 조국에 가면 쓸모가 있겠습니까?"

오랜만에 말랐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어떤 권사님이 잣죽을 들고 오셨기에 "권사님, 고맙습니다만 오늘 하루라도 음식을 안 먹기로 작정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국과 동족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록 일국의 장관이 되어 편안한 자리에 있었지만, 몸은 비록 조국과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포들의 쓰라림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Long weekend에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셨지요.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었지요.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때로는 울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싸서 왔다 하더라도 오늘 한 번은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한국으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나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조국을 위해서 웁시다. 하루 밥을 먹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합시다. 슬픔에 잠긴 동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뜻 깊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바의 대성회

(삼상 7:1-14)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해서 "미스바의 대성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기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신정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때 지도자는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종교적·정치적으로 잘 인도하지 못한 까닭에 나라가 부패함으로 이웃 블레셋이 침입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다가 오히려 법궤 때문에 재앙을 받음으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 속에 빠졌고, 엘리가 죽은 뒤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유명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는 정치적

으로 손을 대는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키는 것보다도, 군사적으로 양병을 하고 강군을 만드는 것보다도 먼저 이 나라에 가장 급선무가 되고 우선이 되고 기본이 되는 문제는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깨닫고, 그는 온 나라를 순회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마침내 미스바라는 땅에 온 국민을 모아서 큰 성회를 엽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어 영적 부흥이 그 민족에게 일어남으로 그 나라가 다시 부흥해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 태평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스바의 부흥에 대해 좀 더 세분화하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저들은 모였습니다.

5절을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마일 지점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백성들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할 때 순종해서 다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 모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도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 성문 광장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저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 당시의 사회가 다시 소생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다음에는 사방에서 다시 모여들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 기독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새 기독교 역사의 장을 연 120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18세기 초, 폭탄 속에서 영국을 다시 살린 사람은 정치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교육가도 아니고,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전략가나 과학자도 아닌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칠 때 영국 국민들이 다 회개하여 영국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웨슬리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는 자기가 혼자 서재에서 기도하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 집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불 받아서 영국을 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경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한국 기독교 교회의 생일날이 생겨났습니다. 모이는 가운데 참으로 불이 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4월 2일날 우리 교회 성회를 갖고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성회는 각 사람이 연중행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개인을 위한, 내 가정을 위한 성회인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 장애가 있더라도 제거하고 힘써 모여서 현대 미스바의 성회를 이루기를 축원

합니다.

2. 원수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은 '저희가 모인 것은 심상치 않은 모임이며 우리에게 도전을 하려고 하는 모임이다'고 착각을 하고, 블레셋의 용감한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미스바 근처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게 사는 것만이 이 나라에 정치, 군사, 교육, 경제,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곧 미스바의 모임은 종교집회, 신앙부흥 운동으로 모인 비무장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 중무장을 하고 미스바 밑에 까맣게 모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무장이었고 그들을 내려다보니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집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매우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려운 일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귀도 열심히 방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큰 집회, 아마 마귀들도 굉장히 역사하면서 성회를 방해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좋은 일에는 이렇게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방해가 없기를 기도하

십시오. 또 이런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마귀의 세력에 여러분이 굴복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은혜 못 받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는 미스바의 부흥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무슨 음식이나 먹고 잡담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8절을 보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무장을 하고 모여 있는데 중무장을 한 블레셋 군인들이 까맣게 몰려들어 공격해 올라올 때 저들은 다급해졌습니다. 누구나 다 생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들은 그냥 눈 뜨고 있었겠습니까? 잡담하고 있었겠습니까?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도 겸허히 동일하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도 다 합심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인 다음에는 먼저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곱이 얍복강에서 전심으로 하

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요새 어떤 사람들은 전심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오더니 엄청 짧게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무리 지금이 초고속 시대라지만 뭐라고 기도했을까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하나님" 하고 그다음은 '우물거리고 말았겠거니'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공을 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편애해서 그렇습니까?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처럼 불의한 법관도 과부가 전심으로 조르니까 귀찮아서 갚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사촌 훌이 큰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 듦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88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라고 합니다.

히리테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는 인생을 정결케 하며 자기를 위한 산 설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죄짓지 않는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눈으로, 입으로, 귀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간구하고 음란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 달라 기도할 수 있기에 죄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성경 보면서도 누굴 만날 생각, 욕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를 위한 산 설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부흥시켜 주심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긴 것처럼, 이번 성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하는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 금식했습니다.

모이기만 하지 않고, 기도만 하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금식하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졸음도 없어지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잔뜩 먹으니 졸음이 오더라고요. 목사님들 이야기가 아침에 금식하고 설교할 때 오히려 더 힘이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금식은 심령 부흥을 일으키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금식을 어느 때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6절에는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에스더 4장 16절에는 민족적 위기가 닥쳤을 때, 느헤미야 1장 4절에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 9장 1절에는 죄를 자복할 때, 열왕기상 19장 8절에는 심령부흥을 원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6-7살 즈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동안 두 어른이 세상을 떠나자 할머니가 믿지 않으셨는데 전혀 식사를 안 하셨습니다. "집에 이렇게 큰 우환이 났는데 음식이 입에 들어가느냐"라며 음식을 안 잡수셨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밥이 들어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 걱정이 생겼을 때,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죄를 자복할 때, 심령 부흥을 원할 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월의 금식과 오월의 금식과 칠월의 금식과 시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금식하고 나면 그 후에 우리 심령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희락이 온다는 말입니다. 금식한 사람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1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2일 성회를 앞두고 성전 신축을 위해서 금식령을 내려서 다 연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깥에 게시된 금식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일일이 내가 기도할 수 없으니 손으로 만지며 이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 명단에 있지 않아도 금식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구약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한 금식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 사랑은 불변하는 까닭에 이 앞에 있는 성회에 성전 건축과 파킹랏에서 800여 명이 금식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5. 회개했습니다.

6절을 보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금식만 하면 됩니까? 하나 더, 회개해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 신입니다. 그들은 이 두 신을 놓고 섬겼습니다. 성전에 가서 남녀가 음식 먹고 춤추다가 서로 죄짓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종교입니다. 타락한 종교입니다.

오늘도 어떤 소수의 집단들은 모여서 ‘우리는 거룩해졌다, 성화되었다, 에덴동산이 복귀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녀가 한 방에서 벗고 산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바알 신의 추종자들입니다. 또 문선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 피를 받는 사람은 모든 원죄가 씻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문선명하고 잔 여자에게 또 다른 남자들이 계속해서 동침을 하는 등의 만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음죄를 지어서 네 번이나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으니 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천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예수를 잘 믿기 전에 노름을 했었습니다. 번연이 노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그런 일하고 천국 갈 줄 아니?”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

람이 그 음성을 듣고 노름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막에 모셔야 하는데 법궤를 기럇여아림에 20년 동안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히 했습니다. 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회개를 강조했고, 회개가 앞설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는 루터가,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가, 영국에서는 웨슬리가, 스코틀랜드에서는 녹스가, 미국에서는 무디가 '회개하라'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을 때 그들은 회개했고, 그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광야 시절 목이 마를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 반석이 갈라지며 물이 나왔고 모든 사람이 해갈했습니다. 영적으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찬송, 감사, 기도를 못합니다. 죄악이 이 반석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인 말씀을 가지고 죄악의 반석을 깨뜨리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수가, 말씀이, 기도가, 감사가, 찬송이, 전도가 나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철인 카다젤은 인간의 모든 행위 중에 회개가 가장 성스러운 행위라고 했습니다. 아일랜드 시인 무어는 "영혼에 깊이 느껴지는 참회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죄인만이 알 수 있는 죄 사함에 대한 최초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시인 셰익스피어는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이며 깨끗한 삶을 수반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죄를 범한 후에 지나친 변명을 하는 것보다 진실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성수만 하는 사람한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와 같이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이면 무슨 일이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약속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6. 번제를 드렸습니다.

9절을 보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 어원에 '올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매일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자기의 죄를 위해 양과 비둘기, 소를 가져다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태우는, 그래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라간다, 바친다 그 뜻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어린 양에 전가하여 불을 붙여 모든 것을 태워버리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즉 헌신을 말합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내 마음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헌

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탐험가 리빙스턴은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체이시여! 나는 다시 한 번 나의 전 생애를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많은 주의 종들도 몸을 드린 것처럼, 저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내 심령을 비춰 볼 때 과거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 한 몸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주의 사역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라고 했습니다.

>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몬 1:11).
>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3).
>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롬 6:17-18).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한 것처

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도, 몸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7. 응답을 받았습니다.

9절을 보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응답하셨더라, 블레셋 군대가 개미 떼 같이 몰려오자 다급하여 사무엘과 백성들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라고 합니다. 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목적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롯을 소돔 성에서 건져주셨고, 기드온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주셨고, 모세가 기도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셨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셨고,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할 때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려 기도할 때 15년을 살려주셨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쏟아지게 되었고, 사가랴가 자식이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아들로 주셨고, 예루살

렘 교회 성도들이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 베드로가 나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8. 크게 승리했습니다.

10절을 보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발하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다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시니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물러갔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6·25때, 남쪽에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벌써 남침하려고 몇 년 전부터 소련에서 탱크, 야포, 잠수함, 비행기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물밀듯 내려오니 부산만 남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한국 없어질 뻔했습니다. 김일성은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아더를 인천으로 상륙시켜서 공산군을 다 북쪽으로 쫓아내고, 아쉽지만 주권을 계속 주신 것은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아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 철학에 승리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기쁨, 안식, 자랑, 생명이지만 전쟁에 지면 수치, 고통, 죽음이라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이 2차 대전이 끝나자 미저리 함상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에 사인을 받은 후 한 첫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남은 문제는 철학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신학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류는 전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보고 대치했을 때 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정치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소생하여 사무엘이 있는 동안 태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미국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니까 저런 말을 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국이 도탄에 빠졌을 때 누가 영국을 건졌습니까? 웨슬리 부흥운동 때문에 회개하고 인간들이 개조될 때 영국이 산 것처럼 미국이 다시 동경의 나라, 자유의 나라로 회복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겸허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 새사람이 될 때만이 다시 위대한 미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큰 성전을 짓고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큰 성전은 2차적이고 우리도 미스바에 모였던 그들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것을 바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먼저 아름답게 지어질 때 이 성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저는 이 성전이 지어질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각 사람이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쓴뿌리가 있는가, 화가 있는가, 유다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밝은 빛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자들과 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써 죄를 사함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자

(마 28:19-20; 행 1:8)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이 말씀의 뜻은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회를 앞두고 "전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전도해야 할 이유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율법의 멍에 아래서 신음하던 그 백성들에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good news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들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을 못 들은 사람에게 전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죄짐을 벗겨내고, 마음에 참 평화를 주고, 영원한 산 소망을 주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만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지구에는 55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까지 기독교인으로 칠 때 15억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으며, 35억 명 정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5억이란 영혼도 사랑하십니다. 요새 항간에 어떤 사람들이 금년 10월달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15억만 구원시키고 35억 명은 멸망시키는 그런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숫자가 차기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셋째,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물론자들은 우리 인간들을 물질로만 해부를 하면 9가지 원소가 나와 9달러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9달러가 아닌 지구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잃어버리면, 집에 불이 나면, 돈을 다 잃으면 새로 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은 돈으로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사람의 영혼은 먹는 것보다도 귀하고, 마시는 것보다도 귀하고, 입는 것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귀중한 영혼들이 영원히 멸망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옥이 어딨냐 하지만, 여러분, 종파마다 교리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삼생이라고 안 합니까? 복중 일생, 현세 일생, 내세 일생입니다. 복중에 사는 일생은 아홉 달 반,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합니다. 우리 죽음은 두 번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한 번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또 하나,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심지 않은 피가 났을 때 당장에 그걸 뽑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 수 있으니 그냥 두었다가 가을에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에, 알곡이 아닌 것은 아궁이에 버리겠다 하십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지옥은 회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물이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타는 곳입니다. 지옥은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저도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제가 1948년 강원도 진북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내 영이 정말 지옥에 가보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 안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겪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이것은 다락방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하러 보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유언입니다. 유언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상명령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도 안 하면 내게 화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20절을 보면,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전도해서 끄집어 내어 살려야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으면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죽은 사람의 피 값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7장 9절을 보면,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

입니까?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인들이 오랫동안 포위해서 성안에 음식이 바닥이 나고 심지어 인육을 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성에서 내쫓긴 문둥이들이 성 밖에 있다가 굶어 죽으나 아람 진에 가서 먹고 죽으나 죽는 것은 똑같으니 이왕이면 가보자 하고 모험을 해서 아람 진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람 군사들이 모두 떠나고 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둥이들은 그곳에서 배를 채우고 온갖 좋은 것들을 챙기다가 문득 성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아람 군대의 위협이 사라졌는데, 여기 이렇게 먹을 것들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그것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 전해야 할 내용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무엇을 깨닫도록 도와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부터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자손 또한 죄악 가운데 태중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과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에 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인간의 타락성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사랑, 두 가지인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해 벌을 내려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볼 때 이들을 그냥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에게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완성, 구속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잘못하면 야단칩니다. 하지만 잘하면 칭찬하고 상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값으로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죄인은 죄인이 건질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죄는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인가요? 예배를 받았고 죄를 사해 주었으니, 자연계를 정복했으니, 창조의 능력을 가졌으니, 죽었으나 부활하고 승천했으니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인간인가요? 여인의 몸에서 나왔고, 젖 먹고 자랐으며 밥 먹고 물 마시고 울고 죽었으니 사람입니다.

신으로만은 인간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성이신 예수는 한편으로는 중보자요, 한편으로는 대속자입니다.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우리 조카 셋과 조카딸 한 명, 모두 네 명이 왔습니다. 왕천이라는 곳에서 애들 넷이 미국에 왔습니다. 이것은 중보자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누이동생이 낳은 아들딸들이기 때문에 그애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누이동생의 자녀들이 아니었으면 애들은 미국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중보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 대신 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양손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가슴에 창을 맞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에 못이 박힌 이유는 우리가 가면 안 될 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다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 비둘기, 소 피만 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흠없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사람마다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은 세 분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피, 국군장병들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 육체를 위해선 우리 어머니가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이 땅에 나왔습니다. 내 정치적인 자유는 군인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 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4-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행함으로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눈으로, 마음으로, 말로 한 번씩 죄를 지으면 1년이면 천 번 이상 죄를 짓습니다. 열 살이면 만 번 죄를 짓고, 50살이면 오만 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공로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행함 없이, 빈손으로 가서 거저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

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치 않은 좋은 것은 아주 비쌉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술 드시는 분들, 아주 고급 술은 한 병에 몇백 불 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향수나 반지 등은 아주 비싸지만 그것이 없어도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태양빛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태양도 거저요, 공기도 거저요, 물도 거저요, 구원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저입니다. 구원은 거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양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와 대속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3. 전도방법

첫째, 간증을 통해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설교한 것은 성경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유대 사람이고 바리새 교인이고 율법을 전적으로 믿던 사람인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 얻어 고민 속에 있었다. 또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밝은 빛이 비추어 꼬꾸라졌는데 그곳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

느냐?' '주여, 뉘시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난 거기서 꼬꾸라져 예수를 믿는데 참으로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이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전도한 것입니다. 전도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설교보다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했다는 간증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여자에게 예수 믿으니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짜증내고, 남편 속썩이고 그랬는데, 예수 믿었더니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전에 있던 못된 것들이 다 없어졌다. 왜 진작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는지 분해 죽겠다'고 했답니다. 이래야 합니다.

6·25전쟁 때 한 청년이 군대에 가서 두 다리에 총을 맞아 다리를 못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장래를 생각하니 너무 암담하여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병원에서 목사가 부흥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나는 전쟁에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장님입니다. 저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영의 눈을 떴습니다. 지금 영의 눈으로 보니 참으로 내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이 다행이었고 죄짓지 않게 되어 목사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은 '저 사람은 두 눈이 없어도 저런데 나는 다리가 없다고 자살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정말 예수 믿고 목사 되어 몇 해 전에 이곳에 휠체어를 타고 와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이애미에 모든 실업인들을 모아놓고 10분 간증했더니 백만 달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간증이라는 것이 전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사랑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 앞에 쓰러지자마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어서 어떤 유다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잘 믿는 아나니아를 보고 "사울이 눈을 못 뜨고 엎드려 있으니 가서 기도해 주고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왔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주님, 듣자 하니 이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인데 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대 크게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눈도 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형제 사울아"라고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기독교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고 주님께 돌아오는 간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초월적인 죽음, 아나니아의 그 사랑,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사울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는 장례부가 있습니다. 어떤 집이 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데, 초상이 나면 그 장례부 사람들이 다 가서 며칠을 같이 먹고 자며 밤을 새우며 장례 뒤치다꺼리를 해줍니다. 그럼 안 믿던 사람들도 그 모습에 감동하여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사랑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서울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웬 비기독교인 고등학교 선생이 날 찾아와 자신이 LA로 이민을 가는데 거기에 친인척이 없으므로 혹시 저희 집 주소로 짐을 좀 부쳐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분이 방을 얻고 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했더니 지금은 이 부부가 집사가 되고 그 자녀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셋째, 성경을 통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어느 감옥에 큰 죄수 하나가 들어가 앉았습니다. 누가 성경을 하나 가져다 주었는데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료하여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한 구절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 구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모범수가 되어 복역도 빨리 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언젠가 그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든, 안 믿든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뿌려 놓으면 언젠가는 싹이 트고 자라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넷째, 데리고 와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12절을 보면, 네 사람이 먼저 예수 믿고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받고 병도 치유받았습니다.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친구 하나가 반신불수로 오랫동안 고생하니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렸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워 있는 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데리고 와야 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오지 않으니 새벽기도 나올 때 남편의 고무신을 교회에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신발을 찾으니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나 생각해 보니 아내가 신발을 가지고 교회에 간 것 같아 신발을 찾으러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 아내가 "아버지, 제 남편이 교회에 안 나와서 일단 신발이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남편이 감동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병자가 있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니면 교회라도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야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4. 전도자의 자세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가 판단하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모든 원수들이 전도를 못하게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아주 담대히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봤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모범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이북 유치장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기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 것은, 저에게 형이 넷이 있었는데 그중에 넷째 형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 생활이 너무 깨끗하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정치가, 혁명가, 높은 군인들 다 쫓아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겉의 생활과 안의 생활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형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구나, 형님과 형수님의 생활이 소설에 나오는 아주 이상적인 캐릭터의 생활과 같아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로구나'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범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셋째, 성경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 성경대로 전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베델성서, 크로스회, 제자훈련, 전도폭발, 성경통

신, 비디오성경학교,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자기가 배웠던 신학 철학을 가지고 전도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공부해서 전도할 때 사람의 말 가지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이 성경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7절을 보면, 99마리 양보다도 잃은 양 한 마리를 귀히 여기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사랑하고, 병자를 사랑하고, 부도덕한 여자를 사랑하고, 강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조금 삐뚤어진다 해도 끝까지 이해하고 눈물 흘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자녀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속썩인다고 나무라고 역정을 내고 심한 말을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저 참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뜨겁게 사랑하면 언젠간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부랑자 아들을 위해서 울던 모니카와 같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18장 22-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나이까? 그중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유황불로 불태운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살려주겠다 하셨으나 50명이 없었습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도 없어 그 성이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과 손녀딸 두 명을 구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10년 만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한 사람 건졌다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5. 전도의 결과

첫째, 전도의 결과로 영혼과 육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11-12절을 보면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을 보면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옥사장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이때 졸다 깬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죽으려고 하니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들에게 엎드려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나요?" 하고 물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예수를 믿고 집에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가정들이 흔들리죠. 우리 한인 가정들도

흔들리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을 잘 지키고 성경 읽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잘 믿으면 절대로 가정이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집사람하고 43년을 살지 못하고 벌써 헤어졌을 겁니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거나 우리 집사람이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43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건 십자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집, 주일 잘 지키는 집, 가정예배 드리는 집, 성경 읽는 집은 절대로 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민족과 국가가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구촌을 여러 군데 다녀보았습니다. 동남아, 소련,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칸디나비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을 다녀보았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유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 이슬람교의 나라, 또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낙후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나라를 다녀보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비교적 잘삽니다. 복음을 전해야 그 민족과 국가가 잘살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5절을 보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

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잃었던 양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잃었던 보물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잃었던 자식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라고 합니다. 한국에 정말 많은 이들이 와서 전도하였고 그들의 이름이 빛나고 있는데, 이유는 그들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까닭입니다.

친애하는 성도들이여, 4월 2일부터 우리 교회가 성회를 갖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한국과 미국에 오셔서 아주 지정석이고 영적이며 현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말을 꼭 전하는 귀한 인물입니다. 부산에 가서 17년도 안 되었는데 장년회만 만 명, 대교회로 성장시킨 좋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참석하셔서 꼭 은혜 받으시고, 안 믿는 사람을 여기까지만 데려오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구원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득이 집회에 못 나온다면 무슨 일이 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보라

(요 1:43-51)

예수님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준비하고, 때가 되매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기도하다가 경제적인 시험, 정치적인 시험, 종교적인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전도하신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 벳새다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빌립이라는 청년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보니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활과 그분의 능력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인격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말하고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했더니 나다나엘이 아주 무시하고 냉소하고 전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빌립은 다른 말로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와 보라” 그 한마디로 전도했습니다. 무슨 신론을 말하거나 인간론을 말하거나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이런 변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며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도에 가장 명확하고 가장 실질적이고도 가장 웅변적인, 가장 적합한 전도의 구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잔치를 한 주 앞두고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방법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와 보라”라는 단순한 방법을 전하려 합니다. 이것은 성경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리, 생명, 능력이 있고, 이것은 살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와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잔치는 돈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사유로 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도둑맞아 실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잠시는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론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22년 만에 많은 기도와 거듭된 회의 끝에 우리가 잔치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만오천 명을 초청한다 하니 어떤 사람들은 막연한 이야기라고, 천문학적 숫자라고 걱정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의 어떤 여집사님은 환갑이 넘으셨는데 400명 이상에게 초청장을 배부했고, 80이 넘은 장로님은 700명 이상 초청을 하셨고, 어떤 집사님은 900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계로는 초청된 인원만 8,180명입니다. 이제 800여 명만 더 하면 만 명이 초청됩니다. 우

리 교회 장년부가 배당받은 게 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년들이 주일날 등록신자는 더 많지만 출석하는 게 보통 2,000명이니 한 사람이 다섯 사람씩만 하면 만 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본인이니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한 군데 갔더니 일곱 사람이 초청을 기쁘게 받으면서 꼭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못한 분은 이 한 주간 동안이 기회입니다. 제가 엊그제 총동원 토요일 새벽에 말했습니다. 불타는 소원성취를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 마음이 불붙어야 하고,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전도 못하신 분은 여러 말 마시고 "와보라"라고 말씀해 보세요. 영어로 말하면 "Come and see"입니다.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 덮어놓고 그냥 와보라고 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사람들은 궁금하니 꼬치꼬치 알고 싶어합니다. 그럼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아까 말한 만 명은 우리 장년에서 책임지고, 오천 명은 유년부에서, 대학부와 영어부 청년 남녀들이 오천 명을 책임졌습니다. 그것도 문제 없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 끝마치고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하는 시처럼 우리 인간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이 정당하고, 그 뜻이 이 사회 시점에서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꾸 와 보라고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에겐 네 가지를 말하시면 됩니다.

첫째, 러시아 모스크바 음악 대학생들을 보러 오라고 하세요.

한 3년 전만 해도 소련의 모스크바 음악과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국말로 노래 부른다는 것은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분들이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사실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초정장을 보냈더니 소련 모스크바 미 대사관에서 우리 교회 실적을 알기 때문에 비자를 내주어서 이미 뉴욕 동부에서 순회 중에 내일 여기 그 학생들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한 시간은 오로지 그들이 음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유는 7월 19일은 여러 사람들이 순서를 맡아 나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니, 많은 경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오는 사람들에게 10분 주는 것이 아까워서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그들을 중심해서 찬양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땐 초청한 분들 데리고 오지 말고 여러분이 나와서 들으세요.

제가 지난 4월 모스크바에 가서 그들이 찬양하는 것, 복음성가 부르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국말로 노래하는데 '참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미 큰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한국말이 배우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공산주의에서 20여 년 동안 배운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한국말로 찬송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말 배워서 한국 찬양과 민요를 와서 부를 때, 얼마나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다른 것보다 '한국 문화가 외국에도 뿌리 내려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스크바 음악 대학생들 얼굴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찬양을, 그들의 노래를, 그들의 신앙고백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가수, 윤복희 씨를 와서 보라고 하세요.

저는 여태 윤복희 씨를 사진으로만 봤지 실물로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윤복희는 정상급의 음악인이라고 합니다.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음악의 은사를 주셔서 소리도 아름답고 성량도 풍부하여 한국에서 윤복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 지구촌을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분이 1976년 2월 28일 후두암으로 죽게 되는 사형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1981년 자궁암으로 생명이 위급했는데 병원에 가니 의사가 5분만 늦게 왔어도 죽을 뻔했다고 하더랍니다. 거기서 나음을 받고 감격을 하여 이제는 내가 죽은 몸인데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 여생을 보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세상 노래는 이제 그만 부르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과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듣는 사람마다 눈물 흘리고 예수를 믿고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노래도 잘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씻어 주시어 구원을 받아 구속에 감격해서 성령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분명히 안 믿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92년 척추 디스크가 생겨 두 팔을 움직이지 못해 커피잔조차 들지 못했는데 기도로 고쳤답니다. 이 일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한국, 일본, 전 세계에서 예약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간청을 했답니다. "많은 교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와서 노래로써, 당신의 신앙 간증으로 그들에게 위로,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며칠 기도한 후 오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피아니스트도 따라옵니다. 그분이 부르는 노래에 감정을 맞추어 연주를 하기 때문에 같이 옵니다. 장단이 맞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지도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총 세 분이 오

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분에게 들어가는 경비 모두를 책임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모로 많이 수고하시고 지난번에도 8만 불 경비가 드는데 보니 여윳돈은 만천 불 정도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하면 부담이 될 거 같아 기도했더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십시일반 모아 거의 경비가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윤복희 집사님이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성경을 보면 찬송은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신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찬송과 경배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으신 것은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소나 말, 개, 돼지는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찬송가 해설자인 김경신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가정의 자녀들 중에 잘못된 자녀가 없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 중에 뜨겁지 않은 교회가 없다. 교회에서 찬송소리가 멎는 순간부터는 인간의 소리가 높아지고, 그런 교회들은 잡음으로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없다.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가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간구를 노래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4-35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큰 핍박을 받아 매를 많이 맞고 옥중 깊은 데 갇혔고 양손엔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은 설교 못지않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보통때보다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가을밤 기러기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름밤 두견새와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들립니까?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암몬 병장들과 군대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제사장들이 그 나라의 성가대들을 목욕시키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놓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이때, 그 적군들이 다 패망하고 죽고 나머지는 도망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이라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모스크바 음대생들, 윤복희 집사님을 모시고 찬송 불러서 LA에 있는 마귀를 모두 쫓아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킴스브라더 중의 한 사람인 김영일을 와서보라고 말하세요.

저도 김영일 집사님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킴스브라더 이 3형제가 라스베이거스에서도 하지만 전 미국, 한국, 일본 사방 다니면서 복음성가를 불러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의 간증,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했다는,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인생관이 달라진 그 간증을 와서 할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것은 설교보다도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설교에는 추상적인 얘기, 관념적인 얘기, 제3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내게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며 설교한 것을 보면 신론,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 이런 것들보다도 자기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1절을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며 기독교를 핍박했다. 살인도 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밝은 빛에 내 눈이 어두워지고 꼬꾸라졌다. '어찌 나를 핍박하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그가 누구인지 물어봤다.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주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주는 나에게 다메섹 동네에 들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셨고, 그가 나의 먼 두 눈을 다시 밝게 하였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방에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방 전도사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니 많은 사람이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간증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잔치를 앞두고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주 일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도 간섭하지 않는데 이런 거 다 머리를 짜서 계획을 세우는데, 거의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분들, 영락교회 장로님, 미션힐교회에서 김 사모님 모셔오고, 침례교의 엄지숙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모두가 힘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제 병원에 가면서 신학교 다니는 여집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 집사님이 "저는 만오천 명을 초청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방법도 없고 용기도

안 났는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힘을 얻어 몇백 명 초청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감동을 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용기를 줍니다. 김영일 집사님이 와서, 또 김차순 집사님이 아름다운 찬양도 부르지만 간증도 할 것이니 와서 이것을 보라고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를 와서 보라고 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와서 보라."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히틀러를 만난 이들은 다 망했습니다. 스탈린을 만난 측근들은 다 망했어요. 무솔린 만난 사람들도 다 망했습니다. 머지않아 김일성을 만난 이들도 다 망할 거예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 가치관, 인격, 생활, 신앙,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잘 만나야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이라는 좋은 신하를 잘 만났기 때문에 7년 흉년에도 끄덕 없이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만약 요셉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 굶어 나라가 멸종했을 겁니다.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만나서 7년 흉년을 내다보고 7년 풍년 때 양식을 저장했다가 그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살렸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늘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승만 씨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마지막에 그 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방여자 룻은 시어머니를 잘 만났습니다. 청상과부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네가 어떤 이를 만나 그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보아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어 아내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손자

가 나오고, 예수님이라는 손자가 나와서 이방여자가, 개로 취급당하던 여자가 족보에 올라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것처럼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잘 만나야 합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잘 만나야 하지만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잘 만나야 합니다.

다윗은 친구를 잘 만났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지만 요나단을 잘 만나 출세를 해 유대 나라 임금이 되어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분명히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과 교제를 해보니 다윗의 모든 것이 본인보다 출중함을 보고 '이 백성은 이 사람이 다스려야겠구나' 생각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미리 알려줘 살려주고, 자기는 죽게 되어도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한 친구였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은 많은데 저마다 다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뒷전에서 밀어주고 자신은 물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친구를 잘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이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계집종을 잘 만났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병에 직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명예, 지위,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그 집에 유대 나라에서 전쟁포로로 잡혀온 어린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주인이여, 이스라엘 내려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분께 찾아가면 그 병 고쳐질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고, 요단 강물 속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계집종도 잘 만나야 합니다.

시몬은 예수라는 분을 잘 만났습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대대로 고기 잡는 어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이름이 베드로로 변하고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고기 잡다 죽어 고기 뼈처럼 없어질 인물이었는데 예수 만나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혈루병 여자도 예수 만나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은 로마세관에서 일하는 매국노였습니다. 이 사람은 개로 취급당하고 재판소에 증인으로도 서지 못할 자였습니다. 사기, 횡령, 독직 이런 사람이 예수 만나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쓴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신구약이 없어져도 마태복음 5, 6, 7장은 남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보석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고등학생 둘이 하교하는 길에 극장에 가기로 합니다. 가는 도중 노방전도를 목격합니다. 그래서 학생 하나가 교회에 가겠다고 돌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생 하나는 교회, 학생 하나는 극장에 갔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한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사형선고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문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노방전도할 때 예배당 가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클리블랜드입니다. 지금 오하이오 주의 클리블랜드 도시 이름은 대통령 이름을 딴 것입니다. 사형수가 신문을 보면서, '내가 그때 교회에 갔더라면 내가 대통령은 못 되어도 오늘 이 꼴은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교회에 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한국의 유명한 박재봉 목사님이 88세에 돌아가셔

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양력을 듣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박재봉 목사님은 유명한 박재훈 목사의 형님입니다. 이분이 강원도 풍천 분입니다. 아주 성격이 괄괄하고 다혈질이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참외를 좀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면 밤에 발가벗고 가서 참외 뿌리를 다 뽑아 놓는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세에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1943년 강원도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겨울에 기도를 하는데 따뜻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호랑이가 나타나 몸을 덮어주는 신비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설교를 51,390번을 하였고, 부흥회를 1,552번을 했고, 315,572명의 결신자를 낳았습니다. 신유로 병자들을 8,757명을 치유하였습니다. 박 목사님 설교를 듣고 헌신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52명이고, 자기 문중에도 목사가 14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괴팍하던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한국의 세례 요한, 선다싱, 웨슬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와 보라”라고 확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대는 문제가 많은 시대입니다. 백인, 흑인, 한국, 일본, 북한 문제 등등, 가정적,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내가 병자를 고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이 먼저 살면 육체도 삽니다. 육체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영혼이 더 급합니다.

LA폭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백인들이 200년 전에

노예 데려다 부려먹고 죽이던 죄, 지금의 인종차별 죄, 한국사람들도 흑인들을 멸시하고 편협하고 교만하고 불친절한 죄 때문입니다. 흑인들도 죄 때문입니다. 게으르고 도둑질하고 시기하는 죄입니다. 오늘 개인, 가정, 사회,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정치, 과학, 군사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남은 기간, 한 주간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와 보라"라고 전하십시오. 모스크바 음대생들의 그 찬양을 와서 보라, 윤복희 집사를 와서 보라, 김영일 집사를 와서 보라, 나사렛 예수를 와서 보라고 전하십시오. 7월 19일 잔치에는 1부부터 6부까지 교회당이 차고 넘치도록 모여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롬 10:9-15)

교회가 신령한 잔치를 배설코자 합니다. 성도들의 단결을 도모하자는 것과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의 실습을 해보겠다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세 가지의 큰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지만 오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유목민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양을 칠 때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독사의 위험, 맹수의 위험, 강도의 위험, 푸른 초장도 별로 많지 않고, 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산을 넘고 골을 지나 찾아나서야 합니다. 양들은 아주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 못 찾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자가 양을 몰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치러 멀리 나갔다가 그 들판에서 양과 같이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 양은 잠을 자지만 목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갈는지, 언제 강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무기는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늑대의 울음소리는 목자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만일 양 하나를 잃어버리면 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양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야 합니다. 혹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책임을 추궁 받습니다.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면 그 가죽 껍데기나 뼈를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목자의 사명이요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혹 양을 몰고 동네로 들어올 때 양을 세어보니 한 마리가 모자라면 그 양을 찾으러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은 그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목자가 양을 가지고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목자와 양을 환영합니다. 이 모습이 잃은 양을 찾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잃은 양을 다시 찾을 때의 목자가 누리는 기쁨, 동네 사람의 기쁨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잃은 양

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잃은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10절을 보면,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은 기쁨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농가는 조그맣습니다. 방바닥에 흙을 바릅니다. 갈대를 깝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하루 품삯인 이 은전 한 푼이 가난하던 그 당시에 얼마나 귀중한 돈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은전을 잃어버리면 찾아야 하는데 그 당시 농가의 방에는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낮에도 햇빛이 환하게 비치지 않기에 그 은전을 방에서 찾는 것은 풀더미 속에서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다 헤쳐야 합니다. 그때 그것을 찾으면 그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찾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그 당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 풍속은 처녀들이 출가하기 전에 은 열 개를 모아 목걸이를 하고 머리에 장식으로 두르기도 하는 결혼 예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열 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고, 그것을 찾으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 그 여인이 갖는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은전 한 닢에 비하겠습니까?

셋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탕자가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한 영혼

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모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큰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고, 작은아들에게는 한 몫을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재산의 3분의 2는 큰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은 작은아들에게 주는 것이 법입니다.

이 작은아들은 집에 있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형의 간섭,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아버지께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선한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머지않아 다 까먹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아버지는 아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멀리 갔다고 했습니다. 나쁜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여자들과 춤추고 뒹굴다가 다 써버렸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샘솟듯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바닥이 났습니다. 주머니에 일전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외면합니다. 사랑한다던 여자들도 그를 외면합니다. 객지 나가서 돈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하나 잡았는데, 부잣집의 돼지를 돌보는 것입니다. 끼니 때가 되었건만 주인은 밥 먹으러 오라는 말도 안 하고 먹을 것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주인더러 항의했더니 돼지 먹는 밥이라도 먹으려면 있고, 싫으면 가라고 합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돼지 쥐엄 열매를 먹어 보니 깔깔하고 시큼하고 떫고 맛도 없고, 영양분도 없고, 설사가 나오고…. 이게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의 종국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이 아들이 고생이 극에 달하자 반성을 합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

는 반성이 별로 없습니다. 편안하고, 잘되고, 칭찬받을 그때가 오히려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목동 때는 신앙이 좋았다가 임금 되어가지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삼손도 무명일 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천하영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니 타락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가졌던 신앙과 지금 이 편안할 때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의 신앙이 예전과 비교해 더 형편없다면 성공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실패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므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그 고난의 극치 속에서 비로소 반성을 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구나. 돌아가자. 아버지는 지금도 부자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품꾼으로 써달라고 간청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춘하추동 사철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저 언덕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데, 걸음걸이는 달라보여도, 옷은 화려하지 않지만 자기 아들 같습니다. 그냥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옷은 돼지 우리에서 냄새가 배고 수척한 아들의 모습이지만 그냥 끌어 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비빕니다. 아들의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꼬락서니 좋구나. 뭐하러 오느냐? 너 몇 푼이나 남겨 가지고 오느냐? 저 개울 가서 목욕하고 오너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이 밭에 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한 머슴을 불러 묻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러느

냐?" "작은아드님이 오셔서 송아지 잡고 잔치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봉양했는데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저놈이 창기에게 가서 돈 없애고 집안 망신시켰는데, 저놈한테 송아지 잡아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던 자가 살았고, 잃었던 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내 것은 네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기 '죽었던 자'라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잃은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2.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죄를 사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했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칸트는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에는 반짝이는 도덕률, 양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

를, "물고기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요, 뛰는 사슴이 가시덤불 불 속에서 타는 것보다도 더 괴롭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잡니다. 양심이 불편하면 잠도 잘 못 자고 잘 못 먹고 마릅니다. 뇌성벽력이 나면 꼭 내 머리에 떨어질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의 양심입니다.

죄라는 것은 고착성이 있어서 착 달라붙습니다. 죄는 발육성이 있어서 자라납니다. 죄는 방해성이 있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축복을 방해합니다. 죄는 파멸성이 있으므로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보따리가 떠납니다.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육체의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살지만 육체도 삽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폐가 나빠서 검사를 하니까 폐 하나가 깊이 썩어서 그걸 하나 떼어내 버렸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가서 요양을 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며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오래 살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신을 생각해도 내 나이 한국 나이로 71세라고 하는데,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건강을 가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 믿으면 건강의 축복도 받는 줄 믿습니다.

셋째,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행복이 있다면 건강한 것이 첫째 아닙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래 살기 원합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 한국 땅까지 사신들을 보내고 이슬을 받아 먹으며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오래 살기 원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인생의 4대 본능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 자유로운 것, 사랑받고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먹는 것은 땀을 흘려야 하고, 사랑받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고, 자유는 투쟁을 해야 얻고, 오래 사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느냐? 한 시간의 행복을 원하거든 이발소를 가고, 하루의 행복을 원하거든 목간통에 가고, 일주일의 행복을 원하거든 결혼을 하고, 한 달의 행복을 원하거든 새 차를 사고, 1년의 행복을 원하면 새 집을 짓고, 일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고, 영원의 행복을 원하거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행복을 갖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먹어도 행복, 굶어도 행복, 맞아도 행복, 감옥에 가도 행복, 사형장에 끌려가서 마지막 순교하면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마지막 임종을 보면 압니다. 죽을 때 안 믿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이를 부드득부드득 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 죽고 나니가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물이 관에 줄줄 흐릅니다. 제가 잘 믿는 분을 보니까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찬

송하면서 평안하게 가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초조와 고통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해줍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3. 복음을 전함으로 나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얻은 유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빚진 것을 갚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지고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에게도 빚진 사람이요, 이웃에게도 빚진 사람이요, 사회에도 빚진 사람이요, 나라에도 빚진 사람이요, 하나님께도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 옷의 옷감 짠 사람에게도 빚진 자요, 식탁을 놓고 보면 어부들과 농부들과 노동자들에게 빚을 진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이 모든 태양, 공기, 오곡 백과, 물, 그보다 더 독생자를 거저 주셔서 예수님을 날 위해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빚은 복음을 전함으로 갚는다고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

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라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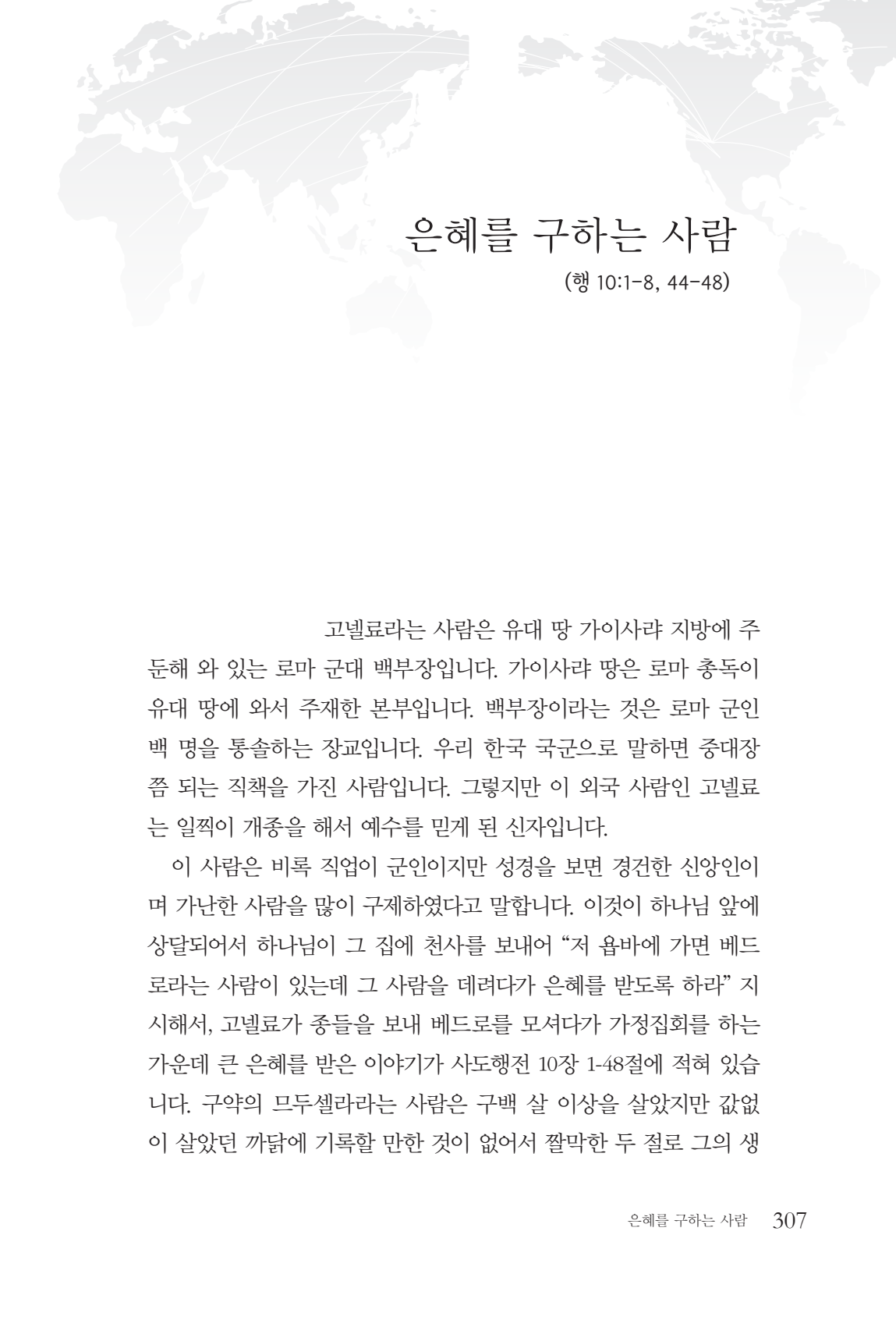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니까 빚을 진 사람은 빚진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빚진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합니다.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도망갑니다.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빚을 하나님 앞에 졌는데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빚진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둘째, 상급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20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자신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주인이 멀리 가면서 각각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하여 주인이 왔을 때 배를 남겨가지고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 더 벌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함께 들어와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여 그 주인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하다간 까먹을 것 같아서 땅속에 파묻었다가 본전 가져왔으니 받으십시오"라고 했더니 주

인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왜 그걸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보태가지고 오지 못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있는 돈을 빼앗고 저 성 밖에 내쫓아 그 종이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처럼 주님을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여러 가지 은사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몇 달란트를 남겼는가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전도해서 믿은 사람이 열 사람 됩니다. 스무 사람 됩니다. 두 사람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 몇 사람 전도했느냐?" 하시는데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그저 저 하나이니, 본전 받으세요"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까지 몇 명을 전도하였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한 분도 전도 못했다면 어서 전도해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너 몇 사람이나 예수 믿게 했느냐?" 그거 하나 물어보신고 합니다.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마 유대 나라 에스더, 프랑스의 잔다르크, 한국의 유관순은 그 나라의 애국 여성으로 나라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웨슬리, 리빙스턴,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무디, 빌리 그레이엄, 이성봉 목사님이 기독교계에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은 참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진다는 것은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물에 잠기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원을 요청하는데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지켜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이빙을 해서 건져오는데 사람은 건져오지 아니하고 돼지 하나를 건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웃을 자격이 있습니까? 영혼을 건지십시오. 기도하고 찾아가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자신에게 있어 한없는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

(행 10:1-8, 44-48)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 땅 가이사랴 지방에 주둔해 와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 땅은 로마 총독이 유대 땅에 와서 주재한 본부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 백 명을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우리 한국 국군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외국 사람인 고넬료는 일찍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직업이 군인이지만 성경을 보면 경건한 신앙인이며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집에 천사를 보내어 “저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은혜를 받도록 하라” 지시해서,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다가 가정집회를 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1-48절에 적혀 있습니다. 구약의 므두셀라라는 사람은 구백 살 이상을 살았지만 값없이 살았던 까닭에 기록할 만한 것이 없어서 짤막한 두 절로 그의 생

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이 이방 사람인 군인 고넬료는 신약 사도행전에 긴 장을 남겨 놓았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승지에 가보면 바위나 무슨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 놓은 것을 많이 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수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주부터 있을 성회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넬료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결단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기적을 믿는 종교이지만 모든 크고 작은 기적의 배후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는 까닭에 기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자리를 잡았다, 성공을 했다고 할 때 그거 그냥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했던 피눈물 나는 노력, 밤잠 안 자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초인적 노력으로 인해 오늘 그만큼 기반을 닦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저 횡재를 만나서, 팔자가 좋아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원인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찾아봅니다.

1. 기도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

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항상 부지런하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절제 있는 생활을 하고, 항상 낭비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항상 방탕하지 아니할 때에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넬료가 은혜 받은 것은 급할 때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필요한 때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간에 매인 직업입니다. 계급에 매인 직업입니다. 환경이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러한 직업,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기도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백절불굴의 신앙의 사람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임금 이외에 다른 곳에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하면 잡아 죽인다는 임금의 특명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이층 들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든지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개인의 부흥이나 교회의

부흥에는 먼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 없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29절을 보면 모세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모두가 그 앞에 고꾸라졌다고 말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면 엘리야가 은혜를 많이 받아 가지고 크게 역사를 했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40일 밤낮 시내산을 향하여 걸어가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열흘 동안 밤낮 금식하며 항상 힘써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동서사방으로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은 자연계를 정복하십니다. 그분은 마귀를 이기십니다.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물 위를 걸어도 가십니다. 이런 능력의 주인이지만 예수님도 이 세상의 공생애에 나오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능력을 얻어 가지고 구속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2천 년 동안 개인 부흥, 교회 부흥은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거나 아니면 교회에 모여 합심 기도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2. 성령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본문 5-6절을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이렇게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를 받았습니다. 영음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를 항상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너는 사람들을 보내서 저 욥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에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날 때 그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인 평신도입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다 내놓으면서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한창 불이 붙는 가운데 성령께서 "빌립아, 너는 예루살렘 남쪽 가사 광야로 가거라" 하신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 누가 있다고 가라 합니까? 집 한 채, 사람도 하나 없는 곳에 왜 가라고 하십니까?" 하며 반문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진실된 종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언반구 대꾸도 없이 바로 떠났습니다. 가보니까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금 남쪽

을 향해 내려가는데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적어도 한 사천 리가 넘는 거기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구스 내시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자 그가 은혜를 받아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임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탄성을 지르며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피차에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5세기의 어거스틴을 말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 교리를 최초로 조직적으로 세워놓은 사람이고, 성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타락했을 적에는 천하의 탕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보다 오히려 더 타락한 탕자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 그래도 어려서 어머니와 같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있어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고 늘 가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밀라노 공원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들어 읽어라. 들어 읽어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펼치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렇게 타락해 있는 어거스틴에게 너무도 적절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

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그 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가슴을 퍽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돌이켰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께로 돌아갔습니다. 모니카의 눈물겨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됨으로 성령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돌아선 것이 아닙니까?

사무엘상 3장 4-10절을 보면 어린 소년 사무엘이 성전 법궤 옆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달려가 "저를 부르셨습니까?" 묻습니다. "아니다" 또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음성을 듣고 물어봐도 아니라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누가 그렇게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눕는데 그때는 두 번 정도 더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명의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길선주 목사라고 하면, 김익두 목사님과 함께 두 기둥인 유명한 부흥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좀 내가 큰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겠다 해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고 세 번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히 그 믿음이 확고해져서 크게 한국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사

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북 공산당 감옥에서 사형선고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너는 나의 일꾼이 되리라" 이 세 마디가 제게 평화를 주었고,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게 해주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3.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 24절과 25절, 33절, 그다음에 48절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고넬료가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48절 하반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 네 구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가까운 친구를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나 하나만 은혜 받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잔치를 할 때에 이웃집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떡, 생명

수, 영생하는 말씀을 자기 혼자만 들어서 혼자만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 48절을 보면 베드로가 떠나려고 하는데 며칠만 더 있다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울지 않는 애 젖 주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뭐든지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그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헐떡거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을 보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사의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불러서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들려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분이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기 전에 저분이 받았던 은혜를 내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당신이 받은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고 간청합니다. 엘리야가 길가에 가면 길가로 따라옵니다. 엘리야가 벧엘로 가면 벧엘까지 또 따라옵니다.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옵니다. 요단으로 가면 요단까지 따라

옵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다가 자기가 입은 권능의 두루마리 옷을 떨어뜨려 줍니다. 이걸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요단 강이 갈라지고 갑절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를 받으려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저기 가면 저기 따라가고, 이건 뭐냐 하면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스운 얘기이지만 용서하세요. 이 젊은 사람들 둘이 좋아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자 쪽이 그만두든가 남자 쪽이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봐가지고 인간성이 괜찮고 신앙이 괜찮고 장래성이 있으면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그저 부모님도 설득하고 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니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뭐가 될 텐데, 그저 몇 번 하다 누가 좀 반대하고 그러면 그만둡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부정적입니다. 그저 따라다니면 돼요. 그저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은 이 말 듣고 따라다니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했으니, 야곱이 얍복강에서 은혜를 받은 것도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4.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34절부터 43절까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전까지는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의 집에 가질 않았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들만 참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군인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더러운 짐승 네 발 가진 것이 우글거리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걸 먹는 것은 그만두고 보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하십니다. "아,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왜 내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부정하다 그러느냐?"

이방 사람들이 부정한 것 같지만 너는 그에게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들어가서 거기서 체계 있는 설교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저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지만 이 이방사람에게 처음으로 베드로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인데 몇 가지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분은 성령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다. 그분은 많은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신 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예수

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아주 조직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에 복잡하다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줄이면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베드로가 처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 첫 교회가 뭐냐 할 때 안디옥 교회라고 보지만 그게 아닙니다. 고넬료의 집이 이방 사람으로 처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처음 교회는 골방, 사랑방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전해줄 때에 고넬료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해방을 받아 조국에 돌아와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힘써 재건하였습니다. 그런 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서기관 성경학자인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해석해 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면서 회개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7세기에 영국을 흑암과 절망에서 끄집어내고 살려낸 웨슬리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올더스게이트 조그마한 교회에 참석했다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불을 받아 영국을 살리고 감리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에 빛을 던져준 웨슬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1907년을 말하지 않습니까? 평양에 모인 신자들이 저 중국에 있는 하디 선교사가 은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사경회라고 말합니다. 아침에도 성경, 새벽에도 성경, 낮에도 성경, 저녁에도 성경, 모일 때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 사경회를 하다가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이 거리로 나와서 전도하고, 한국 제주도까지 복음이 그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 건강한 부흥, 성서적 부흥은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서적으로 볼 때에 불건전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한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구름기둥을 낮에 보았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나왔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지만, 저들은 다 광야에서 까마귀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끝까지 믿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걸 보면 그렇게 뭐 방언이 중요하고 뭐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한 번 가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사람은 병 걸리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병이 마귀의 역사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생활을 하면 온다, 과로하면 오는 것이다, 물론 죄값으로도 오고 또 마귀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채찍으로도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겨울에 얇게 입고 바깥에 있었는데 감기 들면 그것도 마귀 때문입니까? 그러면 모든 믿는 사람이 목사님, 장로님, 부흥사, 신자들도 마지막 한 번은 떠나는데, 예수 죽도록 믿다 마지막에 마귀 때문에 죽는 겁니까?

우리 건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 인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혀와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본체는 하나이지만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는 목사로 나타납니다. 집에 가면 남편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시아버지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장인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할아버지로 나타납니다. 내 몸은 하나이지만 그 장소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에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니, 자기들은 처음 듣는 말이라고 성령이 뭐냐고 되묻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일곱 시대를 닮지 않아요? 무지시대, 양심시대, 권세시

대, 허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시대, 지금은 은혜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은 천년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시대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어야 하지요. 지금 상투를 틀고 나막신 신고 다니면 되겠어요? 성경도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은 성부시대예요. 사복음은 성자시대예요.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령시대예요.

이 성령시대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주를 주라고 못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지만 성령을 못 받은 까닭에 그때까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그저 혁명가로만 알았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야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성령 받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가들입니다. 성경학자들입니다. 제사장 아닙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학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강도는 놔주고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못 박았어요. 성령 못 받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진짜를 버립니다. 오늘도 교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가

열립니다. 성령 못 받으면 교만, 시기, 질투, 음란, 악덕, 살인, 강도, 물욕 이런 더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성령 받아야 담대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절을 보면 성령 받아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불 세례를 받으면 마음속의 좋지 못한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 받으면 새사람 됩니다. 불 받으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불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자동차도 불이 붙어야 가는 것처럼, 기차도 불이 붙어야 많은 무거운 짐들을 끌고 언덕을 넘어 가는 것처럼, 기선도 불이 붙어야 파도를 헤치고 가는 것처럼, 비행기도 불이 붙어야 날아가는 것처럼, 로케트도 불이 붙어야 저 달나라에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야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빛으로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의롭게 살려고 백 번 맹세해도 소용이 없어요. 불을 받아야 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해마다 창립 때가 되면 기념성회를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서울에 계신 정진경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은 서울신학대학교를 저보다 1년 먼저 나오신 선배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와서 아주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풀러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서울신학에서 교수로, 대학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신학을 많이 오랫

동안 가르쳤습니다. 현재는 신촌성결교회 당회장입니다. 지적이면서도 영적인 분이십니다.

한국의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아주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60대인데 인생 경험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공산당 맛도 보고, 단맛, 쓴맛 다 본 분입니다. 자녀들도 많이 길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분이 일생 동안 자기가 공부하고 또 인생 경험한 것을 닷새 동안 여기 와서 다 여러분에게 논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이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병들었다면 아무리 직장에 가고 싶어도, 사업하고 싶어도 병원에 가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영혼이 병들었다면 우리는 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 와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네 가지를 다 잘한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몸도 건강해야 하고, 자식들 공부도 잘 시켜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영혼이 잘되는 이 네 가지가 충족될 때, 참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도 튼튼하고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장사도 잘해서 돈도 벌었는데, 영혼이 병들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안 왔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금년에 못 받으면 내년에 또 있겠지' 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이 있다고 생각 말아라, 오늘 밤 네가 벗어 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 못 신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여러분은 고넬료와 같이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좀

두세요, 더 자게" 그러지 말고, 성령에 순종하고, 더 사모하여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맨 앞자리에 와서 목사님 얼굴 뚫어져라 보면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닷새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온다면 분명히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갑절의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새사람 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민 사도행전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써놓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끝까지…

검은 대륙은 부른다

(마 25:31-45)

"검은 대륙은 부른다"는 제목을 가지고 금년도 마지막 제3차 선교여행에 대한 보고를 여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 조왕화라는 아프리카를 다녀온 한 형제와 또 몇 분들이 사전의 예비지식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외화 사정과 치안상태가 좋지 못하니 가급적 현금을 가져가지 말고, Travler's check나 아니면 비자카드를 쓰라고 했습니다. 공항 출입세관 관리들의 횡포가 심하니 미리 5불짜리, 10불짜리를 여러 장 준비해야 출입의 도모가 편리하다고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물로 줄 돈을 준비해 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풍토병이 심하니까 황열(Yellow fever) 주사를 반드시 맞고 가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주사를 맞지 않으면 비자를 주지 아니합니다.

또 LA 영사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사전에 아프리카에 전화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도착하는 대로 그 나라의

대사관에 통보하는 것이 신변에 이상이 있을 시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호텔은 비싸지만 가급적 좋은 호텔에 들어가야 음식이라든지 모기라든지 도둑 맞는 일이 덜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무겁지 않은 음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는 더위 관계로 은행이든지 여러 기관의 영업시간이 다르니 사전에 알고 가야 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분이 말하기를 꼭 모기장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모기기피제를 뿌리고 자고, 그리고 택시를 타거든 북 대사관이 한국 대사관보다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 그 택시 운전사들에게 대사관 가자고 하면 북 대사관으로 끌고 갈 때가 종종 있으므로 꼭 남쪽 대사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타고, 가서도 분명히 깃발을 보고 들어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나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젊은 영국 청년은 선교사가 되어서 120년 전 교통이 불편한 그때에 그 나라에 걸어 들어가서 두 번이나 대륙횡단을 하면서 탐험도 하고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었고, 슈바이처도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가 거기 시체가 묻혀 있지 않은가,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남녀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 선교사도 여럿이 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가운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못 가겠는가 하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30분 영국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 10시간 날아 영국 수도 런던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거기서 곧바로 아프리카로 가는 나이지리아 비행기 연결하는 곳으로 가서 수속을 하려고 했더니 그 비행기가 cancel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는 비행기가 있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갈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오늘 밤 11시에 영국 비행기가 가는데 가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고 물었더니 헬리콥터를 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기를, 당신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정사정 했더니 그 여자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고 해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밤 12시 넘어서 그 비행기를 타는데 시간이 되니까 그저 뭐 새카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노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나 보다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비행기를 올라타서 5시간 후에 나이지리아 라고스라는 비행장에 내려서 얼마 동안 있다가 첫 번째 목적지인 가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세관에서 돈 얼마 가지고 왔느냐고 하면서 있는 돈을 다 내어놓으라고 그래요.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내놨더니 관리가 돈을 다 세더니 20불짜리 하나를 자기 주머니에 넣더니 가지고 가라고 그럽니다. 나오면서 기도하기를, “감사합니다. 더 많이 뜯기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흑인 청년의 안내를 받아서 호텔로 가는데 점점 마음에 긴장이 됩니다. 컨티넨탈이라고 좋은 호텔이라고 하는데 수도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변 보고서 물을 눌러도 안 나옵니다. 물을 통에 떠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 가는데 휘발유 사정이 나빠서 택시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자가용을 얻는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사관에 가니까 참 반가이 맞아 줄 뿐만 아니라 영사님 한 분이 공군 출신이 있어서 더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볼일 보고 저녁에 호텔로 들어오는데 한 뚱뚱하고 검은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영사님이 저 사람이 북한 대사라고 합니다. “방에 들어가걸랑 저녁에 나오지 마시오” 그래요. 전

깃불도 깜깜해요.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그 불은 좀 밝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서서 성경을 읽은 다음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잤습니다. 영사님이 아침에 오더니 "아무래도 호텔을 옮겨야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호텔을 옮겼습니다.

한국 사람은 거기 한 20명밖에 없는데 공관직원과 태권도 사범과 그저 약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테마라는 바닷가에는 어부가 한 30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몇 번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날 테마에 가서 한국 사람들과 잠깐 이야기하고 나이지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가봉으로 갔다가 가봉에서 나와 나이지리아로, 그다음에 케냐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영사관에 있는 분들이 모두 거기 갔다 왔다고 하면서, 또 나이지리아에서 온 상사들의 대표들이 와서 "목사님, 나이지리아에 꼭 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합니다. "글쎄, 내가 선교현장 답사라고 왔으니까 그거 보고 가려고 하죠." "목사님, 웬만하면 그 나라는 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백 사람이면 90사람은 봉변을 당합니다. 가방을 뺏기거나 잘못하면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한사코 저를 못 가게 했습니다.

사업하는 백인 사람이 Cash 백만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세관관리가 금액이 크니까 조사해야 한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가지고 들어가서는 그냥 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면서 가다가 일부러 발동을 꺼놓고 뒤에서 밀라고 해서 밀면 그냥 달려가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를 쳐 죽이면 경관도 그것을 돌보지 않고 그냥 차가 그 시체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루가 되어야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안 가시는 것이 좋겠습

니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 그렇게까지 말리는데 갔다가 가루가 되면 또 어떡하나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내게 귀한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오라 한 것처럼 성령께서 상사들을 통해서 말하는가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참고해서 그러면 저 아이보리 코스트를 통해서 가봉에 가서 가봉에서 케냐로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그날 저녁 7시에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11시가 되도록 비행기가 안 옵니다. 가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시가 넘도록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예요. 11시가 넘으니까 새카만 사람들이 혁명의 나라니까 총들을 메고 권총을 차고 다니는데 그거 참 담력이 있어야만 배기겠더라구요. 11시에 올라탔더니 꽉 찼어요. 비행기도 좋지 않아요. 덥기만 하고….

그 영사님이 말하기를, 이 아이보리 코스트는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이 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니고 친미 국가니까 비자 없더라도 그저 하루나 이틀은 통관비자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해서 구라파만 생각하고 갔더니 다 나가는데 저를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가자고 하기에 어디로 끌고 가는가 했더니 그 공항 지소로 끌고 가서 조사하더니 당신은 못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사정을 하니까 경찰서장이 내일 나온다고 하면서 그이한테 물어봐서 할 거라고 그래요. 여기서 당신 오늘 자야 한다고. 어디서 자냐고 그러니까 저 대합실에 가서 하루 자라고 그래요. 뭐 어쩔 수 있나요.

거기서 성경이나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보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고생하던 것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다음 날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해서 잠을 자려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몸에 둘둘 이불 같은 것을 감고 있어요. 잘 때 모기 물리지

말라고 하면서 자는 것 같아요.

아비장 가기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온 한 상사가 저를 보고 "목사님! 아비장은 백인의 무덤입니다. 거기 모기는 아주 셉니다. 일본대사 둘도 죽었습니다. 프랑스 동네가 모기 때문에 전멸해서 그걸 기념에서 아직도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저 가시다가 어디 머리가 지끈지끈하시거든 병원에 가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어디 자고 싶어도 모기 물리면 죽을 것만 같아서 잘 수도 없었습니다.

날이 샌 다음 아침 8시에 서장이 왔습니다. 마침 김영태 태권도 사범이 15년 동안 태권도를 가르친 사람인데 거기서 그 서장한테도 태권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해서 겨우 공항을 벗어나 이제 거기서 이틀을 쉬는데 한국사람이 22명 정도 있는데 교회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가봉을 가는데 뭐 비행기를 타면 되는 줄 알았는데 confirm을 안 해서 비행기에 자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서장에게 사정해서 비행기에 5분 전에 올라탔는데 가다가 공산국가 토고 나라에서 쉬었다가 리비아 라고스에도 쉬었다가 밤늦게 가봉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에서 전화했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믿는 식구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쌍용, 대우 등 한국기업이 나와 있어서 한 30여 명 있고, 그다음에 어부들이 200여 명 있습니다.

대사님 내외분이 침례교 집사님이어서 "목사님! 여태까지 이 나라에 오신 목사님은 목사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예배드릴 때면 목사님들의 테이프 녹음된 말씀만 들었는데, 목사님 오셨으니 설교 좀 듣자고 하면서 부흥회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케냐 가는 비행기가 언제 있냐고 물으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나 있지 다른 날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 없이 새벽기도도 하고, 낮공부, 저녁집회도 하고, 정식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밤늦게 온 대사관 신자들이 나와서 환송하는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카메룬이란 나라에서 쉬는데 비행기를 타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상당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요. 수속해서 비행기를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권총을 찬 새카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백인 여자 딱 한 명이 앉아서 말하기를, "가방조심하시오. 가방조심하시오." 묻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두 번씩이나 해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흑인들인데도 가방을 붙잡고, 가방에 다리를 얹고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가방은 조심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케냐에 가니까 주일날 아침에 우리 교회 왔던 임 선교사님과 신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같이 선교사님 댁에 들어갔는데 뭔가 야단들이에요. 한참 있다가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뱀 잡느라고 야단났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아홉 달 동안 있는데 뱀 일곱 마리가 들어와서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거 보고선, 야, 아프리카는 살 데가 못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거기서 볼일 보고 에티오피아로 해서 로마로 빠질 줄 알았더니 에티오피아에서 로마로 가는 비행기가 없답니다. 천상 에티오피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로마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님, 관광을 하시렵니까? 에티오피아를 갔다가 다시 오시렵니까?" "내가 뭐 관광하러 왔소? 그 많다는 사자도 못 보고 기린도 못 보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거기 한국사람이 20여 명이 안 되는데 장로님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사관하고 장로님들이 조그만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에 척 내려서 보니까 마르크스, 엥겔스 사진이 쭉쭉쭉 붙어있고 그냥 거리에 붉은 깃발이 흔들거리는데 내가 모스코바에 왔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크게 엥겔스, 마르크스, 레닌 사진을 붙여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혁명할 때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미국이 안 도와주었고, 소련에 도와달라고 하자 소련이 도와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소련 군인들이 800명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있는데 2,500m 고지입니다. 감기가 들어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기침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기침을 하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이게 모기 물려서 그런 건가?' 하고는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찾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래도 내 생전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서 믿음이 적은지 모르지만 성경 뒤에 유언을 네 마디 써놓았습니다. 이 다음에 보십시오. 지금은 공개 못합니다. 그리고 '맡깁니다' 하고 잤습니다.

이틀 있다 떠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하면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쳤던 스바 여왕 나라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만 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만 리가 넘는 길을 그 옛날 비행기도 없는데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니, 오늘 50마일, 70마일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크레브란데 가니까 어떤 장로님은 2시간 반 걸려서 교회에 온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티오피아에서 이틀을 보내고 다시 저녁때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만기근무하고 떠나는 영사님하고 같이 비행기에 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지 오늘 날이 좋습니다." "여기는 고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일기가 나쁘면 바람이 세고 비행기가 못 뜹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타고서는 케냐에 밤 9시쯤에 도착했는데 밤 12시에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로마로 빠져나왔습니다.

로마에 오니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습니

다. 선교사님 댁에 가서 짐을 풀고 아무래도 몸이 이상해서 거기 사는 지휘자 정명훈 씨 매부 구삼렬 집사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의사를 모셔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모님이 인삼차도 끓여주고 하시면서 차츰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인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번에 크레브란데 가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한국과 전 세계 가운데 음악을 잘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느냐고 하면서, 로마교회가 음악으론 제일 잘한다고 그럽니다. 섭섭합디다. 동양선교교회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거기는 전부 음악 전공을 하는 유학생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대중예배 때도 성가를 잘하고 웅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존경받는 아주 좋은 분이에요. 나폴리에 가서도 선교하고, 또 한 군데 가서도 선교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돕겠다 그래요. 아, 이거 좋은 열매로구나 싶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밀라노 교회를 갔는데 밀라노 교회는 좀 고전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박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학을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독일에 가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독교회 초교파 교회에서 사흘 집회를 마치고 하이젤 슬라우슨이라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던 교회에 가서 하룻저녁 집회를 하고, 우리가 돕던 마하나임 교회가 이제 자립을 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마친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거기서 이틀 동안 집회에 참석하고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지난 14일날 LA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보고 느낀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지요, 둘째는 빈곤이요, 셋째는 독재요, 넷째는 좌경입니다.

아프리카가 일반적으로 90%가 문맹입니다. 물론 박사도 있습니다. 쟁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고관 집 자제들입니다. 그러나 90%는 문맹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왔는데 "당신 몇 살이오?" 그랬더니 "한 스무살쯤 됐는가요" 그러더랍니다. "여보시오. 한 50살도 넘어 보이는데…" 하니 "아마 그쯤 됐는가 보죠" 그러더랍니다. 무지해요.

열세 살만 되면 결혼합니다. 20살만 되면 아이들을 4-5명 데리고 있는데 4-5명 아이들의 아버지가 다 각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저 만나서 마음에 들면 자연스럽게 살고 헤어집니다. 또 어떤 남자가 동네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집 창에 칼을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 여자 남편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창이 꽂혀 있으면 그 집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다음 날 창이 빠져야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흑인교회 장로님도 첩이 둘이나 있고, 목사도 첩이 두세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빈곤입니다.

잘사는 사람은 잘살지만 도심에서 나가면 전부 변소 같은 곳에서 전화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수도가 있습니까, 전깃불이 있습니까.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일부러 운전사에게 돈을 좀 주어서 촌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람이 자고 있어요. 또 거기 누가 자냐 하면 닭도 자고 송아지도 자고, 다 같이 잡니다. 제가 중공에 두 번 갔다가 두 번 다 울었습니다. 너무나 못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비하면 중공은 아주 부자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입니다.

아프리카는 웬만한 나라는 전부 당이 하나입니다. 가봉 같은 나라는 지금 한 사람이 18년을 독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불과 100만 조금 넘고 군인도 얼마 안 되는데 장성이 수십 명이고 장관이 35명, 40명씩 됩니다. 나눠 먹자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삽니다. 이 사람들은 서양 자동차 좋은 것 열 대씩 가지고 있고, 몇만 불씩 받고, 여자도 몇씩, 종들도 몇씩 두고 너무너무 잘 살아요. 외국에 별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형편없습니다. 독재로 빈부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부 공산주의가 쑤시는데 전부 좌경을 합니다. 리비아도 공산주의,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가나 전부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남은 나라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정치, 과학, 철학? 그건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썩은 새끼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지는 복음으로만 깨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과거에 무지했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빛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흑인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한 백인이 “여보시오, 그건 옛날 책이니 읽지 마시오” 그러자 흑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당신은 지금 내 뱃속에 있을 것이오”라고 했답니다. 그 책을 읽지 않았으면 당신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그 말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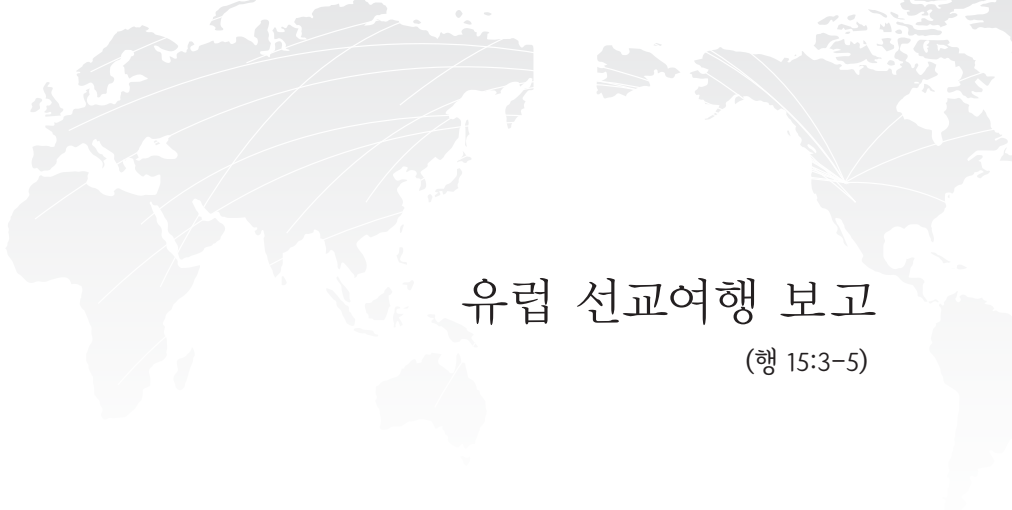
그다음 두 번째는 빈곤의 타파입니다. 보니까 게을러서 그래요. 그저 뭐 자연의 혜택으로 땅에서 감자 같은 것 캐먹고, 바나나 뭐 이런

것 먹고, 강에 가면 그저 생선 잡아 먹고, 따뜻하니까 옷도 필요 없으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일을 안 해요. 봉급받은 다음에 며칠은 회사에 안 나온답니다. 그거 먹느라고 예수 믿는 청년 하나를 봤는데 목수 노릇 하면서 장가도 늦게 가고 헌금도 하고 남도 돕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없애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백성의, 백성을 향한, 백성을 위한' 정부라고 말한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서 민주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도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데 이것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좌경을 방지하려면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게도냐 사람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오늘 전 세계에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를 도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동양선교교회는 많은 나라 사람들을 도운 줄 압니다. 불쌍한 영혼과 나라를 돕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알고 시대적인 요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로만 돕지 마시고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인재를 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10년, 30년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한국사람은 케냐에 한 사람

있고, 나이지리아에 한 사람, 불과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백인들이 어떻다, 착취했다 하지만 그래도 백인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장사를 잘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검은 대륙에 몇 사람이나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일하느냐 했을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양성해서 젊은 사람들을 보내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 못한다면 현지의 목사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문제는 영토 문제요, 영토 문제는 국제 문제요, 국제 문제는 인간 문제요, 인간 문제는 교육 문제요, 교육 문제는 종교 문제요, 종교 문제는 복음 문제입니다. 복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정말 도울 곳은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보다 더 불쌍하고, 중국과 비교할 것도 없고, 정말 여기로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 대열에 조금 더 보태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선교에 마음이 있었지만 동참을 못하셨다면 한 달에 1불도 좋습니다. 3불도 좋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듯이,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라든지 모이는 숫자라든지 모든 게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전도하는 일, 세계 선교하는 일에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앞장서는, 선교 대열의 선봉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유럽 선교여행 보고

(행 15:3-5)

유럽 각 나라에 한인교회가 여기저기 있습니다만 그저 15명, 30명으로 100명 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교회에 와서 여러 식구들을 볼 때에 유럽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무척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봉독한 사도행전 15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 우리 동양선교교회와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 본토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 바깥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이고, 유대 사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국제적인 교회이고, 기독교 역사상 선교사를 제일 처음

으로 보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미국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분도 있고 또 일본 분도 있고 중국 분도 있는 우리 교회는 국제적인 성격을 띤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가운데 유럽 선교사를 제일 처음으로 보낸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안디옥 교회와 유사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 선교여행을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아시아 일대를 다녔고, 두 번째는 유럽으로 건너갔고, 세 번째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고 돌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로마로 가서 두 해 동안 옥중생활을 하고, 로마 저 멀리 있는 바닷가 조그마한 개장 같은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목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5장 3절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여러 교회에게 자기가 다니며 전도할 때에 이방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들이 그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도 본 교회가 저를 유럽의 세 나라 다섯 교회에 보내시고 물심양면으로 큰 지원을 해주심으로 무사히 다녀온 보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줄거리만 여러 어른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 곳은 독일입니다. 독일 땅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부, 간호사, 유학생, 직장인, 상사 대표들, 그다음에 미국 군인으로 나간 한국 청년들, 또 미국 사람을

남편으로 삼고 사는 국제 결혼한 부인들입니다.

유학생이 3천 명가량 됩니다. 지금 유럽은 모든 대학이 학생들에게 학비를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유학생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기숙사라든지 생활비는 자담이 옳습니다. 특별히 제가 독일에 가보니 광부로 가신 분들 가운데 독일 여자와 결혼해서 잘사는 분들이 많고, 또 간호사분들도 독일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남편들은 혹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고, 법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경관도 있고, 베를린 가니까 경찰서장 부인이 한국인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는 세계가 하나라는 느낌, 모든 인류는 한 혈맥으로 지었다는 말씀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맨 먼저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낸 하이델베르크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한인교회 간판 옆에 또 하나의 큰 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간판만큼 큰 건 아니지만 '미국 동양선교교회 구라파 선교본부'라고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선교사 한 분이 왔을 뿐인데 본부라는 이름까지 붙여 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가톨릭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saint, '성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국은 new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뉴햄프셔, 뉴욕, 브랜뉴, 그러니까 아마 석 목사님도 미국에서 왔으니까 아주 하나 크고 새롭게 써 붙이고 싶었나 봅니다. '미국 동양선교교회 구라파 선교본부'라는 간판을 보니 기분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외국사람들 교회를 세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보잘것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하이델베르크의 중심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독일 감리교회의 사무본부 아래층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부흥하면 더 좋은 데로 나가기 때문에 아주 아담합니다.

한 2백 명 모일 만한 예배당이 따로 있고, 목사실 겸 친교실이 있고, 목사님의 주택이 거기 붙어 있는데 8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인교회들이 대개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긴다고 합니다. 뭐 냄새가 난다, 무슨 기물을 파손했다, 왜 이렇게 글씨는 썼느냐 하고 참 서러움을 많이 받는데 유독 하이델베르크 교회만은 8년 동안 완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한 분을 채용해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와서 공군사관학교 교수로 있다가 다시 민간에서 교직에 있다가 독일로 유학을 와서 신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목사님 아버지를 둔 분으로 서울신학대학을 나와서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그곳에 와서 신학을 연구하고 있어서 그분도 곧 전도사로 채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쯤 되고 보면 구라파 선교본부라고 이름을 붙여도 괜찮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곳 하이델베르크 지역에 사는 한국 사람은 2백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밖에 저쪽으로 나가면서 작은 도시에 좀 널리 사람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나흘 동안 밤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사람이 워낙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저 한 70명에서 80명, 어떤 때는 조금 더 나왔는데 특이할 만한 사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한국 누님들이 미국인 매부들하고 쌍쌍이 나와 앉아 있었는데 통역시설이 없으니까 특별히 뭐 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으면 남편들에게 또 통역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설교를 듣다가 통역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느라고 설교는 절반 정도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있는데, 미국남자하고 한국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면 좀 절반 절반 머리 색깔도 눈도 얼굴도 코도 그렇게 절반씩 닮으면 좋을 텐데, 애들이 전부 머리가 노랗고 눈은 파랗고 코는 오뚝오뚝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놈들이 한국말을 곧잘 합니다. 김치, 깍두기, 아버지…그러면서 잔등에다 태극기를 그리고, 태권도 주먹들을 해 보입니다.

그 교회는 특별히 유동성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가는 곳이고, 군인들도 1-2년 하다 가는 곳이고, 또 군인들이 가면 부인들도 따라가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국제결혼을 한 그 부인들이 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요. 얘기를 들어보니 요즘엔 유학생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웬만큼 사는 집 자녀들이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게 지내지는 않는다는데, 어쨌든 유학생들은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은 그 부인들이 십일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하고 아주 열심으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유지해 간다는 말을 들을 때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곳에 오래간만에 간 거고 또 언제 그곳에 다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이왕 간 김에 저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좀 미안하긴 했지만, 그리고 나라면 집으로 갈 텐데 그분들은 가지 않더라고요.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가 커피나 무슨 초콜릿을 마시고 또 식혜도 해오고, 수정과도 해오고, 떡도 해서 가져와서 한 시간을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하고 그런 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끝나면 그냥 차 빼가지고 나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두 시간 하고 열한 시에 끝났는데도 열두 시까지 그냥 앉아서 얘기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 고마운 것은, 이번 집회가 있다니까 프리웨이를 타고 한 세 시간 이상 네 시간까지 되는 먼 데서 가족들이 휴가까지 내고 참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의 프리웨이는 일차, 이차, 삼차선에 100마일 이상 달립니다. 총알과 같이 달려요. 그렇게 달려서 서너 시간 걸리는 곳이면 얼마나 먼 곳에서 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참 드물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한국교회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호텔을 잡고 아주 잠을 자면서 며칠 동안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성에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아 너무 잡수셔서 배탈이 날 지경인데, 제가 이번에 아주 대조적인 상황을 접했습니다.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반이 닦여 있는 걸 보고 여러분에게 기쁜 보고를 드립니다. 그 증거 하나가 뭐냐 하면, 하이델베르크 교회가 한국의 장로교 신학생에게 전적으로 학비를 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석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빌리게 되었는데 의자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모든 설비가 없어서 다 장만해야 하니 한 오천 불만 해달라'고 해서 여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석 목사님이 제게 여기 가서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 그 돈 안 썼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 왜?" "우리 교회 신자들이 강대상, 의자, 시계 이런 것들은 다 한 가지씩 나누어 마련했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돈으로는 독일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본국에서 돈이 제때 안 오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무이자로 꾸어주는 그런 기금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독일 교회에 보낸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참 좋은 목사님을 보냈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이 얼굴도 저보다 조금 낫습니다. 처음에 비행장에서 신자들이 보고서는 실망해서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켜 보고서 눈이 번쩍 뜨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베를린(백림) 신학교 강사로 있고, 하이델베르크 교회에도 지금 석 목사님이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 두세 명을 가르치는데 저보다 낫습니다.

동양선교교회는 건물도 좋고 장로님들을 비롯해 많은 인적 자원의 성도님들이 계셔서 뭐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신학교를 그 양반은 만들고 있어요. 좋은 목사이고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신자들을 잘 기르고 가르쳤기에 교회가 그만큼 안정된 줄 알고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로마에도 가고 밀라노에도 가고 스페인에도 가서 이번 집회도 다 준비를 했는데, 또 며칠 후에는 아프리카를 간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선교를 나간 이 목사님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다음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에 갔습니다. 베를린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독 안에 있는 평양입니다. 서울서 평양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독 땅 안에 있는 베를린은 뺑뺑 돌아가며 공산주의입니다. 그곳을 딱 끼고 영국, 프랑스, 소련에서 그 땅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1/3은 소련이고, 1/3은 미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기차 타고 가려면 한 번 조사를 받아야 하지요. 물론 들어갈 때도 조사를 하

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처음 탈 때만 조사합니다. 완전히 공산당 한복판인 거길 들어갑니다.

베를린은 약 190만 내지 200만 명이 사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2,500명 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상사 대표들도 몇 회사에서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 교회는 연합장로교회인데 이수나 목사님이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충청도 청주 출신인 분입니다. 이 교회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개 처녀 간호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더러는 미국으로 왔고, 그 교회 신자들이 약 백 명 정도인데 그 백 명 전부가 다 독일 남자와 결혼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미국남자와 결혼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곳에 가니까 전부 독일 남편들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한국사람들 피가 서양사람들 피보다 약한 모양이지요. 전부 서양사람들인데 이 아이들은 독일말도 하고 한국말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독일남자들이 한국여자와 결혼해서 애들은 거의 하나씩입니다. 둘 낳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결혼 없이 좋으면 그냥 살고, 좋지 않으면 헤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독일의 풍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독일교회가 웅장합니다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몇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독일사람들은 그저 지성, 과학, 현실에 속해 삽니다. 그런 그들이 1년에 세 번은 교회에 온답니다. 태어났을 때 교회에 오고, 결혼식 때 교회에 오고, 죽을 때 송장 되어서 옵니다. 그렇게 일생에 세 번은 누구나 교회에 온답니다. 왜냐하면 독일사람들의 국교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

시다면 어떻게 1차 대전도 자기네가 지고, 2차 대전도 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문제입니다. 영국은 그래도 신앙이 있답니다. 프랑스도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미국교회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미국교회는 3천 명, 7천 명, 만 명, 2만 명, 3만 명 되잖아요. 어린애들, 나이 많은 분들 실어 나르는 대형버스 150대 가진 그런 하일랜드 파크 같은 교회를 보면 그래도 미국교회는 살아 있지요.

또 베를린에서는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만 드린다는데 오후 5시입니다. 무슨 저녁 예배도 아니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거는 독일의 장로교회, 그러니까 자유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유교회는 독일에서 불이 붙습니다. 독일에서 국가교회, 다시 말해 루터교회는 잘 모이지 않지만 자유교회는 아주 자주 모입니다. 국가교회는 목사에게 모든 생활비를 아주 최고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도 안 합니다. 해도 봉급 받고, 안 해도 봉급 받으니까요. 자유교회는 국가의 원조 없이 자기들이 해가지고 교육자 사례비 주고 교회 운영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 교회가 예배당을 주로 써야 하니까 주일날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곧 5시, 그리고 3교대로 일을 나가기 때문에 일을 하는 한국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5시에 모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마운 건, 이 독일남자들이 간호사하고 결혼해서 대개 열에 여덟은 자기 아내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아이 키우고 살림을 하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낮 공부도 했고, 서베를린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차 타고 그 교회에 와서 부족한 저를 중심으로 교회 성장 세미나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주부대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노인대학이 있지요. 주부대학이 뭐냐고 했더니 그 여자들

을 상대로 교회에서 중국요리, 한국요리, 보통요리, 고급요리를 가르치고, 또 옷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간접 전도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부대학을 하면 몇이 나올까 생각해 봤는데,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곳 집회에는 80명 내지 10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다음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날아와서 그다음에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갔더니 미국 AP 통신사 기자가 떡 나와서 저를 맞이하는데, 서양사람이 아니고 한국사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사람으로는 유일한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정명훈 씨 새 매부예요. 그러니까 정명화 씨 남편인데 로마 특파원으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황이 아시아 순방하고 일본 갈 때에도 동행했답니다. 교황과도 친하며 아주 똑똑하고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떡하니 차를 대고 서더니 "목사님, 오늘 저녁은 로마 주재 대한민국 안 대사님 댁에서 저녁 대접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좌우간 저녁은 먹어야 하니까 가보자고 하고 갔더니 로마 집이 다 그렇지만 대리석으로 지어진 것이 굉장했습니다. 대사관 위에 대사님 주택이 있는데 부부가 참 훌륭하고 내외분이 모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고 가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 해주는지, 너무나 황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로마에 있는 한국사람을 다 합해야 백 명 조금 넘지요. 보통 교인들은 40-50명 정도고요. 가톨릭 신부님, 수녀님들이 유학을 많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숫자가 좀 많을 뿐 우리 개신교 측에는 그저 40-5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어디서 보느냐 하면, 이탈리아 대통령 관저 바로

뒤쪽, 백 년 전에 영국성공회 앵그리컨츄어처치(성공회 교회)에서 교회를 거기다 세웠는데, 그 고적(문화재) 때문에 집을 지을 수는 없고 로마형 안에 집을 지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빌려서 거기서 주일날 2시와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약 40-50명씩 모입니다.

로마에는 성악과 기악을 공부하러 온 사람들, 음악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악보다도 성악을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 남자 전부 성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40-50명 모였지만 찬송을 참 잘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사중창을 부르는데 아주 잘해요. 참 탐나더라고요. 한국에서 음악대학, 대학원, 교편 잡던 사람들, 그리고 몇 번씩 나가서 시공관 같은 데 가서 해봤던 사람들이어서 곧잘 해요. 이 사람들이 성찬식을 안 했다고 성찬식을 한 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세례를 받았냐고 물으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시장에 갔더니만 세례 받았다면서 이상한 거 아주 잘 마셔요.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기에 성찬을 준비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성찬을 준비 없이 떼어서는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떼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건 괜찮다 그랬더니 믿음이 좋은지 다 떼었습니다. 그래도 성찬 떼고 나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일은 여러 해 되지만 오늘 같이 감격적인 순간은 없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 하고 가야 하니 설교를 짧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또 밀라노까지 늦지 않고 간다는데, 하다 보니까 그만 설교가 좀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달려가는데 어찌나 속도

가 빠른지, 속으로 "그저 무사히 가게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뜨면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달려갔는데 비행기가 벌써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20분에 또 떠난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국과 비슷한 게 있어요. 비행기가 떠나야 떠나는 거지, 딱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5시에 떠난다는 비행기가 5시 40분이 되었는데도 안 떠나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대단합니다. 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이 노동자들의 단결이 엄청나서 그저 스트라이크(파업)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 비행기를 타고 밀라노로 갔습니다.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가장 오랜 도시이고, 가장 유서 깊은 곳이고, 종교도시지요. 로마는 하나의 정치도시이고, 교황청 관광도시입니다. 여름이 되면 외국 관광객들이 하루에 150만이 들끓는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관광으로 90억 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밀라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와 더불어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주후 313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3백 년 동안 기독교를 이교도라고 해가지고 그저 파리새끼 죽이듯 그렇게 잡아죽이던 기독교를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한 그곳이 바로 밀라노입니다.

또 거기에는 유명한 암브로스라는 감독, 대설교자가 목회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모니카가 타락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 가서 아침저녁으로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암브로스 감독이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딸아,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단다"라고 했답니다.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계속 기도를 하였고, 결국 어거스틴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가 걸어가던 그곳, 대리석으로 된 그

곳을 몇 해 동안 지었느냐고 물으니 300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동양선교교회도 희망이 있구나'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집을 보든지, 기둥을 하나 보든지, 길거리에 대리석으로 깎아 놓은 걸 보든지 우리 한국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백 년의 대계는 교육에 있다"고 하듯이 우리 한국은 길어도 백 년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2천 년, 4천 년을 내다보고 모든 걸 계획하는 것입니다.

밀라노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조금 더 있나 보다 생각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식사하는데 무슨 와인이라는 걸 먹으면 콕콕 찌르는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됐어요.

밀라노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사관 직원들과 음악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사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경제도시이기 때문에 충남방직, 대우실업, 대한항공, 외환은행, 삼성종합, 무역진흥공사, 현대건설, 제일합성, 금호실업 등 이런 상사에서 많이 나와요. 그 상사 대표들, 그 내외들이 한국에서 믿던 집사님들인데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상당히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참 희망 있는 교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1980년 5월에 1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자 집사 하나, 남자 집사 세 사람, 지금은 교인이 한 30명 내지 40명입니다. 이탈리아 장로교회에 방을 얻었다고 하는데 지나다니는 복도에 조그만 방 두 개를 얻어 쓰면서 1년에 500불 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비교하면 지금 이 교회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예요. 아까 그 돌집에다 대면 아주 형편도 없지만 밀라노의 교회에다 비하면 동양선교교회는 굉장히 건물

이 좋은 겁니다.

그 교회에서 집회를 끝마치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스페인 갈 때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감회가 깊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대한 바울 사도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가기를 염원했지만 영영 못 간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미국 땅도 발견하기 전이니까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재들이 많이 난 곳이 아닙니까. 루칸이라는 서사시의 거장, 또 풍자시의 거장 마시알, 대수학자 컨텔리안, 유명한 철인 로마의 시셀로, 근대 위대한 화가 피카소 등. 그곳은 유럽에서 프랑스 다음가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3,7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은 유럽에서 제일 낮습니다. 1년에 3,600불 된다고 합니다. 그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게으르고, 스페인도 게으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게으르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오히려 잘사는 독일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저들이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하루 밥 네 끼 먹냐, 다섯 끼 먹냐. 너희나 우리나 똑같이 세 끼 먹는다.' 아주 편안합디다. 옛날 새마을운동 하기 전 우리나라 같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독일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날아가요. 미국은 여기서 저 마이애미까지 가려고 해도 거의 6시간 날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이 나라 저 나라, 2시간이면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요. 나라는 작고, 사람은 많고, 지하자원은 별로 없습니다.

스페인에 갔더니 마드리드에 한국사람이 200명, 바르셀로나에 250명, 그런데 80%가 태권도 사범들입니다. 그 200명이 태권도 가족들입니다. 그래서인지 그곳에 태권도가 많이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그곳 임금(왕족)을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임금의 아들이 일반 군인으

로 지낼 때에 그 사람이 조 사범에게 와서 태권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 사범에게 꼭 경례를 합니다.

조 사범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오수남 장로님의 사돈이에요. 오수남 장로님의 둘째 아들의 부인의 언니가 그 사범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오 장로님이 전화한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니 사돈 알아서 잘 모시라고 그랬는지 굉장히 잘 차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누구든지 고관이 오면 그 사람을 앞세워야 궁 안에 들어가서 임금을 만날까 하는 그런 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 집에 가서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구두가 뭔지 아십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그저께 비행기를 타려고 왕복으로 700불을 주고 싸게 표를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가려면 500불 더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불이 뭐 적습니까. 그냥 하루 더 자고 다음 날 가면 되지요. 그래서 500불 세이브하려고 하루 더 자기로 했는데, 어떤 상사의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구 집사님 같은데 저에게 "목사님, 여기 박람회 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호텔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방이 셋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자고 가니까 목사님 괜찮으면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기에 가보니까 웬만한 호텔보다도 좋고, 대접도 잘 해주셨습니다. 또 구경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구경 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구둣방 근처에 가더니 부인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셋이 나를 번쩍 안아가지고 구둣방으로 끌고 가요. 싫다고, 나 구두 있다고, 아니라고, 안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모두 구경하잖아요, 창피하게…". 그러면서 이 구두를 사주셨습니다.

이거 누가 사줬냐면 이정배 장로님의 사돈입니다. 정말 '여호와 이레'라고 하더니, 바울 사도는 이교도 땅에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 타고 가면 자동차가 기다

리고, 대사관에서 와서 데려다 먹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친정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정파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당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그리고 임금의 사범한테 가서 대접을 받질 않나, 구두를 선물 받지 않나, 그리고 갔다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씩 뭐가 잘 됩니다. 갔다 오니까 부엌도 잘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자꾸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마드리드 교회에 가니까 5층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 주택하고 아주 목사도 없어요. 그저 한 열댓 명 모인다고 그래요. 집회 동안은 한 25-30명 나왔더군요. 거기서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다시 독일로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 이레'를 다시 배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두셨어요. 그리고 동양선교교회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산다는 것, 이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햇빛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저 5월이나 7월달이나 조금 보고 1년 내내 구름 끼고 내내 비 오고 잠깐 갰다가 또 구름 끼고, 맨날 우산을 자동차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스웨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독일사람들이 그저 여름이면 주말마다 자동차 타고 햇빛 보러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 햇빛 보고 감사한다고 하셔야 돼요. 프랑스 국경 넘어 들어가자마자 구름이 꽉 찼어요. 그리고 독일에 가서 내리니까 비가 쫙쫙 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햇빛 없으면 건강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꼭 돈

벌어 가지고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일광욕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햇빛 보러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동 갔다 와서 '그 중동에는 집집마다 변소가 없고 백 세대, 백오십 세대 공동 변소가 멀리 있어서 그 밤에 비 오는 날 장화 신고 우산 들고 전등 들고 갔다 왔다'고 하면서 미국 와서 다니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감사기도 드리는 사람 손 들어 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햇빛 보고 감사하십시오.

또 거기는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10년 살아도, 20년 살아도 영주권을 안 주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데에도 한국 간호사들이 그곳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 남편이 5년 이하에는 절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철저한 경찰국가입니다. 거기서 남자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여자가 나가서 벌고 남자가 집 보고, 이불 개고, 더러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장도 봐옵니다, 어린애 안고….

또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된 나라가 독일, 스웨덴인데 독일 가보세요. 전부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코딱지만하죠. 그리고 화장실 가보면 휴지도 신문지보다 조금 나은 것 쓰고…. 그걸 보면 여러분들 여기 미국 사는 거 정말 감사하세요. 남편 원망할 것도 없고, 색시 잘못 얻었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감사하는 게 오늘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교육도 그렇습니다. 자, 독일 말을 하는 애들을 보니 이담에 어디 가서 독일말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크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 겁니까? 또 스페인 말 배워가지고 얼마나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자녀교육 하는 여러분, 영어는 국제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별의식이 덜합니다. 이걸 볼 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청년들이요, 모든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한결같이 조용히 만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들으면 섭섭하니까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나 미국 가는 길 좀 열어주시오"라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중동에 갔더니 나이 65세 먹은 할머니가 내 손목을 꼭 붙잡더니 "목사님, 미국 갈 때 나 좀 꼭 데리고 가주세요" 합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나 좀 미국 가는 길 열어 달라고 그럽니다. 내 욕심 같으면 우리 교회 데려오면 좋지만 지금 그런 길이 어디 쉬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여행을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결산을 내리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번 전도여행을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3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얻은 게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 두 개가 동양선교교회와 더불어 자매관계를 맺게 되어 앞으로는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교회와 밀라노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도 없고 또 독일 보내고 그곳에 보낼 만한 경제적인 것도 없는데 독일은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도 둘이 있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은 선교사님이 하지만 석 선교사님이 신년 첫 주부터 잠정적이나마 이제 본부하고도 연락하겠지요.

그런데 로마교회는 두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신기해요. 매주일 안 드리고. 두 주일에 한 번입니다. 예수 쉽게 믿으려면 로마교회로 가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오전에 드리고, 저기는 저녁에 드리기 때문에 두 군데 가서 보게 됩니다. 교회 둘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는 세계의 관광중심지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많이들 옵니다. 홀리랜드스터디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은 고고학적 성서지리적 교육을 재훈련시킬 수 있습

니다. 이렇게 두 교회를 우리가 자매교회로 맺었다는 것이 첫 번째 큰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를린장로교회에서 중공 선교사를 매달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두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달라는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는 곳마다 정말 그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시 기쁨으로 봉사 생활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페인에 전도지를 갖고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된 동양선교교회 전도지를 꼭 스페인에 가서 전도하려고 아마 제가 4백여 장 가져간 것 같아요. 가져가서 경찰도 주고, 군인도 주고, 관리도 주고, 호텔이며 공장이며 다니면서 며칠 동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은 가라데 하고 한국 사람은 태권도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또 한국사람은 예수도 전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만일 이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미국에 간다면 동양선교교회로 나오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듣기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 카세트를 많이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디오 테이프와 비디오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동네마다 한국 사람들이 조금씩 다 있는데 거긴 목사들이 갈 수 없으니까 기계 하나에 600불 정도 하는 비디오 하나만 만들어 보내면 전국적으로 돌 때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영어를 하고 운전할 줄 아는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전도사들을 동양선교교회에서 보내 달라는 거예

요. 독일에 목사 많습니다. 유학 온 사람 많습니다. 간호사의 남편들, 목사들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동양선교교회 교리, 동양선교교회 신조과 신앙을 갖춘 좋은 전도자를 배출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까지도 여러분이 미국에서 참 애쓰시는 가운데 피땀 흘려 번 그 소득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해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중공, 한국, 태국, 그다음에 저 유럽까지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중에 더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그저 25센트도 좋아요, 그저 1불도 좋아요,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모두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보내놓고 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못 가지만 간접 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전도하면 하늘에 가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는 다른 것으로는 자랑 못하지만 봉사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앞장서는, 한국교회나 해외교회 가운데 가장 앞장서는, 문자 그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을 본 바울

(행 16:6-10)

올해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선교기관에서 예루살렘에 총회를 소집하였는데 한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 부족한 저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며칠 동안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먼저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셨고 사셨으며 가르치시고 잡히셨던 곳, 매 맞고 죽으셨던 곳,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성령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셨던 곳, 온 세계에 전파된 복음의 출발점이 되었던 땅 이스라엘, 그중에서도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한 것도 처음이지만 말씀까지 증거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인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내, 국외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동안 사람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이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엔 총회에 가입된 나라의 수가 과거에는 55개밖에 없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155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전승국들이 작은 나라들을 흡수했습니다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그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독립한 나라 지도자들은 식민지 시절 투옥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거의 불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진국인 강대국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침략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으며 환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기수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이를 위해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성서지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웠고 그동안 책을 통해서만 얻었던 성서지리에 대한 지식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애석하게 죽었던 곳이 요르단에 있는 비스가산입니다. 그곳에 올라갔을 때에는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또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광야에도 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였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 때문에 더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원성이 높아질 때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난 모세는 자기 감정으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비록 물은 나왔지만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세가 물을 내었던 반석이 평야에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험하고 높은 산봉우리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위가 깨져 있는데 3,500년 동안이나 그 높은 산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사막이고 물 한 방울 없는 땅인데 말입니다. 그로 인해 그곳에 동네가 생기고 농토가 생겼습니다. 생수를 얻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오묘하신 신비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두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학생 때였고, 다른 한 번은 장모님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소식을 알렸던 그 동굴에 갔었습니다. 천사들이 양 치던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알렸을 때 그들은 그 동굴에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맞추어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갇히셨다는 곳에도 갔었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예수님은 잡히셔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의 지하실에 있는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곳은 옛날 예레미야가 갇혔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실에 있는 깊은 우물과 같은 곳이었는데,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곳을 통해 밧줄로 매어 내려서 가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몇 시간 계셨습니다. 그 굴 속에서 다른 신자들과 지도자들도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프리웨이도 있어 자동차로 가기도 하지만 성경시대의 그 옛날에 어디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모래가 길을 덮고 지척을 분별할 수 없는 막막한 사막길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다

가 아브라함이, 요셉이, 야곱과 식구들이, 또한 헤롯의 학살을 피해 피신하였던 아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났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길을 몇 날 며칠 나귀를 타고 걸었던 길을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한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비행하던 중 조종사가 바로 밑이 시내산이니 내려다보라고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과 높이 솟은 시내산, 그리고 그 줄기가 보였습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폐한 땅을 40년 동안이나 헤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미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짧은 여행 기간이었지만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요르단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르단은 회교국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 공관과 상사 직원, 그리고 길을 닦는 노무자들 약 2,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한인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신자들이 150여 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요르단인 목사님도 있었는데, 한 달에 100불만 도와주면 한 가족 다섯 명이 넉넉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한국사람은 살지 않았었습니다. 공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랍의 여러 나라들과 거래하고 활발히 교류하기 시작하고부터 예루살렘에도 유학생이 있고, 기술자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무역상사들도 더러 생겼습니다. 그곳에 50여 명의 한인들이 있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 신자들 30여 명이 주일마다 모인다고 합니

다. 예루살렘에서 한국어로 찬송을 부르고 설교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이집트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한국사람이 100여 명 정도 사는데, 수도 카이로에 한인교회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남녀 선교사님 각각 1명씩 있습니다. 한인교회에 약 30명 정도 모이는데, 100불이면 목사 한 가정의 생활비를 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 한국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주에는 한인이 200만 명이고, 소련에도 약 50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그 어느 지역이든지 곳곳에 한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 마음이 기쁩니다. 땅이 좁아 조국에서 나가야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민간외교도 하고, 돈을 벌어 조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외로 진출한다는 것은 참으로 발전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카이로의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 직원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북한이냐, 남한이냐?"라고 물어서 남한이라고 했더니, 한국인은 길을 참 잘 닦는다고 그가 말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한국사람에 대해 그다지 높은 평가를 듣지 못하지만 제3세계나 후진국에 가면 이처럼 대한민국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예루살렘 대회와 여행 보고를 마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환상을 본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택한 백성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

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기록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적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생 동안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 나라를 다녀왔는데, 비행기 표도 호텔 숙박비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과 맨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1. 바울은 열심이 많아 성급하게 서둘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6-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여행 때에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미지의 땅에 가는 것보다는 한 번 갔던 곳,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소아시아에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열이 마음속에서 끓어 넘쳤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또다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론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게으른 사람보다 열심이 있는 사람이 더 낫고 높이 평가되어야겠지만 도가 지나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열심 때문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열심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치 당원의 열심은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일본제국주의 황실에 대한 청년들의 열심은 한국과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원의 열심은 수많은 종교인과 선량한 백성들을 죽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열심이 남다른 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으로 사람에게 못을 박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

흘리게 하며, 때로는 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 곧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교훈으로 삼아보게 됩니다.

이번에 저는 예루살렘에서 애굽까지 자동차로 7시간 동안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50분이면 가는 길입니다. 걸어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시나이 반도,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졌던 노예근성을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땅에서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의 어려움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고 연단하여 강하게 함으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능히 무찔러 새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보다. 왜 나에게만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어찌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은 우리 전후좌우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 년 열두 달, 아니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당장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이라 해도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응답을 받거나 환상을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2. 바울은 허락 없이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들어간 때가 밤이었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는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었지만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려가서 밤을 만났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실패를 뜻합니다. 고통을 말합니다. 역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신 곳에 가는 사람마다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곧 그의 나이 사십 세에 혈기를 앞세워 애굽사람을 때려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달아나 처가살이를 하다가 젊은 청춘을 허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무수한 고통을 당한 요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붙잡혀 로마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는 이 항구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조그만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남쪽으로 가면 큰 도시인 뵈닉스가 있는데 그곳에서 겨울을 나면 좋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돛을 달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두 주야를 광풍 가운데 고생하다가 지니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바다에 내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도 하지 않으셨는데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무수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아니한 곳에 가면 실패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역경에 부딪힙니다. 깊은 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왜 이민 온 자녀들이 실패를 합니까? 왜 갱이 되어 붙잡혀서 신문에 납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곳에 가서 그런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약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술 취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밤늦게 귀가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일에 낚싯대 들고 물고기 잡으러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인데 내가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은 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밤을 만날 때는 고통을 겪고 절망하여 자살까지 하게 되지만 믿는 성도들이 이 밤을 잘 이용하면 은혜와 축복의 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뱃사공은 바람이 불 때 더 빨리 항해를 하며, 독수리가 폭풍을 만날 때 그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성공만 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어두움에 부딪힐 때, 캄캄하게 될 그때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때는 얼굴을 위로 들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캄캄한 밤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건국한 지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몇천 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아랍 국가보다 월등히 잘삽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전보다 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을 보며 어디에서 이런 기적이 비롯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천 년 동안 밤을 맞았습니다. 그 어두운 밤 가운데서 깊이 반성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역경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정신, 그 신앙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기적을 가져오게 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갈밭에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꽃밭과 보리밭과 밀밭과 오렌지와 포도밭을 만들어 중동과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또한 하이파 같은 곳에서는 신무기를 만들어 70개 국가에 팝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져다가 발전된 기술로 깎아서 세계 시장에 내보내며, 또 관광사업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돈을 긁어모아 얼마나 잘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웃인 많은 아랍국가

들은 아직까지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4백만이다. 아랍국들은 13나라, 1억 3천만이다. 우리는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들이 전쟁을 걸어온다면 언제든지 나가 싸워 넉넉히 이길 자신이 있다."

우리가 갔을 때 성년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은 13살이 되면 성년이 되는데 남자나 여자나 축제를 합니다. 성년이 되면 일 년에 한 차례 한 달 동안 군대 훈련을 모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비록 정규군이 아닌 상비군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고, 기관총과 야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탱크를 몰 수 있습니다. 150만이라는 군대가 전쟁만 나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나긴 2천 년의 밤 동안 반성을 했기 때문이요, 그 연단의 결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연인, 즉 아담의 후손인 옛 사람, 옛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압니다.

3. 바울은 환상을 보고 그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본문 9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중에 있을 때에도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밤낮없이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자마자 이튿날 일어나서 즉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헬라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따라간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울의 전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영국으로도 건너갔습니다. 그 복음이 미국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한국에까지 온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따라가 전한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려 할 때 환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고,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사건이 나옵니다.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천사가 오르내리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보다 야곱을 더 존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얍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믿고 아브라함보다 더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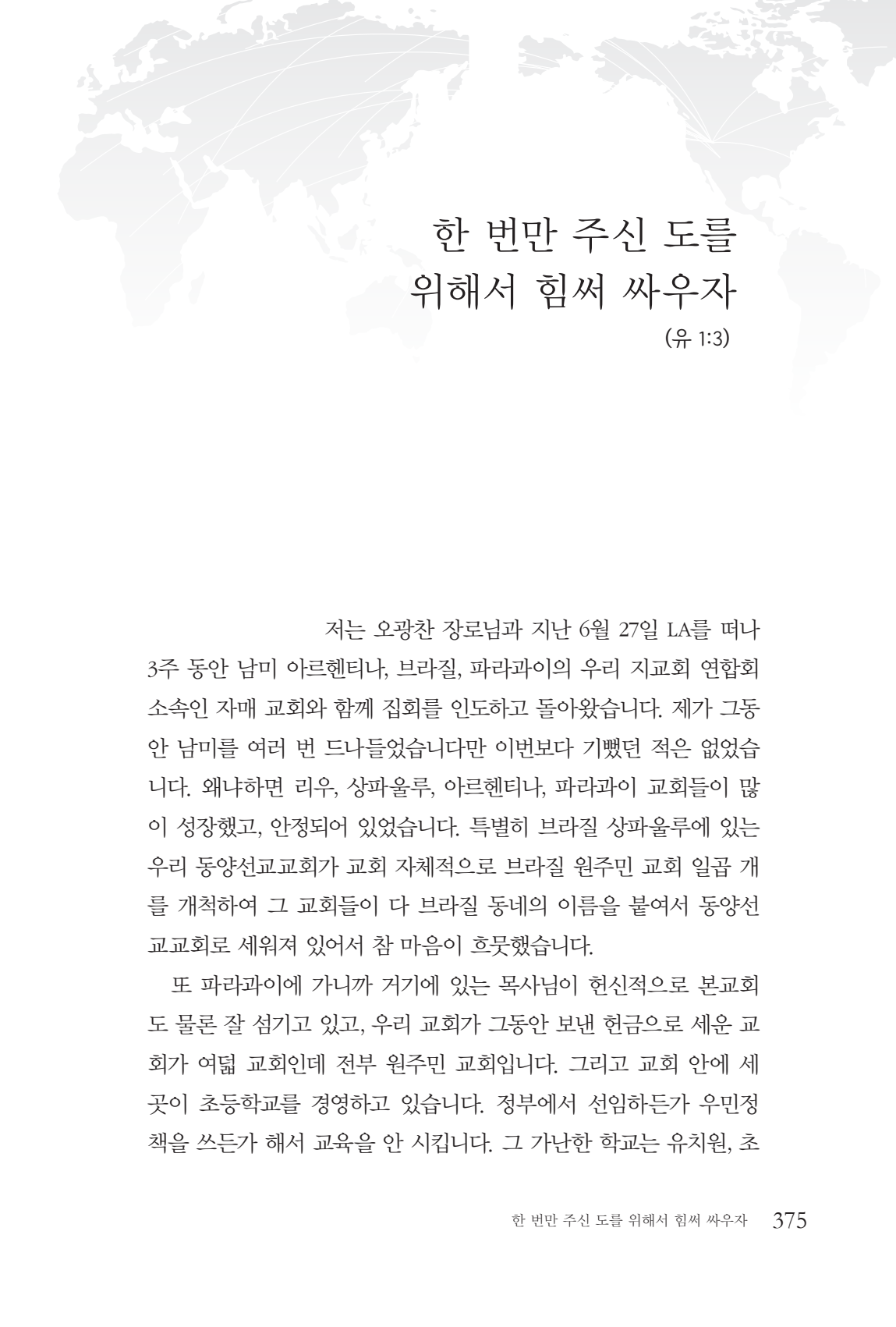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모세는 광야에 있는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늘 보좌의 스랍들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본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큰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천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룰 때가 많아요. 다음에 천천히 하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마귀가 기뻐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잡기가 어렵습니다.

애굽의 박물관에 가서 보니 왕과 위인들의 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석상들의 왼발이 전부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나아가 보자'

라는 뜻이래요. '해보자'는 뜻이래요. 귀한 뜻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TV나 보지 말고, 목욕탕에만 있지 말고, 커피만 마시지 말고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골프 치러 나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낚시하러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보자, 성가대도 해보자, 주일학교 봉사도 해보자, 성경공부도 해보자, 한글학교 교사도 해보자, 버스도 좀 돌려보자, 안내도 해보자, 좋은 일 좀 해보자, 성경 보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하루 한 끼 굶어서 간접적으로라도 전도해 보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모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보자'는 의미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네기에게 어떤 청년들이 찾아와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적어서 제일 가능성 있는 것부터 해봐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성공할 거라 말했지요. 이 청년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지를 봤더니 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첫째 문제를 보니 캄캄합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 나왔습니다. 둘째 문제를 보니 더 어렵습니다.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주었던 건가? 몇 해 전에 본 것일까?' 이러면 안 됩니다. 다 훑어봐야 합니다. 훑어보니까 세 번째 문제는 해볼 만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아주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덟 번째 문제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앞의 두 문제는 나머지 시간에 푸는 겁니다. 그러면 못하게 되더라도 80점입니다. 두 문제만 붙들고 있다가는 '땡' 합니다. 빈손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세속 역사는 다릅니다. 세속 역사는 인간 중심의 역사입니다. 내가 생각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는 인간 중심의 역사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같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와 로마의 학자들과 권력자들과 권세자들 속에서 그들은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권력,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세속의 때가 묻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든 일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는 태도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환상을 보게 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주신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자

(유 1:3)

저는 오광찬 장로님과 지난 6월 27일 LA를 떠나 3주 동안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의 우리 지교회 연합회 소속인 자매 교회와 함께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미를 여러 번 드나들었습니다만 이번보다 기뻤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우, 상파울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교회 자체적으로 브라질 원주민 교회 일곱 개를 개척하여 그 교회들이 다 브라질 동네의 이름을 붙여서 동양선교교회로 세워져 있어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또 파라과이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본교회도 물론 잘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보낸 헌금으로 세운 교회가 여덟 교회인데 전부 원주민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 곳이 초등학교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선임하든가 우민정책을 쓰든가 해서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 가난한 학교는 유치원,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기술학교, 신학교 이 학교 건물이 현대식으로,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좋은 벽돌로 채워 놓고, 파라과이에 중·고등학교가 30여 개가 된다고 하던데, 독일 사람이 세운 학교 다음에 이 학교가 두 번째로 규모나 실력으로 뛰어나고, 특별히 교사 약 50여 명이 전부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내다볼 때 큰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힐 것입니다. 이번 여행에도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떠날 때 젊은 집사 내외가 돈을 주면서 교회 하나 세워 달라고 해서 원주민 사는 동네에 가서 교회 기공식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을 펴 들고 설교 끝날 때까지 같이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 편지는 주후 약 60년부터 80년 사이에 기록되어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 당시 좋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바로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진한 신자들이 그 말의 꼬임을 받아 그쪽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유다 선생님이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편지,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인데,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려 하다가 부득이 변경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편지를 쓰려다가 부득이 한 번만 주신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도'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한 번입니다. 여러 번이 아닙니다. 그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변경해야 필요를 느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이 편지는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잘해라" 그런 경고도 되고, 권면도 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만 주신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4절을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느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 옛적부터 정죄 받기로 기록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은혜를 색욕으로 바꾸는 자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단자입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성적인 타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욱 읽어보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항하는 것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비체험을 강조해서 교회를 소란케 하고 교회를 분리하는 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십자가는 용서의 종교다. 죄를 짓지만 그것으로 멸망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비성서적이고 비신학적인 것입니

다. 이처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는 회개를 하고, 나가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는,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또 가서 죄를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런 사람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개나 돼지는 어두운 지옥불에 있는 짐승입니다. 믿으려면 바르게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했으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구하라 하지 못하겠다." 즉 이미 멸망받기로 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자들이 목사에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제삿날인데 추도식을 와서 거행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천국 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옥에 내려갔다고 말하기는 박하고,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다가 돌아가신 분 장례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안 믿고 우상을 섬기다가 전

도 받고도 완악하게 거절하다가 세상 떠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천국 간다는 것은 성경 기록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짓밟은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훼방한 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므로 즉사했고, 가롯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은 30냥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는 영영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는데, 베드로가 땅을 판 값 전부인지 물어보니까 성령을 속이고 다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감춰두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받는 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무슨 죄든지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공모자가 아닙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받은 것은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지은 까닭입니다.

둘째, 알았지만 약해서 지은 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했습니다. '나 그 사람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알았지만 약해서 지은 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둘이 방에서 놀다가 어머니 아버지 없는데 세 살 먹은 아이가 한 살 먹은 동생의 눈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그 두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세 살 먹은 애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것들을 살피지 못한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알고 죄를 지었겠습니까? 몰라서, 알고도 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깨달아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프게 통회, 애통,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어떤 사람들을 보면 깨닫지도 못하고, 애통도 안 하고, 자복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합니다. 그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그가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가!' 가슴을 찢어가면서, 전기를 보면,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이 울 때 죽을 때까지 매일 아침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 도로 가져다가 던졌는데 왜 지옥에 갔을까요? 눈물을 흘린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와 더불어 좋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것을 전가시키려고 그 남편을 일선에서 데려다가 아내와 같이 며칠 쉬었다 가라 했는데, 안 가니까 대장에게 편지해서 일선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윗이 용서받은 것은 성경을 보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용사이겠지만 얼마나 울었기에 그 침상이 눈물로 띄워져 요가 썩을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았고, 그래서 첫번째 낳은 아들은 죽었지만 솔로몬이라는 평강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을 아는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 그 사건이 오늘 우리 LA 이민생활에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의미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그것을 보고 또다시 과오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너희가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 말 따라가면 구원

이 없다. 믿으려면 잘 믿어라" 한 것입니다. 유다는 5-19절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5절을 봅시다.

>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에서는 도회지나 시골이나,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다섯 살만 되면 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다섯 살부터 배워서 아는 사람이 아니냐고 한 것입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남자가 다섯 살, 여섯 살 되면 천자를 가르쳤습니다. 저도 다섯 살부터 할아버지에게 천자를 배웠어요. 〈동몽선습〉을 떼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이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이것을 구약에는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리마인드,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억 가운데는 구약 기억이 있고, 신약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 기억 가운데 세 단체 중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석

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해도 꼭 신구약 주석 한 질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이상근 목사님이 쓴 주석이 있고, 또 박윤선 목사님이 쓴 주석이 있고, 요새 새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로 된 주석에는 매튜 헨리의 주석이 있고, 바클레이 주석이 있습니다. 특히 바클레이 주석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준비해서, 한 절을 읽고 나서 그것을 상고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첫째로, '주의 백성들이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라면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갈라진 홍해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셨는데도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 사람이나 멸망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보니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여자, 아이들 말고 군인과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단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난 2세들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8-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불순종하다가, 끝까지 믿지 않다가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순종해야 하고, 좋을 때도 믿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도자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생활을 50년 하면서 똑똑히 봤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손들까지 잘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비참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선민이지만 순종치 않다가, 끝까지 믿지 않다가 멸망받았다는 것을 유의해 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학생은 스승에게 순종해야 하고, 군인은 상관에게 순종해야 하고, 양은 목자에게 순종해야 하고, 신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크게 잘못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천사들이 멸망했다"고 합니다. 유다서 6절을 보십시오.

>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다 깨끗하고 신령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

니다. 여자들도 하얀 옷 입고 예쁘게 생겼으면 "천사 같습니다"라고 하고, 어린아이들을 보고도 천사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사실 우리 성도만 못합니다. 왜요? 천사는 중성이에요. 천사는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혼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는데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왜 멸망받았습니까? 제자리를 떠나서, 처소를 떠나서 멸망받았다고 합니다. 천사가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했습니다. 루시퍼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무덤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공이 땅에 닿아야 튀는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 올려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에게 경배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타락한 장면을 보실까요? 이사야 14장 12-15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천사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지킬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오빠 자리, 누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며칠씩 돌아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기 자리가 있어요.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리를 떠납니다. 높아지려고 누구를 밀쳐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집사님 자리만 잘 지키십시오. 장로 자리를 넘보거나 장로들이 이랬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또 권사님들도 권사님 자리만 지켜요. 목사도 목사 자리 지켜요. 어떤 목사는 낚시를 좋아해서 캐나다를 가니까 주일 아침에 낚시를 갔다가 돌아올 때 자동차 프리웨이가 밀려 가지고 주일날 설교도 못하는 그런 목사 되어선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다가 결국 그 천사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태우 씨나 전두환 씨도 그저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그분들 정말 참 존경받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월남전쟁에 가서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훈장도 많이 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자리가 족한 줄 알고,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지금도 감옥에 안 갔을 것을…. 넘겨다보고 청와대 갔다가 저리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제자리를 떠나서 결국 천사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유다서 7절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이것도 복수입니다. 두 가지 죄 때문에 멸망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음과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하는데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 유부녀와 더불어 유부남과 더불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다른 색을’,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지어 주셨는데 다른 색, 즉 다른 육체는 남자가 여자와 살지 않고 남자와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육체입니다. 이것을 동성연애라고 합니다. 구약 레위기에도 보면 동성연애를 했고,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시대 당시에도 동성연애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사해라는 소금 바다가 있는데 지금도 잠수부들을 통해서 심해를 관찰해 보면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은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간음죄를 지으면 하루에 2만 3천 명씩 멸망받았습니다. 로마의 폼페이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산에서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밀려들어 전부 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과거에 못된 짓을 했던 그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간음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자들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8절을 봅시다.

>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훼방하는도다."

이 주의 백성들이나 천사들이나 소돔 고모라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29장 8절을 보면,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들, 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희랍 철학입니다. 육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육체가 있으므로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잘못 쓰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주일날 라스베이거스 가서 예배 시간에 게임하면서 "주여!"라고 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훼방하는 자들입니다.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권위를 맡겼으면 일단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대항하고, 영광을 훼방하고, 하나

님께 대항하다가 멸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여기서 더욱 이해하기 쉽게 개인적 기억을 또 예로 들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개인의 멸망이 나옵니다.

>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가인은 종교인입니다. "가인아!" "네." "네 동생 어디 있니?"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까지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그는 자기의 의를 주장해서 망했다고 나옵니다. 아벨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의가 없습니다. 내 양의 피를 받으세요" 하고 양의 피를 바쳤습니다. 그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농사, 곡식을 바쳤습니다. 거기에는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없으면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시기했습니다. 동생이 은혜를 받았으면, 형이 기뻐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야, 너는 뭘 바쳤기에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냐?" "저는 양을 바쳤습니다." "그럼 나한테 양 하나만 줘라." 그러면 될 텐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밭에 데려가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파묻었어요. 스스로 자기 의를 자랑한 것과 시기 그리고 살인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만한 거, 이거 좋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에서도 보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시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도끼눈이 무섭다고, 여자들이 옷 잘 입은 걸 보면 시기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차를 타면 또 시기심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시기심으로 보는 눈이 도끼눈입니다. 교만과 시기, 그래서 결국 가인은 망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돈을 탐냈습니다. 발람은 다섯 번 물질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습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국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탐심과 모략 때문에 멸망한 자입니다.

모략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남을 모략하다 자기가 그 올무에 걸려 죽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다가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절대로 남을 모략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구는 어떻고 어떻다' 이러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자신 눈에 있는 들보를 모르고 남의 티끌만 지적한다고 했는데, 발람은 선지자이지만 돈을 탐내고, 중상모략하다가 결국 멸망받았습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자손입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 선별된 지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망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제사장이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이 승진할 줄 알았는데 모세가 자기는 빼놓고 다른 사람을 제사장 시키니까 여기서 그만 반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을 조직해서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고라당이 저를 대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일

진대, 특별한 방법으로 저들을 다 죽여주세요." 보통으로 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다고 하지 벌 받았다고 안 하니까. 그래서 땅이 쩍 갈라지면서 고라당 250명이 거기 빠져서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을 조직하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많을 때 책망했습니다. "게바파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왜 그러느냐? 교회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들이 속삭여서 당을 만들고 세력을 규합하려는 자가 있으면, 속히 떠나세요. 거기 같이 있다간 여러분도 함께 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2-13절을 보면,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자들은 "애찬의 암초"라고 했습니다. 애찬의 암초가 무엇입니까? 바닷물 위에 시커먼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다인 줄 알고 가다가 부딪히면 배가 엎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물 같은데 물이 아니라 암초예요. 다 같이 따라 해봅시다. "집사라는데 집사는 아니구나. 장로 같은데 장로는 아니로구나. 목사 같은데 목사는 아니로구나."

옛날 시골에 가서 밥을 한 그릇 해주어서 먹는데, 신자 집에서 한 숟가락 먹는데 돌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여보!" 하며 아내만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먹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한 숟갈로 끝났어요. 교회는 사랑의 잔치인데, 이런 자들이 교회에 엎드려 있으면 교회는 사

랑이 다 식고, 교회에서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애매한 자들이 교회 사랑의 잔치에 암초와 같은 존재들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압니다. 교회 봉사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돈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해요. 물 없는 구름입니다. 구름에 물이 있어야 할 텐데, 물이 없어요. 구름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통성합시다." "네." "당신 성이 뭐요?" "저는 구입니다." "저도 구입니다." "당신 이름은 뭐요?" "이름은 름입니다." "나도 름입니다." "고향이 어디요?" "태평양이요." "나도 태평양이요." "어떻게 왔소?" "태양광선 타고 왔소." "나도 태양광선 타고 왔소." 그랬더니 이쪽 사람이 "똑같구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이쪽은 물이 있는 구름이고, 다른 쪽은 물이 없는 구름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아내와 같이 기차 타고 부산을 가는데 제 앞에 여자 둘이 앉았습니다. 한 여자는 아주 검소하고 곱게 화장을 하고 성경을 보고 앉아 있고, 다른 한 여자는 껌을 짝짝 씹고 이상한 잡지를 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니까, 껌 씹는 여자가 "나도 믿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어요?"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받았어요." "교회 직분은 뭐예요?" "집사예요." "나도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똑같구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똑같지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다 집사, 다 권사, 다 장로, 다 목사 아닙니다. 똑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 없는 구름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다음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가을엔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두 번 죽었다고 했습니다. 원죄, 자범죄.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 작

당, 타령, 모략중상 이런 열매만 있어요.

그다음에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야 하는데, 미친 물결과 같습니다. 미꾸라지 같은 교인이 있으면 교회가 미친 물결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리하는 별들"이라 했습니다. 슈바이처가 말하길, "우물을 파는데 한 군데만 파라,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저 오늘은 동양선교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기에 가고, 다음엔 또 저기에 갑니다. 북두칠성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들은 LA 요람 신자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데 갔다가 환영 못 받으니까 다시 온 거예요. "왜 왔소?" "신자니까 왔지요."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17절로 19절까지로 신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예언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가 되면 "경건치 않은 자들이 나타난다. 정욕자들이 나타난다.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당을 짓는 자들이 나타난다. 육은 있지만 성령이 없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떡 먹듯 하는 자들이 무슨 집사고, 무슨 권사고, 무슨 장로고, 무슨 목사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나타나므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20-25절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행할 일을 언급합니다. 20-21절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믿음을 가져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라. 스스로 지켜라. 다니엘과 같이 네 믿음을 지켜라. 주의 긍휼을 기다

려라.” 이것이 자신에 대해서 행할 것들입니다.

그다음 남에게 대해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구별해서 사귀라는 것입니다. “불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하라, 현재 죄짓는 자를 불쌍히 여겨라, 더럽힌 옷을 싫어해라, 부정한 것은 피하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와 더불어 의논하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앉는 자리와 서는 자리와 눕는 자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라고 해서 다 가면 안 됩니다. 같이 쑥덕쑥덕 말해서도 안 됩니다. 불의한 자리면 떠나야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오늘까지 나를 보호, 인도해 주시고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실 분이니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가사는 영광 권세 권력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를 것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찬송하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과거에도 찬송했고, 오늘도 찬송하고, 세세토록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찬송하는 성도들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가 날마다 달려야 할 것 아니냐? 아니다. 날마다 죄를 지으면, 날마다 갈보리 언덕에 나타나 예수님이 달려야 할 것 아니냐? 아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는 것 같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단한 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으니 믿으려면 잘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애독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 받아서 한 번만 주신 십자가 도를 위해서 잘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군선교와 러시아 선교

(마 28:18-20)

저는 지난 5월 12일 아침, 이곳에서 성전 내부 개조 축하예배를 드린 후에 저녁에 오광찬 장로님과 한국에 가서 그 이튿날 괌도에서 온 원주민 목사님 32명에게 특강을 하고, 그 이튿날인 토요일에 논산에 내려가서 4,072명에게 합동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고생도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주일 날에는 계룡산 밑에 있는 육해공군 본부교회에 가서 낮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하루 쉬었다가 러시아 비행기로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먼저 와 있던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브라질에서 특강하러 오신 목사님 내외분과 합류했습니다.

이튿날에는 그곳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다음 날 모스크바 우리 신학교 분교 제2회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튿날 모스크바에서 버스 타고 5시간 내려가는 르에잔이라는 도시에 이르러 우리 모

스크바 신학교의 분교가 되는 신학교에서 졸업식을 갖고 낮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조갑수 목사님을 기념하는 신학교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마친 후에 한국에 꼭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지난 목요일 날 LA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비행장에서 내리자마자 교회로 와서 영상 스크린을 보게 되니 너무나 시원하고, 진작 설치하였으면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DBC(별관)에서 예배드리는 어른들과는 얼굴을 피차 못 봤고, 또 우리 성가대들은 맨날 설교자 얼굴을 못 보고 뒤통수만 보고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안 하는데, 그날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회원들과 재직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여성 구역원들이 일하는 분들에게 주말에 식사까지 대접한다는 말을 듣고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수척해졌습니다. 힘드시지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마디, "아니요." "보람을 느낍니다." "나만이 하나님 기쁨입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논산훈련소에 있고, 러시아 모스크바 신학교와 르에잔 교회, 르에잔 신학교에 제 마음 일부가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이번 선교여행에 보람을 느꼈는지 시간만 많

다면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보고하면 좋겠지만 미국에서는 시간이 귀하고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 다 못하고, 저 뒤에 논산 훈련소에서 4,072명에게 세례 주는 광경, 또 모스크바 두 곳의 졸업식과 예배드리고 헌당식 하는 장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 현충일입니다. 메모리얼 할로데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미국에 Long Weekend Holidays면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더불어서 시간 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에 LA를 떠나서 산에 가든가 바닷가에 가든가, 가족들과 스트레스를 풀고 아이들과 더불어 같이 추억의 박물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고, 가까운 교회 있으면 예배드리고 없으면 대자연 속에서 가족끼리 예배드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단 헌금은 그다음 주에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부 예배에서, 예배 끝나면 가급적 가족과 더불어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그리고 집에서 맨날 먹는 김치, 깍두기 먹지 말고 식당에 가서 좀 사먹고 그래야지 식당도 벌어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가능하면 예배드리고 집에 가셔서 식구들과 바깥에 나갔다 오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가라고 해놓고 설교 길게 하면 주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 지상명령이라고도 말하고, 유언이라고도 말하는 말씀입니다. 유언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제가 6·25전

쟁 피난통에 동네 온천에서 피난 목회할 때에 장만옥이라는 선생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대구제일장로교회 창립 장로님의 아들인데, 학생 때는 교회 잘 다녔지만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럭비 선수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열관리협회 회장을 하시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럭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모희 권사라고 나이 90이 되셨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아들을 놓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네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가는 데 와야지." 그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결심하고 그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서 장로가 되고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LA에 황성수라는 국회의원 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분이 한번은 여기서 교회의 단체장의 책임을 맡았을 때에 큰 집회가 있는데 저보고 와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행사는 제 신앙 양심에 그렇게 기뻐할 만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더니 제게 뭐라고 하냐면 "임 목사, 내 유언이야, 한번 들어줘" 하였습니다. 유언이라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이 유언이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유언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다섯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항상 같이 있으마', 이 다섯 가지 유언을 하셨습니다.

1. 먼저 예수님의 처음 명령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이 가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기쁘다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랬는데,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자아도취 안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데도, 영혼 건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고 성령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예루살렘에 그냥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 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해체시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한 일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적진인 로마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의 마르다뚜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유럽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은 영혼을 구원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고생되지만

영혼 건지러 가야 합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에 가야 하지요.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가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순교할 각오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제자가 됩니다. 논산에서도 젊은이들 데려다가 교육하고 훈련시키니까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관 출신도 있습니다. 사관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들을 '메추라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되면 군인다운 냄새가 풍깁니다. 서는 것도 분명히 서고, 걸어가도 척척 걸어가고, 음식을 먹어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가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학생은 많지만 제자는 적다고 하였습니다.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적다고 했습니다. 자문은 많지만 헌문은 적다고 했고, 아비는 많지만 아비다운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교회 드나드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의 참 제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오래 다닌 사람, 세례 받은 사람, 직분 가진 사람이 제자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과실을 많이 맺은 사람이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열매, 의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착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열매를 맺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정욕, 자기 감정, 자기 분노,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부정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뒤따라가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세례란 옛 사람을 물에 잠그고 다시 장사 지내는 표입니다. 세례는 물 속에 옛 사람, 즉 아담에 속한 것, 육신의 사람, 정욕에 속한 것, 본능적인 사람을 집어넣어 장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하는 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신 것처럼 육이 한 번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법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영주권 있는 사람이 있고, 시민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아직 불법 체류한 분들, 그전부터 불법으로 체류하셨지만 큰 죄만 짓지 마세요. 공산당에 가입한다든지, 어떤 마약을 판다든지 미국에

해가 되는 일만 아니면 얼마 지나서 다 사면도 받게 되고, 애들이 크면 결혼하게 되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요. 미국 조상들이 올 적에 무슨 비자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총 가지고 와서 죽이고 주저앉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땅이지, 백인 미국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으면 염려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때가 되면 다 탑니다. 영주권 가져도 이 사람은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교인입니다. 세례 받아야 교회의 등록원이 됩니다. 교회 발언권이 있습니다. 교회 결의권이 있습니다. 성찬도 뗄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 교회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나깨나 저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저주받아 피 흘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피안의 세계를 너머 저 형이상학적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세례 받은 표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존경하는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학생 때 그분 뒤따라다녔는데 가끔 걸어가면서 이렇게 봐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 구름에 주님이 오시는가 보는 거야." 참 훌륭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주먹을 꼭 쥐고 가십니다. "목사님, 주먹 놓으세요." "주님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러고 시골 논두렁에 갈 때에 평평한 데 안 가고 울퉁불퉁한 데로 갑니다. "목사님, 이 평평한 데로 가세요." "지금 거기는 주님이 가는 거야." 제가 그 어른에게 배운 게 그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 물 세례만 주지 말고 불 세례를 주라 그럽니다. 물 세례는 외적 변화이고, 불 세례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넷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가르쳐라."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학자 같은 혀를 주셔서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부입니다. 공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따라다니면서 변화되어 그 혀에 하나님께서 학자 같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쓰시니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요한을 쓰셔서 그를 통해 요한복음과 묵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신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 신학교 졸업 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 동기동창 한 일고여덟 명이 왔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우리 동기동창이 있었습니다. 많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내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학위를 따서 한국에서 가르친다." "내 아들은 유럽에 가서 학위를 따 가지고 한국 큰 기업체에서 일한다." 전부 보면 그들이 일제 때 태어나서 해방 때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새같이 대학을 나와 신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목회도 잘하고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게 해주신 것입니다.

가서 '진리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1절을 보니까

'주의 길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2절을 보니까 '주의 율례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을 보니까 '주의 뜻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일본의 경흥대학 총장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유지들을 많이 모아 놓고 일본, 미국, 한국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실패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세계 정신을 불어넣어 주지 못했다, 조상들이 고생했던 체험을 못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한국 대기업체의 젊은 아들들이 러시아, 미국 와서 돈 막 쓰고 라스베이거스 가서 몇십만 불씩 노름해서 버리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것 아닙니까?

"너희는 자식들에게 진리를 가르쳐라. 주의 길을 가르쳐라. 주의 율례를 가르쳐라. 주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라.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라야 사람인 것을 가르쳐라."

"대통령 되겠다, 대장 되겠다, 국회의원 되겠다 하는데 그거 아니고 자동차 운전수가 되더라도, 야구선수가 되더라도, 풋볼선수가 되더라도 정직한 사람이 돼라. 성실한 사람이 돼라.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돼라. 가치관을 바로 가르쳐라" 그걸 말했습니다.

다섯째,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제자를 삼을 때, 세례를 줄 때, 또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핍박도 있다. 오해도 있다. 어떤 때는 감옥도 들어간다. 매도 맞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는 정의와 진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있겠다는 것은 그냥 같이 있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

마, 인도해 주마, 붙들어주마, 가르쳐주마, 승리케 한다, 축복해 주겠다'는 뜻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방인 세계와 아프리카 식인종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전도자들이 담대히 전한 것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 붙잡고 용기를 얻어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과거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의 간증입니다. 내가 사자에게 물려 손이 끊어졌어도 내가 겁내지 아니하고 선교사업을 끝까지 한 것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같이 있겠다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용기를 얻어 해낸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명령에 따라서 한국 군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2. '한국 구원은 군선교에 있다'고 단적으로나마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감정일 것입니다. 저도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말을 해서 우리 한국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좋은 얘기를 해야지 나쁜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유익할까' 하다가도 그래도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요새 일본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 보셨습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30년을 살면서 한국에 대해서 아주 혹평한 글을 썼지 않아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썼다면서, 한국은 일본에다 대면 100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만큼도 교통질서를 지킬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기보다도 '객관

적으로 한국사람이 모르는 것까지도 찔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요새 신문 보십시오. 텔레비전 보십시오. '한국이 이래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가서 7장 2-6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발하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은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우리 한국을 보면 군장도 재판장도 뇌물을 먹고, 대인인 대통령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망해도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류 역사는 결단코 뒤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 희망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 논산훈련소 세 번 가서 합동세례 줄 때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1996년에 가서는 제가 5천 명

에게 합동세례를 주었습니다. 1998년 작년에는 6천 명에게 합동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가서는 4,072명에게 합동세례를 주었는데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요, 빽이 없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요, 내가 믿기는 강토를 사랑하고 주권을 사랑하고 재산과 생명을 사랑해서 자진해서 이곳에 온 장병인 줄 내가 믿고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을 살릴 것은 때묻지 않은 여러분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건다." 그러자 장병들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 작은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했습니다. 때 묻고 금 갔으면 안 쓴다는 것입니다.

"장병들아, 그대들은 희망을 가져라. 조국의 운명이 귀관들의 어깨에 있다는 걸 자각하라" 그랬더니 모두가 "아멘"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겁니다. 왜요? 군대에 와서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말 들으니까 1997년도에는 군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20만 명이에요. 금년에는 22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020 군선교 비전'이라는 군 선교에 대한 작전, 계획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35만 명이 군에 들어올 거랍니다. 금년에 세례 받을 사람들이 22만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들어온 군인이 3만 명이라는 거예요. 합해서 25만 명이 한 3년 있다 제대하여 결혼을 하면 아내와 애들 둘 낳으면 625만 명이 됩니다. 625만 명인데 네 가정이 합치게 되면 얼마나 되는가 하면 2500만이 된답니다. 그럼 2500만 명과 지금 2200만

합하면 3700만이 돼요. 3700만이면 한국 인구를 5천만 잡으면 75%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이 됩니다.

여기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보니 "등록한다. 청지기로 임명한다. 기도한다. 편지한다. 선물 보낸다. 심방한다. 초청한다. 영접한다. 전도한다. 후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이필섭 대장이 앞장섰습니다. 불교학생이었는데 사관학교 때 군목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대장입니다. 참모, 합참의장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걸 볼 때에 제가 앞으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정신이 뚜렷하면 얼마나 한국이 앞으로 새롭게 되겠는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김새흥 안수집사가 세례성수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그저 군인도 "아멘" 하면 이 집사도 연병장이 떠나가라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고 김진호 집사님이 이번에 만 불을 투자해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그것으로 신구약 성경을 사주고,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고, 그다음에 세례증 주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다과파티를 해주었어요. 이분이 또 두 손에 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할 때는 너무나 감격하니까 제 안사람을 못 데려온 것이 안쓰럽다고 얘기를 하고, 내년에 한 번 또 오겠다고 해서 내년 10월달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값도 단체니까 저렴합니다. 100주년 기념 호텔에 싸게 갑니다. 제 생애 잊을 수 없는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이 갔던 미국의 목사님들이 내 생에 한 장소에서 세례 백 명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군 선교에 희망이 있습니다. 군선교해야 합니다.

3. 러시아 선교는 러시아를 구출하는 일입니다.

러시아 가본 사람은 알지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합니다. 공산당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공산당 지도자가 지금 인기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가도 보면 이거 50불 내라고 그러는데 깎고 깎으면 10불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낮에 모스크바 레닌그라드도 증명서 없이는 걷지 못합니다.

허락받아야 다니지, 들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호텔에 있으면 칼 같은 거 들이대니까 있는 돈도 다 뺏기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를 위해서 아파트 하나 얻어 가지고 라면하고 빵하고 남은 돈 주고 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몇백 년 되었는지 뜨거운 물도 안 나오지요, 텔레비전도 없지요, 라디오도 없지요, 그저 무슨 돼지우리에 있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1992년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4월달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족한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새벽이고 아직도 추운데 한 7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이 교육을 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제도를 세워 지상낙원 만든다더니 왜 이렇게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금 거지 나라가 되었느냐? 왜 망했느냐? 내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그렇다. 칼을 강도가 가졌을 때와 의사가 가졌을 때에 쓰이는 가치가 얼마나 다르냐? 교육이 좋다, 과학이 좋다, 제도가 좋다지만 가질 사람이 가져야 한다. 이 러시아는 사회혁명, 경제혁명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못했다. 인간혁명이 급선무이다. 복음을 가져야만 이 러시아가 산다"라고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만이 러시아를 살립니다. 십자가의 도

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이번에 러시아 신학교에 갔더니 조갑수 목사님이 아주 잘했어요. 다른 한국, 미국에서 간 선교사들은 자기 이름들을 가지고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신학교를 만들어 가르치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학위 주는 허가를 안 줍니다. 제 친구 목사를 레닌그라드 페드로 그라프에서 이번에 만났는데 한국에서 9년 동안 200명 길렀고, 지금도 90명을 길렀는데 아직까지도 인가를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조갑수 목사님은 거기 가서 소련 학자들을 전부 데려다가 학장도 시키고 교수도 시키고 해서 학위를 주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여자 하나가 1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안 시키고 2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러시아 육군대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과격해서 지난번에 졸업시켜 달라고 하는데 3점 모자라서 안 된다고, 이거는 M.A. 학위 주지 신학 석사 M.DIV.는 못 준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막 행패를 부려도 끄덕도 안 하니까 2년 더 공부해서 이번에 학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주지 않는 다른 학교를 졸업한 전도사, 목사들이 그곳에 와서 다시 재교육을 받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어디 가서 교수 노릇도 하고, 성경학교도 합니다.

이꼬르 까빠루프라는 서른다섯 살 먹은 사람이 있는데 2년 전에 졸업시켜 놨더니 그 사람이 2년 동안 다니면서 교회 36개를 세웠습니다. 2년 만에 36개 러시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러시아 선교는 러시아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선교도 한국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평양 장로회신학교 신학생 7명이 졸업했고, 서울 신학교에서도

성서학원 두 사람을 졸업시켜 오늘날 수천 수만 교회가 된 것처럼 러시아 선교는 러시아 신학생을 양성해서 해야 합니다. 레잔에 가니 거기도 12명이 졸업했는데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갑수 목사님의 기념 신학교를 지었는데 웅장하지는 않지만 아주 아담하게, 거기 실정 맞게 지하 1층, 지상 3층, 4층으로 지하는 도서실, 운동실, 지상의 방 둘은 공부실, 그다음에 지상 2층엔 기숙사 남자, 여자, 그다음에 3층 하나는 학장실, 하나는 교수실로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져갔던 돈 만오천 불을 그 포켓 목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와서 박사학위 받고 갔지요. 그 신학교 지을 때는 조갑수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자기들의 먹는 것 아껴서 보태주고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도 보태주고, 특별히 우리 교회 김기성 장로님의 맏딸이 약사인데 그때 시집가려고 모아놓은 돈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패 하나 가져왔어요. 그런데 만오천 불이 모자라 이번에 만오천 불 갖다 주었더니 이분이 그저 저를 끌어안고 고맙다고 비벼대는데 수염이 어찌나 강한지 지금도 아주 따가워 죽겠어요.

제가 "포켓 목사야, 수염 좀 깎아라. 내가 따가워 죽겠다" 그랬더니 열심히 깎았는데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듣자니까 그 신학교 짓는 데 계획보다 돈이 더 들어갔답니다. 빚이 아직 많다고 해요. 빚 갚을 일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가슴이 제대로 뛰지 않고, 눈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굳어져서 절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방에 모여서 "우리 주머니 텁시다" 해서 임진수 장로님이 선교부장이고 이인검 집사가 선교전도사이고, 임승표 선교부차장이 자기들 2천 불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목사가 3천 불, 컴퓨터, 복사기 사는 데 2천 불 주었더니 그것 받고 나서 눈이 떠졌다고 합

니다. 그거 받고는 다리가 풀어졌다고 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레잔 신학교에서 우리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합니다. 이 두 신학교에서 앞으로 러시아 사람들을 건질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러시아 선교에 희망이 있습니다.

선교의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133년 전에 영국 청년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으로 복음 전하러 왔다가 순교한 겁니다. 115년 전에 알렌 의사 선교사가 와서 황실에서부터 전도한 겁니다. 114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몸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던 당시에 여자들이 물질로 도왔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을 보면, 바울 전도에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도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 전도를 도왔습니다. 지금 모스크바 레잔 신학교, 모스크바 동양선교교회, 또 레잔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드리면서 매달 5천 5백 불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봉모 집사님과 최근홍 장로님이 3천 불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나 선교회에서 3백 불을 보냅니다. 그 8,800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

라"고 했습니다.

선교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질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몸으로 가야 합니다. 선교사로 가든가, 아니면 의사로 가든가, 아니면 기술자로 가든가, 아니면 영어선생, 수학선생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해 전에 여대생 하나가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1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주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 가운데 두 사람이 영어를 잘 해서 미국 루터 교단에서 미국으로 유학시켜 주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의사, 교사, 기술자들이 가서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도우십시오. 몇 달도 좋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으로 성경 세 구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입니다.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바친 그것이 지금 러시아에서, 군 선교에서, 지구촌에서 역사하고 있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선교헌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자랑이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